

미래엔 교과서
자습서



**정답과
해설**

1 문학의 향기

01 서정 갈래와의 만남

 산수유나무의 농사

|| 문태준

+ 확인문제

• 13쪽

01 ③ 02 ① 03 ①

01 이 시는 산수유나무가 피운 꽃이 만든 풍성한 그늘이 주는 가치를 노래하고 있다. 산수유나무가 꽃을 피우기까지의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이 시는 산수유나무의 그늘에 대한 참신한 문학적 발상을 바탕으로 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의성어와 의태어 같은 음성 상징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②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산수유나무의 속성을 정성과 노력을 들여 농사를 짓는 농부에 비유하여 마치 농사를 짓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③ 산수유나무와 ‘불평하는 사람들’을 대비하면서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주는 배려와 평안함’이라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④ 같은 단어(‘산수유나무, 그늘’ 등), 구절(‘농사를 짓고 있다’), 종결 어미(‘-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노란 꽃’, ‘노랑다’, ‘노란 좁쌀’ 등에서 색채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03 이 시에서 ‘꽃’과 ‘그늘’은 산수유나무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산수유나무는 피워 낸 꽃으로 그늘을 만들고 있으므로 이 둘의 가치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③ 노란 꽃이 만들어 낸 그늘을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라고 표현하였으므로, ‘노란 좁쌀’의 원관념은 산수유나무 꽃이다.

활동 응용 문제

• 14~16쪽

01 ⑤ 02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03 ③ 04 ① 05 ① 06 ⑤ 07 색채어, 배려(미덕) 08 ⑤

09 ⑤

01 이 시의 시어 ‘그늘’은 통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표현으로, 다른 생명들이 휴식이나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산수유나무가 베푸는 공간을 의미한다.

02 이 시에서 ‘노란 좁쌀’은 산수유나무가 피워 낸 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시어이다.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는 산수유나무가 짓는 그늘 농사의 가치를 무게로 나타내어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시구이다.

03 이 시는 다른 존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늘을 만들고 넓혀 가는 산수유나무의 모습을 바탕으로 하여 이타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⑤ 화자는 산수유나무가 꽃을 피우고 그늘을 만드는 정성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 농부는 산수유나무의 정성을 빗대기 위한 보조 관념으로 쓰였다.

04 이 시는 시어의 반복(산수유나무, 그늘 등)과 시구의 반복(농사를 짓고 있다), 종결 어미의 반복(‘-다’)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동일한 글자 수의 반복은 외형률로 이 시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동일한 의미를 반복하는 것은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과 관련이 없다.

05 이 시에서는 그림자가 회색이나 검은색이라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그늘을 노랑다고 표현함으로써 그늘에 봄날의 따스한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06 이 시에서 ‘산수유나무’의 그늘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대상으로서 꽃이 활짝 필수록 땅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넓어지는 긍정적인 대상이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그늘’은 마음의 그늘로서 추상적인 대상이며, 말려들고 좁아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07 이 시에서 산수유나무의 꽃과 그늘을 노란색의 색채어를 이용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하였다. 또 자연과 인간의 모습을 대비하여 산수유나무의 긍정적 속성을 강조하면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08 서정 갈래에서는 시적 화자가 등장하여 자신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정서를 객관적으로 표현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09 서정 갈래는 주로 개인적인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는 문학 양식이다. 따라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기보다는 감정의 흐름과 그 표현이 중심이 되며, 특히 사랑, 슬픔, 그리움, 고독 등 인간의 내면적인 정서를 담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화자의 내면세계에 공감하고, 감정적인 교류를 이루게 된다.

01 ④ 02 ④ 03 ③ 04 ③ 05 ⑤ 06 ③ 07 ⑤ 08 ②
09 ③ 10 **예시 답안** 참고 11 ④ 12 ⑤ 13 ③ 14 ②

01 ‘경외감’의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감정’이다. 이 시는 자연물인 산수유나무의 모습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끌어내고 있지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⑤ 이 시에는 화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직접 드러나 있지 않으며, 산수유나무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함축적 시어로 나타내고 있다.

02 이 시에서 화자는 먼저 산수유나무가 하늘에 피우는 ‘노란 꽃’을 보지만, 땅에서 넓어지는 ‘그늘’에 더욱 주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시에서 ‘하늘’은 그늘을 만들기 위해 꽃을 피우는 공간으로 이상적인 세계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03 <보기>의 시는 나무가 영하의 혹독한 상황을 견디며 온몸으로 그것을 극복해 내고 마침내 꽃을 피우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산수유나무의 농사」에서는 나무의 부정적 상황이 변화되는 과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산수유나무의 농사」는 ‘산수유나무’가 꽃을 피우는 순간을 묘사하며 대상의 긍정적 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보기>는 ‘나무’가 변화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배경지식 더하기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 나무어로」

갈래	자유시, 서정시
제재	나무
주제	겨울을 이겨 내고 꽃을 피우는 나무의 생명력
특징	• 계절의 순환이라는 자연 현상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 나무를 의인화하여 현실 극복 의지를 나타냄.

04 반어적 표현은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반어적 표현은 이 시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에서는 시적 대상인 산수유나무를 농사짓는 사람으로 의인화하고 있다.

②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에서 명령형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④ 동일한 시어(산수유나무, 그늘 등)와 시구(농사를 짓고 있다)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⑤ 감각적인 심상 특히 ‘노란 꽃’, ‘노란 쫄쌀’과 같은 시각적인 심상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05 ㉠과 ㉡은 서로 대비되어 배려가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보여 주고, 산수유나무의 미덕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불평하는 사람들’과 ‘산수유나무’의 관계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06 <보기>의 ‘너’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존재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 시에서 산수유나무는 다른 존재를 배려하고 베푸는 미덕을 지닌 존재이다. 따라서 산수유나무는 <보기>의 ‘너’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조언할 수 있다.

+ 배경지식 더하기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갈래	자유시, 서정시
제재	슬픔, 기쁨
주제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과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촉구
특징	• ‘슬픔’과 ‘기쁨’을 의인화하여 표현함. • 공동체적 가치와 태도를 강조함.

07 이 시에서는 산수유나무의 풍성한 그늘과 인간의 좁아지는 마음의 그늘을 대비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 시는 타인을 위한 배려에 인색하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찰하고, 사람들에게 산수유나무의 미덕을 배울 것을 권하고 있을 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현실 극복 의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08 ㉠ ‘마음의 그늘’은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연관된 것으로, 땅에서 넓어지는 산수유나무의 그늘과 대비되는 대상이다. 따라서 이것을 농부의 마음을 비유한 표현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의 ‘그늘’은 산수유나무가 터트린 노란 꽃을 담은 대상으로, 이는 통념적으로 어두운 부분을 의미하는 ‘그늘’을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노란 색채로 표현한 것이다.

③ ㉡ ‘그늘 농사’는 산수유나무가 열심히 꽃을 피워 그늘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㉔에서 ‘그늘’은 꽃을 피우면 피울수록 넓어지는 것으로, 산수유나무가 지은 농사의 결과물인 그늘이 더 넉넉해짐을 표현한 것이다.

⑤ ㉔ ‘노란 좁쌀 다섯 되’는 산수유나무가 농사지은 그늘이 지닌 의미를 중량감을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09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의 화자로, 산수유나무의 꽃과 그늘을 바라보면서 산수유나무의 배려와 미덕을 사람들에게 배울 것을 권하고 있다. 이기적인 인간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시의 화자이지 산수유나무가 아니므로, 산수유나무의 불만을 표현하였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10 **예시 답안** ㉔: 옥말려뜰(좁아짐). ㉕: 아낌없이 베푸는 자연과 대비되는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여 산수유나무의 미덕을 배울 것을 권하기 위해서이다.

출제 의도 대립되는 시어의 속성과 더불어 시인이 시어를 대비시킨 의도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㉔에는 ‘산수유나무의 그늘’로 제시된 속성과 대립되는 속성을 서술하고 ㉕에는 시어의 의미를 대조시킨 표현 방법이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사람들의 마음의 그늘이 좁아지는 특성을 ㉔에 서술하고, 대비를 통해 산수유나무의 긍정적 가치를 권하고 있다는 내용을 ㉕에 서술한 경우	4점
㉔ 혹은 이 시의 주제를 서술하였으나 대비되는 표현이 주제를 어떻게 형상화하는지 서술하지 못한 경우	1점

11 이 시는 자연물에 대한 참신한 문학적 발상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 시에서 참신한 표현은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노랗다고 한 것과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한 것, 그들의 무게를 노란 좁쌀 다섯 되는 무게로 나타낸 것이다.

12 이 시에서 ㉔ 사람들은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드는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지, 산수유나무의 그늘이 넓어지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13 이 시에서는 만질 수도 없고 무게도 없는 그늘을 좁쌀의 무게로 구체화하여 산수유나무가 짓는 그늘 농사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서 농사를 짓는 주체는 화자가 아니라 산수유나무이다.

14 ‘산수유나무’는 ‘그늘 농사’를 지어 다른 생명을 위한 안식처를 넓혀 가는 배려와 미덕을 지닌 존재로, 화자에게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대상이다. <보기>에서 ‘꽃’은 시련을 이겨 내고 봄에 피어난 존재로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사람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다. 따라서 <보기>의 화자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해 봄꽃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02 서사 갈래와의 만남

카메라와 워커

▮ 박완서

확인문제

• 29~43쪽

01 ② **02** ③ **03** ⑤ **04**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는 삶을 상징한다. **05** ② **06** ④ **07** ③ **08** 정문: 합법적으로 취업 시험을 보고 정정당당하게 합격하는 일 / 뒷문: 불공정하게 인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부탁하는 일 **09** ④ **10** ⑤ **11** 노동 강도가 세고, 휴먼지를 뒤집어쓸 정도로 열악한 곳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다. **12** ① **13** **예시 답안** 고단한 노동 현실 속에서 무시받고 가난하게 고생하며 사는 삶을 상징한다. **14** ③ **15** ② **16** ⑤ **17** ① **18** ④ **19** ③ **20** ③ **21** ④ **22** ①

01 이 소설은 작품 속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의 시선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02 ‘나’는 문과가 생존에 관련된 문제보다는 철학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성향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문과를 간 사람들은 자기만 고깃국을 먹은 게 아닌가 의심하는 바보 짓을 하고, 사회의 병폐에 대해 허풍을 떨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 등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취진다. 반대로 이과를 간 사람들은 큰 기업체에 취직하여 돈을 모으는 등 사회에 순응하여 이득을 보는 모습으로 비취진다.

03 ‘내가 오빠에 대해 오랫동안 몰래 추측하고 있던 걸’에서 ㉔의 질문은 고모가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훈이의 질문임을 알 수 있다.

04 고모인 ‘나’는 훈이에게 대기업에 취직해서 일요일이면 카메라를 메고 아내와 야외로 놀러 나갈 만큼 여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즉 ‘카메라’는 중산층의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 05 '카메라'를 갖는 삶은 고모가 훈이에게 바라는 삶이다. 훈이는 고모가 원하는대로 고모의 가치관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다.
- 06 '나'는 훈이가 취업에 거듭 실패하자 안타까워할 뿐, 훈이에게 실망하고 있지는 않다.
- 07 '나'는 훈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잘사는 것을 통해 자신이 겪은 잔인한 전쟁에 대해 통쾌한 복수를 하고 그때 받은 깊은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다.
- 08 '나'는 훈이에게 '돈이 좀 들더라도' 정문 대신 뒷문으로 통하는 길을 알아봐야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문'과 '뒷문'은 각각 훈이의 취업을 위한 정당한 방법과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의미한다.
- 09 훈이는 건설 현장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공과 관련 있는 측량과 제도를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일곱 시가 넘은 시각에도 퇴근하지 못하고, 밤에도 제도와 관련된 일을 한다는 대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몰라보게 살이 빠지고 흙먼지를 뒤집어쓴 모습, 역한 냄새가 나는 피죤진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모습 등에서 알 수 있다.
 ③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기술직과 달리 관리직 등 반들덜 수 있는 직종은 수두룩하다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진부의 야경에 사투 휘황해하고 흥분하는 훈이의 모습과 '이까짓 데도 자주 나와 보지 못한 게로구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 10 훈이는 '그까짓 공사판'이라는 '나'의 말을 그대로 말하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갑자기 씹어뱉듯이 말한 것으로 보아 '나'의 태도에 공감하기 보다는 비난하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 11 몰라보게 살이 빠지고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훈이가 일하느라 고생이 많음을 보여 준다.
- 12 일반적으로 음식 맛이 기막히다는 것은 좋다는 뜻으로 쓰이나, 여기서는 형편없다는 뜻으로 반어적 의미로 쓰였다. 일의 양에 비해 턱없이 부실한 식사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④ ⑤에 대한 부분은 식당의 식사가 먹음만 하나는 '나'의 질문에 대한 반어적 표현이지, 사회 구조 전체를 고발하고자 하는 의도는 담겨 있지 않다.

- 13 훈이는 냄새 나는 몸을 씻지도 않고 바로 잠들 정도로 지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훈이가 신고 있는 '워커'는 이처럼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훈이의 삶을 상징한다.
- 14 공사가 늦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말을 들으면 봉급이 적다든가 식사가 형편없다든가 하는 불평은 커녕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죄인이란 생각이, 먼저 들어기를 못 펴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훈이네 회사의 노동자들은 불평불만을 회사 측에 말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회사 식당에서 먹는 식사비를 봉급에서 꼬박꼬박 제한한다고 하였다.
 ② 하숙집의 악취는 훈이의 발에서 풍기는 악취에 대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④ 커피가 마시고 싶어 찾아간 다방에서 Y건설 패거리를 만난 뒤 훈이는 잔뜩 찡그리고 커피를 훌쩍 들이켰다고 하였다.
 ⑤ 회사의 간부들은 공사가 늦는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고 하였으나, 훈이는 이것을 공갈이라고 하였다.
- 15 '나'는 하숙집 주인 여자에게 그동안 신세가 많았다고 고마움의 뜻을 표시했으나 주인 여자는 냉담한 태도로 신세 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하숙집 주인 여자의 이러한 말과 태도는 훈이와 자신이 정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돈을 받고 방을 빌려줄 뿐인 관계임을 밝힌 것으로, 인정이 메마른 각박한 사회의 면모를 보여 준다.
- 16 '나'는 열악한 상황의 훈이가 자신을 따라 서울로 가겠다고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젓은 빨래는 서울까지 가져가기가 불편하므로 '나'는 선뜻 빨래를 하지 못하고 있다.
- 17 훈이가 일하고 있는 곳은 옥수수가 많이 생산되어 옥수수 고장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이곳에 몇 달이나 살면서 옥수수 하나를 못 얻어먹었다고 생각하니 '나'는 훈이가 처한 상황에 대해 안쓰러움을 넘어서 부아가 치솟는 것을 느낀다. 고속 도로 공사와 관광 붐으로 인해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인정보다는 금전적인 가치만을 중시하게 된 분위기가 드러난다.
- 18 '나'는 일이 '나'의 당초 계획대로 잘 풀릴 수도 있다는 훈이의 말에 반발하지 않고 "그래 참, 잘될 수도 있을 거야. 잘될 여지는 아직도 충분히 있고말고."라며 동조하였다.

- 19 '나'는 훈이의 삶이 비참하다고 생각하지만 훈이는 자기 나름대로 현재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어려움을 이겨 내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고픈 마음을 밝히고 있다.
- 20 [B]에서 훈이는 '나'에게 자신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말해 주며 급하게 굴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훈이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개월만 임시직으로 지내면 정규직으로 취직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실상은 3, 4년이 지나도 현장으로만 다니며 적은 봉급으로 밤낮없이 일하고 있다.
- 21 훈이는 가혹한 노동 환경 속에 있는 자신에게 국토 건설에 이바지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이야기하는 '나'의 말에 조소하고 있다. 훈이의 "웃기네."는 '나'의 옳지 않은 방식의 사랑과 위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모순된 사회에 대한 빈정거리림과 비웃음이라 할 수 있다.
- 22 사람들의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전쟁을 겪은 '나'는 자신이 겪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훈이가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랐지만, 훈이의 삶이 안정되지 못해서 보기 싫었던 것이지 훈이를 보면서 전쟁의 비참한 모습을 떠올라 보기 싫었던 것은 아니다.

활동 응용 문제

• 44~48쪽

- 01 ㉓ 02 ㉓ 03 이상, 현실 04 ㉓ 05 ㉔ 06 ㉓ 07 ㉔
08 ㉓ 09 ㉔ 10 ㉓ 11 ㉔ 12 ㉓

- 01 '나'는 훈이가 안정되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바란 것이지, 한집에 같이 살기를 바란다는 내용은 없다.
- 02 '나'는 훈이에게 6개월만 참으면 정규직 자리로 발령 나게 해 주겠다고 말하고 훈이를 떠나보냈지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훈이는 여전히 측량 보조 일을 하고 있었다.
오답 풀이 ① 훈이는 '나'가 옮겨 준 대로 이과에 다녔으나 성적이 형편없이 떨어졌다.
 ② 훈이는 대학 입시에 낙방했고, 결국 삼류 대학 공대 토목과에 입학하여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에서 대학 시절을 보내고 무사히 졸업하였다.

③, ④ '나'는 훈이를 취직시키려고 친구의 남편이 있던 건설 회사의 임시직 측량 보조 자리를 구해 지방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건설 현장으로 훈이를 떠나보낸다.

- 03 '나'와 훈이는 카메라와 워커를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다. 이 글의 제목인 '카메라와 워커'에서 '카메라'는 기성세대에 의해 강요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워커'는 젊은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의미한다.
- 04 6·25 전쟁의 비참함을 직접 겪은 '나'는 훈이의 안정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소망하지만, 전후 세대인 훈이는 건설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 소망이 당시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한다.
- 05 이 글에서 영동 고속 도로로 대변되는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인 훈이의 모습을 통해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나'가 전쟁을 겪고 나서 훈이에게 데모 같은 것에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모습이나 안정된 삶을 강요하는 모습 등에서 ㉡과 ㉢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직, 근면 등의 인성적 요소보다는 경제적 결과가 더 중요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모습은 성실하게 일해도 그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훈이의 삶에 나타나 있다.
- 06 이 소설은 6·25 전쟁 이후 물질 중심의 가치가 자리잡기 시작한 사회의 모습과 부조리한 사회에 대응하려는 새로운 세대의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 6·25 전쟁의 상처를 가진 '나'와 훈이는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한다.
- 07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의 시점으로 '나'의 체험과 내면 심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08 이 소설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과 그러한 노력이 좌절되어 혼란을 느끼는 '나'의 심리 변화 과정이 조카 훈이의 양육 과정에 담겨 제시되고 있다.
- 09 이 글은 이공계 선호 현상, 청년 취업난, 비정규직 차별 등의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취업률이 높았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10 훈이는 문과보다 이과가 취업이 잘된다는 고모의 의견에 따라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과로 진로를 변경했

어도 졸업 후에 취업하기가 어려워 고생을 하다 고모의 소개로 취업을 하게 된다.

- 11 문학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은 문학 작품이 예술로서 가치가 있는지, 내용과 주제가 보편성과 가치를 지니는지 등이 있다. 문학 작품이 배경이 되는 시대의 정치적 상황을 항상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12 이 작품에서는 혼이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1970년대에 나타났던 이같은 문제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으므로 독자들에게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소단원 평가 • 51~56쪽

01 ㉠ 02 ㉡ 03 ㉢ 04 ㉣ 05 예시 답안 참고 06 ㉥
 07 ㉦ 08 ㉧ 09 ㉨ 10 예시 답안 참고 11 ㉩ 12 ㉪
 13 예시 답안 참고 14 ㉫ 15 ㉬ 16 ㉭

- 01 윗글에는 등장인물인 ‘나’와 혼이가 진로와 관련하여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다. 대화를 통해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가치관이 직접 제시되고 있다.
- 02 ㉦의 ‘돈 한 푼 벌어들인 일’은 물질을 추구하는 현실적인 삶을 의미하고, ㉧의 ‘까닭 없이 죽어야 하는 일’은 현실의 물질적인 삶과 동떨어진 이상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한다.
- 03 ‘혼이가 아버지에게 대해 뭘 물어본 게 이번이 처음이라 그렇기도 했지만’이라는 ‘나’의 말을 참고할 때, 혼이가 예전부터 아버지에게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4 ‘나’가 혼이에게 바라는 바는 “넌 큰 기업체에 취직해서 착실하게 일해서 돈도 모으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살림 재미도 보고 재산도 늘리고, 그러고 살아야 돼.”라는 말에서 잘 드러난다. ‘나’는 혼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다.
- 05 예시 답안 ㉠은 개인적인 욕망의 성취를 상징하며, ㉡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상징한다.

출제 의도 ‘갈비찜(㉠)’과 ‘우거짓국(㉡)’은 ‘나’가 문과에 가는 것과 이과에 가는 것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든 상징적 표현이다. 서사의 문맥적 추론을 통해 주요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① ㉠의 ‘개인적 욕망의 성취’와 의미가 통하면 정답으로 인정한다. ② ㉡의 경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의미가 통하면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 ㉡를 모두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4점
㉠, ㉡ 중에서 하나만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2점

- 06 ‘돈을 어떡하면 많이 벌 수 있나 하는 생각’보다 ‘돈은 왜 버나’와 같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성찰하는 것은 이과가 아니라 문과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 07 윗글에서는 혼이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나’와 혼이의 갈등이 나타난다. 즉 진로와 취업 문제에 대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 08 ‘나’는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사회에 관심을 두지 않고 혼이가 자기 밥벌이만 하면 된다고 여긴다. 즉 ‘나’가 말하는 명확한 해답이란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혼이가 기술자가 되어 취직해서 돈을 벌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다.
- 09 ㉢은 혼이에 대한 어머니와 나의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뜻이지, 혼이가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어머니와 ‘나’는 혼이가 대기업에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지내기를 바라고 있다.
- 10 예시 답안 자신이 겪은 더럽고 잔인한 전쟁에 대해 통쾌하게 복수하는 것, 전쟁 때 받은 깊은 상처의 치유를 확인받는 것 **출제 의도** 문맥을 파악하여 등장인물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혼이가 꼭 이 땅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잘살아 주었으면 하는 ‘나’의 간절한 소망의 참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평가 기준** 윗글에서 ‘전쟁에 대한 복수’, ‘상처의 치유’를 찾아 ‘~하는 것’의 형태로 서술했으면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전쟁에 대한 복수', '상처의 치유'가 포함된 답을 모두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4점
두 가지 내용 중 하나만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2점

11 이 글은 서술자인 '나'와 등장인물 훈이 사이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사건의 발생 시점은 서술 시점과 일치한다.
 ② 서술자는 주인공인 '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는다.
 ③ 서술자인 '나'가 다른 등장인물의 내면을 서술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훈이의 심리는 '나'의 관점에서 훈이의 말이나 행동, 표정을 보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④ 서술자인 '나'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12 훈이는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고모에게 돈을 부쳐 달라는 편지를 쓰지는 않았다. [중간 부분 줄거리]의 6개월이 지나도 훈이에게 편지 한 통이 없었다는 내용과 “집에 다 돈 부쳐 달란 소리 안 하는 것만도 내 짱엔 큰 안간힘 이라구.”라는 훈이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그까짓 공사판에도…….”라는 '나'의 말에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중간 부분 줄거리]를 보면 '나가 Y 건설의 측량 기사 보조 자리를 알아봐서 훈이를 취직시켰다'는 내용이 있다.
 ③ “밤일이 있어.” / “뭘 밤에도 측량을 다녀?” / “밤일은 측량이 아니라 제도야.”라고 대화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④ “그런 사람들은 기술직이 아냐. 관리직이나 그 밖에도 빈들 딸 수 있는 직종이야 수두룩하니깐.”라는 훈이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예시 답안** ㉞은 훈이가 회사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반어적 표현으로, 훈이가 회사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출제 의도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과 표현 방식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조건)에 맞게 '반어적 표현 방식'과 '훈이의 열악한 상황'을 관련지어 서술하면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반어적 표현'과 '열악한 상황'을 관련지어 제시한 경우	4점
'반어적 표현'과 '열악한 상황' 중에서 하나만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2점

14 <보기>의 내용을 통해 '나'는 조카 훈이가 경제적 여유를 갖고 무난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훈이는 이러한 '나'의 바람과는 달리 정직과 근면의 이데올로기가 좌절될 수 있다는 점을 '나'에게 알리고자 한다. 훈이가 비참해지고 싶다고 하는 것은 정직과 근면의 이데올로기가 좌절될 수 있음을 '나'에게 알리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전쟁과 이념의 상처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는 전쟁을 겪지 않은 훈이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나'의 욕망에 가깝다.

- 오답 풀이** ② '나'는 훈이가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훈이를 이과로 전과시키고 기술자로 키우고자 했다.
 ③ '나'는 훈이를 '이 땅에 뿌리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키우고 싶어 했다. 이는 전쟁과 이념의 상처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나'의 욕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훈이의 말을 통해 회사 임직원들의 처우가 좋지 않으며, 회사 측에서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직과 근면의 이데올로기가 좌절되고 있는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으며 당대 현실의 부정적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훈이가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지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5 '나'는 훈이를 양육한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느낀다. 하지만 훈이를 다시 키운다고 해도 양육의 새로운 방도가 무엇인지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16 두 작품은 모두 사회의 변화와 함께 세대 간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카메라와 워커'는 6·25 전쟁을 겪은 세대와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돌다리'는 땅의 본래 가치를 중시하는 세대와 땅을 금전적인 가치로 생각하는 세대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물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인물의 모습은 두 작품 모두에서 나타난다.
 ②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 심리는 두 작품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③ '돌다리'는 근대 자본주의 가치관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 주고 있다.
 ④ 기성세대의 가치관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변모하는 모습은 두 작품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03 극 갈래와의 만남

 동주

신연식

확인문제

• 65~77쪽

01 ④ 02 도구(수단) 03 ① 04 ⑤ 05 ④ 06 ③ 07 ⑤
08 일제의 정책에 따라 창씨개명을 하면서까지 유학을 가는 것
을 부끄럽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09 ⑤ 10 ④ 11 특고의 법
적 절차가 강압적이고 비인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12 ⑤ 13 ② 14 ⑤ 15 ①

- 01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 동주가 형무소에 갇혀 자신의 지난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장면 번호 옆의 ‘회상’을 통해서도 과거 회상 장면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의 흐름대로 사건이 전개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2 동주는 세상을 변화시킬 용기가 없어서 문학으로 숨는 것이 아니냐는 몽규의 말에 “문학을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라고 반박하면서 문학이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 03 S# 34의 장면은 일제 강점기의 불안한 사회 상황을 강조하기보다는 동주와 여진의 대화에 맞게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 04 S# 34의 장면의 내레이션은 동주 즉 주인공의 목소리로 제시된다. 주인공의 생각과 감정을 담은 시를 주인공의 목소리로 전달하여 관객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 05 ‘현실을 외면하거나 보지 못하는 이상주의자’는 특고가 동주를 추궁하는 표현이다. 동주가 스스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몽규도 우리와 함께 문예지를 만든 문학청년일 뿐입니다.”라는 동주의 말에서 알 수 있다.
② 특고는 조작된 내용의 서류 문치를 동주 앞에 내밀고 사인할 것을 독촉하고 있다.
③ 조작된 서류에는 “무장봉기를 획책”했다는 내용이 있으며, 특고는 “송몽규와 내가 계획했던 일 아닌가?”라고 묻고 있다.
⑤ 특고는 “너의 사상적 바탕이 여기 다 있잖아?”라고 하면서 동주의 원고를 일제에 저항하는 사상이 담긴 증거로 몰아가고 있다.

- 06 [A]는 동주가 독방에 갇혀 읊는 삼입 시이다. 삼입 시에서 시인은 ‘봄이 오면’, ‘무덤’에서 ‘파란 잔디’가 피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조국의 독립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7 정지용은 동주의 문학성을 알아보고 동주를 시인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지금은 일본 이름으로 일본 시를 써야 되는 세상이므로, 시를 쓸 시대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래서 차라리 일본으로 유학 가기를 권하고 있다. 이 장면에서 동주가 정지용 시인에게 시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08 동주는 일제의 정책에 따라 창씨개명을 하면서까지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09 동주와 몽규는 서명을 강요하는 특고에게 저항하며 반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거나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간 부분 줄거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갑작스럽게 체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0 동주와 몽규의 동일한 반응을 교차하여 편집함으로써 대립하는 인물, 즉 특고로 상징되는 일본 제국주의의 위선과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다.
- 11 ㉠은 특고가 내세우는 법적 절차의 비인간성과 강압성을 비판하기 위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특고의 요식 행위가 실제로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 12 몽규는 비밀리에 조선어 문학과 서적을 유통시켰다는, 조작된 서류의 내용을 읽으며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못해서 한스럽다.”라고 하였다.
- 13 몽규도 동주와 똑같이 실험 대상이 되어서 죽어 가고 있다. 따라서 동주가 서류에 서명하지 않아서 죽게 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 14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살아간 윤동주와 송몽규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지켜 낸 민족적 자부심과 신념이다.

15 「서시」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극복하려는 신념이 나타나는 작품이므로, 두려움이나 후회의 정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활동 응용 문제

• 78~82쪽

01 ③ 02 ④ 03 ③ 04 ⑤ 05 일제 강점하의 현실에서 시인이 되기를 원하고 독립운동에 앞장서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06 ⑤ 07 ① 08 ② 09 이리 떼 10 ④ 11 ⑤ 12 ⑤

01 장면마다 시간(과거와 현재)과 공간(경성, 일본, 용정)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교차된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는 일본, 용정 외에 경성도 등장한다.

② 주인공의 생애를 중심으로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④ 과거의 사건이 등장하면 장면도 변화된다.

⑤ 공간이 한곳으로 고정되지 않고 다양하게 등장한다.

02 경성의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한 동주와 몽규는 함께 문예지를 만든다. 이후 동주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고 몽규도 일본으로 와서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된다. 두 사람은 형무소 취조실에서 진술서에 서명하도록 강요받다가 감옥에서 죽는다.

03 몽규와 동주는 문학의 가치에 관해 서로 생각이 달라 문예지에 실을 글을 놓고 갈등했다.

04 몽규는 자기 생각을 펼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촉구시키는 것이 진정한 문학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반면 동주는 사람 마음속에 살아 있는 진실을 표현하고 더 깊은 차원의 소통을 이루어 내는 것이 진정한 문학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05 S# 97에서 동주는 “이런 세상에서 시를 쓰길 바라고 시인이 되길 원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서명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06 이 작품에서는 몽규와 동주 두 인물을 통해 일제 강점기를 살아간 두 청년의 열정적인 삶과 독립운동을 위한 노력을 그리고 있다.

07 윤동주가 창작한 시를 내레이션으로 삽입하여, 장면마다 시의 내용과 관련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주의 심리를 관객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08 ‘프레임 인’은 영화에서 촬영 대상이 화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어두운 화면이 점점 밝아지는 것은 ‘페이드인’이다.

09 「파수꾼」은 진실을 향한 열망과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을 다룬 작품이다. 상징적인 소재와 인물을 등장시켜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리 떼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원하는 위선과 허위를 상징한다.

배경지식 더하기

이강백, 「파수꾼」

갈래	희곡, 단막극, 풍자극
제재	권력의 위선, 이리 떼의 진실
주제	• 진실을 향한 열망과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 • 무비판적인 권력 추종에 의해 잘못된 권력이 강화되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
특징	① 상징적인 소재와 인물을 등장시켜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② 우화적 기법을 사용하여 작가의 의도를 작품의 이면에 숨김.

10 파수꾼 다는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결국 촌장의 설득에 넘어가게 된다. 이는 권력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망루로 몰려온 상태이다.

오답 풀이 ③ 촌장이 마을을 지키려면 이리 떼가 있다는 거짓 말이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민은 적절하다.

11 배우의 대사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은 시나리오 「동주」와 희곡 「파수꾼」의 공통점이다.

오답 풀이 ①, ④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의 특징이다. ②, ③ 연극의 대본인 희곡의 특징이다.

12 희곡과 시나리오 모두 현재 시제로 서술되며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 갈래이다. 시간, 공간,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을 받는 것은 희곡의 특징으로, 희곡과 시나리오의 차이점에 해당한다. 시나리오는 영화 제작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소단원 평가

• 85~88 쪽

01 ③ 02 ⑤ 03 ④ 04 ③ 05 ④ 06 예시 답안 몽규는 독립을 위한 무장 투쟁을 계획했으나, 서류에 있는 내용대로 독립운동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서 서명을 결심한다. 07 ② 08 ④ 09 ③ 10 ②

- 01 이 글은 시나리오로 극 갈래에 속한다. 극 갈래는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 02 동주는 문학의 순수성과 예술성을 추구하며 문학이 사람들의 마음속 진실을 드러내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반면에 몽규는 정치적 투쟁을 중시하며 문학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여기고 있다.
- 03 여진은 동주가 생각하는 것처럼 몽규가 이념에 사로잡혀서 시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 04 ㉠은 몽규에 대한 동주의 평가이다. 몽규가 이념을 중시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05 동주가 진술서에 서명하지 않고 서류를 찢는 장면은 일제의 폭압에 저항하여 신념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장면이다. 따라서 빠르게 편집하기보다는 동주의 감정이 더욱 깊이 전달되도록 섬세하게 연출할 필요가 있다.
- 06 몽규는 조작된 서류를 읽으면서 “아, 이게 정말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내가 정말 그렇게 못 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서명을 한다. 부끄러워서…….”라고 하였다.
출제 의도 몽규의 심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몽규의 대사를 중심으로 몽규의 심리를 이해하고 조건에 맞게 제시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몽규가 서류에 서명을 한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4점
몽규가 서류에 서명을 한 이유를 서술했으나 <조건>에 맞게 쓰지 못한 경우	2점

- 07 동주는 자신이 시인이 되기를 바랐던 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기보다는, 암울한 일제 강점기에 시를 쓰길 바라고 시인이 되길 원했던 것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 08 몽규는 동주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팔뚝에 있는 주삿바늘 자국을 보여 주며 자신도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다. 이미 죽은 동주와 마찬가지로 몽규 역시 생체 실험으로 인해 죽음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 09 「서시」 내레이션을 동주의 문학적 이상과 그의 삶이 일치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장치이다. 그는 끝까지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서시」는 그의 삶과 문학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요소로 사용되었다.
- 10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이상적인 삶을 지향하는 시인의 순수한 마음을 상징한다. 이는 시인의 이상과 순수한 정신을 표현한 부분이다.

04 교술 갈래와의 만남



폴 비린내에 대하여

나희덕



확인 문제

• 95~97 쪽

01 ③ 02 ④ 03 ⑤ 04 ② 05 ④

- 01 이 글은 자동차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생태 문제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반성과 성찰을 이끌어내는 교훈적인 수필이다. 글쓴이는 광주 비엔날레에서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보았던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02 글쓴이는 운전이 익숙해진 후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나가는 습관이 생겼고, 실제적인 목적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잦아지면서 밀폐된 공간에 익숙해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동차 안에서 답답함을 느꼈다는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03 「감성적 기계」는 태국의 작가 수라시 꾸솔윙의 작품으로, 자동차를 거꾸로 매단 설치 미술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

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부속품을 해체한 자동차를 뒤집어 그네 침대를 만들고, 타이어 등을 재활용해 의자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04 ‘폴 비린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글쓴이는 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따라서 ‘폴 비린내’는 글쓴이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고 각성하게 되는 냄새라고 할 수 있다.

05 글쓴이는 ‘폴 비린내’ 사건 이후 자동차가 더 많은 생명을 해칠 수 있는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한다. 또한 차를 없앨 수 없는 형편이어서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한다.

오답 풀이 ②, ⑤ 글쓴이는 자동차에 익숙해질 때마다 자동차가 폴 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글쓴이는 자신에게 편리하고 안락한 공간이 풀벌레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활동 응용 문제

98~101쪽

01 ③ 02 ⑤ 03 ③ 04 ⑤ 05 ③ 06 ⑤ 07 ② 08 ④
09 ①

01 글쓴이는 수많은 풀벌레가 차에 부딪쳐 죽은 잔해를 발견하고 세차를 하였으나 풀벌레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지 못한 경험을 하였다. 그 후로는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폴 비린내’를 떠올리게 되었다. 얼굴에 여러 겹의 천을 두르고 다닌 사람들은 글쓴이가 글에 인용한 티베트의 승려들이다.

02 글쓴이는 ‘폴 비린내’ 사건 이후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나 자동차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워 자동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하였다.

오답 풀이 ④ 글쓴이는 운전하기 전까지 견기 예찬자였으나,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어떠한 생태적인 발언도 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03 글쓴이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하면서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조화로운 삶을 꿈꾸었다고 하였다.

04 이 글은 자동차의 편리성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들에게 생태 문제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자동차를 몰며 자연을 파괴하는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이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내는 교훈적인 수필이다.

배경지식 더하기

경수필

의미	글쓴이의 체험과 인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함.
특징	• 가벼운 소재를 다룸. • 개인적, 주관적, 감성적 성격이 나타남. • 자유로운 내용과 비격식적 구조를 가짐.
형식	일기, 편지, 기행문, 독후감 등

05 글쓴이는 인간의 편리를 위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연의 일부인 풀벌레가 자동차에 부딪쳐 죽은 일을 겪었다. 이 경험을 통해 인간의 편리를 위하여 자연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글을 읽은 독자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지향하며 현대 문명과 자연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06 글쓴이는 풀벌레의 죽음을 통해 자동차가 자연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이처럼 교술 갈래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성찰하는 태도는 독자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07 이 작품은 글쓴이의 사실적 경험과 사색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풀어낸 수필이다. 독자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글쓴이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며 공감하게 된다.

08 수필은 제재 선정이 자유롭고 자기 고백적이며, 글쓴이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문학이다. 현실에 존재할 만한 인물이나 현실에서 일어날 만한 사건을 상상하여 꾸며 내는 것은 소설의 특징이다.

09 수필은 특정한 형식적 제약이 없어서 ‘무형식의 형식’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으로 쓸 수 있다는 의미이다. 주제 구현을 위해서는 긴밀한 구성이 필요하다.

- 01 ③ 02 ⑤ 03 ⑤ 04 ④ 05 ③ 06 ② 07 ⑤
 08 **예시 답안** 참고 09 ⑤ 10 ① 11 ④ 12 ⑤

- 01** 글쓴이가 처음부터 자동차를 편안한 공간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초보 운전자로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예민하게 느꼈고, 필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었는데, 점차 자동차라는 밀폐된 공간에 길들여져 갔다고 하였다.
- 02** 글쓴이는 처음에 자동차 운전을 불편하게 여겼고, 5년 동안 차를 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 모든 일을 직접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03** 이 글의 글쓴이는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무기가 아닌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이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예술의 전복성이란 기존의 질서나 관념을 뒤집어엎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작품은 자동차를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이동 수단(달리는 무기)으로 보는 일반적인 생각을 깨고, 예술 작품이자 사람들의 휴식 공간으로 재창조된 모습을 통해 이러한 전복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 04** 수라시 꾸슬왕의 「감성적 기계」는 자동차를 해체하여 아늑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글쓴이는 자동차를 ‘아늑한 자궁’으로 치칭하며, 해체하지 않아도 ‘감성적 기계’처럼 운전자만의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 05** 글쓴이는 일상적인 자동차 운전 경험을 통해 자동차가 자연과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을 자각하게 된다. 고속 도로에서 풀벌레들이 차체에 부딪쳐 죽은 상황을 목격하면서, 인간의 편리함이 다른 생명체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깨닫고 죄책감을 느낀다. 이처럼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편리함에 길들여진 태도를 반성하고,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개인적 경험을 주관적, 감성적으로 서술한 경수필이다.
- 06** 이 글에서 ‘풀 비린내’는 자동차의 기계적 문제와는 무관하다. ‘풀 비린내’는 차체에 부딪쳐 죽은 수많은 풀벌레들의 잔해를 보며 글쓴이가 느낀 죄책감과 충격을 상징하

는 표현이다. 글쓴이는 자동차가 제공하는 편리함이 자연과 생명체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깨닫고, 그로 인해 자신이 느끼는 죄책감과 생태적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오답 풀이 ⑤ 글쓴이는 풀벌레가 죽어 가는 것도 모르고, 타닥 타닥 부딪치는 소리를 모래 알갱이가 튀는 소리려니 생각했던 경험에 대한 충격과 죄의식을 ‘풀 비린내’로 표현하고 있다.

- 07** 글쓴이는 한밤중 고속 도로를 운전하던 동안 차체에 부딪쳐 죽은 수많은 풀벌레들의 잔해를 목격하고, 자동차라는 편리한 도구가 다른 생명체에게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 깨닫게 된다. 이 경험을 통해 글쓴이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 08** **예시 답안** 글쓴이는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풀벌레 같은 생명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생태적 발언을 하는 것은 모순되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 글쓴이의 가치관을 묻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이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글쓴이가 스스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 의도를 적절히 제시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글쓴이가 말한 의도를 적절히 제시한 경우	4점
글쓴이가 말한 의도를 적절히 제시하였지만, 이 글의 내용을 근거로 하지 않은 경우	2점

- 09** 이 글의 글쓴이는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경험이 계기가 되어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쳐 죽은 잔해를 본 경험을 떠올리며 자동차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변화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 10**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그네 침대라는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을 보여 준 것은 수라시 꾸슬왕의 작품 「감성적 기계」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글쓴이는 「감성적 기계」에서 느끼는 아늑함은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충족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아늑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글쓴이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다.

- 11** 글쓴이는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겪은 경험을 통해, 인간의 활동이 다른 생명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게 된다. <보기>의 “모든 생명은 서로 수평적이며 상호의 존성에 기반하여 공생·공존한다.”라는 생태적 사유와 연

결 지어 생각할 때, 글쓴이는 인간과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를 존중하고 그들과의 공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 12** 나희덕의 「풀 비린내에 대하여」와 김기택의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은 모두 인간의 행위가 자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루고 있다. 「풀 비린내에 대하여」에서는 풀벌레들이 차에 부딪쳐 죽는 모습을 통해 인간의 편리함이 작은 생명체의 희생을 초래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에서도 문명의 이기에 가려 풀벌레들의 작은 소리를 인지하지 못했던 현실을 성찰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 문명과 인간의 이기를 함께 비판하고 성찰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고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대단원 평가

• 112~121 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예시 답안 참고 17 ㉣ 18 ㉣ 19 ㉤ 20 ㉤ 21 ㉤
 22 ㉡ 23 예시 답안 참고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01** 이 시에서 화자는 산수유나무의 노란 꽃과 그늘을 보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산수유나무의 과거, 현재, 미래 모습을 순차적으로 그리고 있지 않다.
- 02** ㉠은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 농사이다.’라는 의미로 서술격 조사 ‘이다’가 생략된 표현이다. 즉 산수유나무가 그늘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 있음을 나타낸다. 여기에 도치법은 쓰이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에서는 산수유나무가 만드는 그늘을 ‘노랗다’고 표현함으로써, 꽃과 더불어 그늘도 산수유나무가 만드는 결실임을 참신하게 드러내고 있다.
 ② ㉢에서는 ‘보아라’에서 명령형 어미 ‘-아라’를 사용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산수유나무를 볼 것을 강하게 권하고 있다.
 ④ ㉤에서는 산수유나무가 꽃을 피워 그늘을 넓혀 가는 것을, 그늘 농사를 지어 그늘을 넓혀 가는 것으로 상상하고 있다.
 ⑤ ㉤에서는 산수유나무를 정성과 노력을 들여 농사짓는 농부로 의인화하여 다른 생명을 위한 배려와 미덕을 지닌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 03** 화자는 그늘을 드리워 다른 생명들에게 휴식과 위안을 주는 공간을 제공하는 산수유나무의 정성과 노력, 이타적인 삶의 태도를 찬양하고 있다.

- 04** 〈보기〉를 보면 ‘그의 시에서 인간은 고립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영향 관계에 놓여 상응하고 교감하며, 서로가 서로의 환경이 되어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를 형성해 나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시에서 인간이 고립되어 외로운 개인으로 존재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 05** 윗글과 〈보기〉의 ‘그늘’은 모두 ‘휴식, 쉼터, 편안함, 다른 존재에 대한 배려’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시어들이다. 이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시의 의도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배경지식 더하기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갈래	자유시, 서정시
제재	그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주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특징	① 상징적 소재로 대상에 대한 애정을 드러냄. ② 부정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함. ③ 동일한 단어나 구절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 06** 화자는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산수유나무의 그늘을 보라고 말한다. 산수유나무의 그늘은 다른 생명이 휴식과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베푸는 공간으로서, 노란 꽃만큼이나 중요한 결실이다. 이는 아낌없이 베풀고 배려하는 자연의 모습을 보여 준다.
- 07** 이 작품은 일인칭 서술자인 ‘나’의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하며, 훈이의 감정과 태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독자는 훈이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와 갈등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 08** 훈이는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전과를 설득하는 ‘나’(고모)를 말없이 쓰아보는 것은 불만을 표현하는 태도이다. 억지로 전과한 후에도 성적이 형편없이 떨어졌다고 하였다.

09 '나'는 훈이가 대기업에 취직하여 가정을 이루고 휴일에 여유를 누릴 만큼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랐다. 훈이에게 선물하려고 한 '카메라'는 이러한 삶을 상징한다. 훈이가 '나'의 카메라 선물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훈이가 '나'의 바람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0 '나'는 카메라를 경제적 안정을 상징하는 도구로 보고, 여가를 즐기는 삶의 일부로 생각했기 때문에 훈이에게 이를 선물하려 한다. 이는 '나'가 훈이에게 안정된 직업과 여유로운 삶을 '줄기차게' 강조했던 맥락과 연결된다.

11 훈이가 임시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나'는 훈이를 이 땅에 뿌리내리기 쉬운 품종으로 키우려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다고 인정하게 된다. 훈이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나'는 자신의 계획이 빗나갔음을 자각했으나 새로운 방안을 알지 못해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12 훈이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따라 기술직을 선택한 것이 아니며, 그의 기술직 선택은 안정적이고 여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나(고모)'가 계획하고 강요한 결과이다.

13 <보기>에서는 작가가 6·25 전쟁 때 오빠를 잃는 등 현대사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었고 그 아픔을 글로 풀어내어 자신과 독자들의 고통을 치유했다고 하였다. 이 작품 역시 6·25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14 '나'는 훈이가 이 땅에 뿌리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으로 자라기를 바라며 기술, 정직, 근면을 강조했다. 그런데 훈이는 그러한 가치에 따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돌아오지 않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부질없음을 '나(고모)'와 할머니에게도 보여 주고 싶어 한다.

15 훈이는 현재 기술이니 정직이니 근면이니 하는 것이 아무런 보상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에는 고모나 할머니와 같은 기성세대가 믿고 있는 가치가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16 **예시 답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가난하고 힘겹게 살고 있지만 스스로 감당하고 버티겠다고 다짐한 삶

출제 의도 '나'와 훈이가 작품의 중심 소재인 '워커'를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중심 소재가 상징하는 삶을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훈이가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는 상황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의미가 모두 통하면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훈이의 상황과 이에 대한 태도를 언급하며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4점
훈이의 열악한 상황이나 주체적인 삶에 대한 태도 중 한 가지 의미만 서술한 경우	2점

17 시나리오를 영화를 만들기 위하여 쓴 각본으로, 장면이나 그 순서, 배우의 행동이나 대사 등을 상세하게 표현하는 갈래이다.

18 시나리오에서 내레이션은 주로 동주의 내면을 심도 있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내레이션을 통해 동주의 감정, 시에 대한 생각 등이 표현되며, 감정의 변화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19 몽규는 시는 인민을 나약한 감상주의자로 만드는 문학이며, 시를 쓰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용기가 없어서 문학으로 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0 동주는 문학이 사람 마음속의 진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진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는 문학을 단순한 정치적 도구로 보지 않고, 진실을 표현하는 예술로서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21 몽규가 “여기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재판을 받고 들어온 사람이 있나?”라고 하였으며 특고가 서명을 강요하는 서류도 사실이 아니라 조작된 것이다. 따라서 정당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22 「서시」는 삶과 죽음에 대한 동주의 철학적 고민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동주는 이 시를 통해 부끄러움이 없는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23 예시 답안 서류에 서명을 강요하는 특고로 상징되는 일본 제국주의의 위선과 폭력성을 비판하고, 서류에 서명한 몽규와 서명하지 않은 동주 모두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였음을 보여 준다.

출제 의도 시나리오의 기법 중 하나인 교차 편집을 이해하고 작품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① 특고의 행동은 일제의 위선과 폭력성을 보여 준다는 내용과 의미가 통하는 경우 정답으로 인정한다. ② 서류에 서명한 몽규와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은 동주 모두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내용과 의미가 통하는 경우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두 인물의 모습을 교차 편집한 효과를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4점
두 인물의 모습을 교차 편집한 효과를 서술하였으나 <조건> 중 하나를 서술하지 못한 경우	2점
두 인물의 모습을 교차 편집한 효과를 서술했으나 <조건>에 맞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1점

→ 배경지식 더하기

교차 편집(Cross-cutting)

교차 편집(Cross-cutting)은 시나리오 및 영화 제작에서 사용하는 편집 기법 중 하나로,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장면이나 사건을 교차하여 편집하는 방식이다. 이 기법은 각 장면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사건이나 장면 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데 사용된다. 교차 편집을 통해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상황이나 인물 간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더욱 강조할 수 있다.

24 몽규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만족감이 아닌, 자신이 더 큰일을 해내지 못했다는 부끄러움과 후회를 느끼며 서명을 한다.

25 ‘눈물을 글썽이며’, ‘오열하는 아버지들’, ‘깜짝 놀라 유골을 쓸어 담은 몽규 부’, ‘울면서 조심스럽게 유골을 골라 담은 몽규 부’ 등의 지시문이 있으므로 등장인물은 해당 장면에 맞는 감정이 드러나는 표정과 목소리로 연기해야 한다.

26 이 글은 글쓴이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성찰한 내용을 담고 있는 수필이다. 본문에 감탄사나 감탄 조사를 활용하여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영탄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27 글쓴이는 자동차에 부딪쳐 죽은 풀벌레들의 풀 비린내를 경험한 후로 인간의 활동이 자연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성찰하게 된다.

28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 행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사람은 글쓴이이다. 글쓴이는 옛날 티베트 승려들이 말을 할 때마다 미생물을 죽일까 봐 일곱 겹의 천을 두르고 다닌 사례를 보고 위와 같이 생각하였다.

오답 풀이 ①, ② 에민 텡스림은 인간이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영토 밖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설명하며, 자동차가 이러한 모순된 욕망을 충족해 준다고 하였다.

③ 옛날 티베트 승려들은 공기 중의 미생물과 같은 작은 생명까지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졌다.

29 ㉠는 차체에 묻은 잔해에 놀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고 했으므로 이와 어울리는 한자 성어는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인 ‘혼비백산(魂飛魄散)’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구사일생(九死一生):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을 이르는 말

③ 경거망동(輕舉妄動):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 또는 그런 행동’을 이르는 말

④ 동분서주(東奔西走):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뛴다.’는 뜻으로, ‘사방으로 이리저리 몹시 바쁘게 돌아다님.’을 이르는 말

⑤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

30 두 글의 글쓴이는 모두 현대 문명과 기술 발전의 결과로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가 풀벌레들을 죽이는 장면이, <보기>에서는 산성눈이 자연을 덮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 배경지식 더하기

이문재, 「산성눈 내리네」

갈래	자유시, 생태시
제재	산성눈
주제	산성눈을 유발한 인간의 산업화에 대한 비판
특징	① 하강과 소멸의 이미지를 사용해 암울한 현실을 나타냄. ② 산성눈의 이중적 속성을 통해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드러냄.

2 따뜻한 말과 글

01 공감하며 소통하기

+ 확인 문제

• 129~133쪽

01 ③ 02 ④ 03 ② 04 ④ 05 ⑤ 06 ① 07 ②

01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대화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좋다.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을 줄이고 겸손하게 표현하며 대화해야 한다(겸양의 격률). 따라서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을 늘린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며 대화하는 것은 협력의 원리 중 태도의 격률에 해당한다.

② 상대와의 의견 차이를 줄여 대화하는 것은 공손성의 원리 중 동의의 격률에 해당한다.

④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화하는 것은 공손성의 원리와 체면 유지의 원리에 해당한다.

⑤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 표현을 늘리며 대화하는 것은 공손성의 원리 중 요령의 격률에 해당한다.

02 재훈이는 공손성의 원리 중 찬동의 격률을 지키지 못했다. 찬동의 격률이란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은 늘리는 것을 말한다.

03 공동체의 담화 관습 중 ‘돌려 말하는 관습’은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불편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완곡하게 돌려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독서하다’는 ‘책을 읽다’를 한자어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돌려 말하는 관습’과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⑤는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여 불편감을 줄 수 있는 어휘나 내용을 돌려 표현한 예이다.

04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은 교양이 있고 수양을 쌓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남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겸손하게 말하는 관습과 관련이 있다.

오답 풀이 ①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말은 비록 발이 없지만 천 리 밖까지도 순식간에 퍼진다는 뜻으로 말을 삼가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는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과 관련이 있다.

②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집안에 잔말이 많으면 살림이나

모든 일이 잘 안된다는 뜻으로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과 관련이 있다.

③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뜻으로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과 관련이 있다.

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뜻으로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과 관련이 있다.

05 <보기>는 공동체의 담화 관습 중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과 관련이 있다. ⑤ ‘충언역이(忠言逆耳)’는 충직한 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뜻으로,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촌철살인(寸鐵殺人): 한 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이다. 즉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하게 하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음을 이르는 말로,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과 관련이 있다.

② 삼사일언(三思一言):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한다는 뜻으로,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과 관련이 있다.

③ 언비천리(言飛千里): 말이 천 리를 날아간다는 뜻이다. 즉 말이 몹시 빠르고도 멀리 전하여 퍼짐을 이르는 말로,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과 관련이 있다.

④ 설저유부(舌底有斧): 혀 아래에 도끼가 들었다는 뜻이다. 즉 말을 잘못하면 화를 불러일으키니 말을 늘 삼가라는 말로,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과 관련이 있다.

06 <보기>는 음식을 대접받는 상황에서 음식 맛이 없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오늘따라 입맛이 없다고 표현하여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무안하지 않게 행동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의 담화 관습 중 ‘돌려 말하는 관습’을 반영한 말하기이다.

07 세운은 자신을 위해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 주신 할머니께 고마워하고 있다. 이런 세운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표현은 ②이다. 또한 ②에서는 할머니의 사랑에 꼭 보답하겠다는 말을 ‘머리털을 베어 신발을 삼다.’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 속담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자기가 입은 은혜는 잊지 않고 꼭 갚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할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지 않고, 상황에 맞는 속담으로도 적절하지 않다.

③ 할머니가 상을 내면서 음식이 많지 않다고 말한 것은 세운이 부담을 느낄까 봐 돌려 말한 것이다. 또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 다’라는 속담은 우연히 운 좋은 기회에 하려던 일을 해치운다는 뜻으로 상황에 맞는 속담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④ 할머니께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나 상황에 맞는 속담을 인용하고 있지 않다. '원님 덕에 나팔 분다'라는 속담은 사또와 동행한 덕분에 나팔 불고 요란히 맞아 주는 호화로운 대접을 받는다는 뜻으로, 남의 덕으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대접을 받고 우쭐대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⑤ 할머니께 고마워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지 않고, 상황에 맞는 속담도 인용하고 있지 않다. '물에 물 탄 듯하다'라는 말은 맛이 싱겁다는 뜻을 나타내는 관용구이다.

활동 응용 문제

• 134~137 쪽

01 ① 02 ⑤ 03 ⑤ 04 ④ 05 ① 06 ④ 07 ① 08 ③

- 01 (가)의 여학생은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는 남자의 물음에 대해 핵심에 대한 답변 대신 모호한 답변을 하여 의사소통에 혼동을 주고 있다. 협력의 원리 중 태도의 격률을 지키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②, ③ (나)의 여학생은 협력의 원리 중 양의 격률을 지키지 않았다. 어떻게 집에 갈 것인지를 묻는 물음에 대해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불필요한 정보를 장황하게 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 ④, ⑤ (다)의 남학생은 공손성의 원리 중 요령의 격률과 체면 유지의 원리를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대화의 원리를 적용하여 말한다면, 남학생은 “너를 번거롭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내 짐 좀 같이 들어 줄 수 있을까?”라고 고쳐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 02 돌려 말하기 위해 함축적이고 중의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협력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③은 양의 격률, ②는 관련성의 격률, ④는 질의 격률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03 대화할 때 대화의 원리를 지켜 말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상대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어 적절한 말하기로 볼 수 없다.

- 04 대화할 때 화자는 말하려는 내용을 간결하고 분명하게 표현해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런데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다면, 말을 하는 목적이나 방향에서 벗어

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듣는 이가 금해하기 위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 05 진행자가 대답을 시작하면서 ‘옛말 그른 데 하나 없다.’라는 말을 인용한 것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옛날의 담화 관습이 담겨 있는 속담이나 관용구를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의 언어생활을 성찰해 보자는 의도에서 한 말이다. ①의 설명처럼 잘못된 담화 관습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 06 ㉠은 여성을, ㉡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차별적 인식이 담긴 속담의 예이다. 이와 같은 속담을 의사소통에 사용했을 때는 이 속담과 관련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새롭게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 07 ‘우리 반 대화방’에 쓰인 줄임말, 명사형으로 끝맺는 말 등을 통해 청소년 세대의 담화 방식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지역 방언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비가 오니 우산을 빌려 달라는 말부터 ‘비 맞고 걸으면 시강이겠다ㅋㅋㅋ’로 이어지는 대화에서 진지하지 않고 형식적인 대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우는 모습을 모음 ‘ㅠ’로, 허를 찌는 소리나 웃는 소리를 ‘ㅉㅉ’이나 ‘ㅋㅋ’처럼 자음이나 모음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놓으심’처럼 명사형으로 끝맺는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⑤ 빠른 의사 전달을 위해 ‘시강(시선 강탈)’이라는 줄임말을 사용하고 있다.

- 08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이다. 그러나 자기 의견은 말하지 않고 무조건 경청하는 자세는 올바른 의사소통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다.

소단원 평가

• 139~142 쪽

01 ⑤ 02 ③ 03 ⑤ 04 ② 05 예시답안 참고 06 ③
07 ⑤ 08 예시답안 참고 09 ④ 10 ④ 11 ④ 12 ②

- 01 <보기>에서 ‘하영’은 ‘보경’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 예의 전락(체면 유지의 원리)을 어긴 것이다.

02 <보기>에서 ‘현수’는 ‘지승’의 질문에 대해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나열하여 오히려 대화의 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는 협력의 원리 가운데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한다.’는 규칙(양의 격률)을 어긴 것이다.

03 ‘아현’은 내일 시험을 걱정하는 ‘윤희’에게 열심히 공부했음을 칭찬하며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찬동의 격률’이 나타난 대화이다.

오답 풀이 ③ ‘성덕’은 “미술관이 더 좋겠다.”라고 동의하며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 있다. 이는 ‘동의를 격률’이 나타난 부분이다.

04 ②의 ‘민호’는 상대(엄마)에게 진실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여 질의 격률을 지키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③ ‘지은’은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양의 격률을 지키지 않았다.

④ ‘서준’은 ‘대화의 맥락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관련성의 격률을 지키지 않았다.

⑤ 창진은 공손성의 원리와 체면 유지의 격률을 지키지 않았다.

05 **예시 답안** 네 글씨체를 보니, 동병상련이 느껴져. 나도 글씨를 정말 못 쓰거든. / 괜찮아. 네 글씨나 내 글씨나 도토리 키재기일 거야. 나도 글씨를 못 써. 등

출제 의도 공손성의 원리 중 동의를 격률과 상황에 적절한 한자 성어나 속담 등을 적용하여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동의를 격률을 적용하고, 한자 성어나 속담을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 표현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공손성의 원리 중 동의를 격률에 따라 한자 성어, 관용어 등을 인용하여 답변을 표현한 경우	4점
조건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적용하여 답변을 표현한 경우	2점
공손성의 원리 중 동의를 격률 외에 다른 격률을 적용하여 표현한 경우	1점

06 ‘돌려 말하는 관습’은 상대의 감정을 헤아려 완곡하게 돌려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말하는 관습’은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스스로를 낮추어 표현하는 것

이다. 그리고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은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말을 삼가는 것이므로, 전통적인 담화 관습이 상대의 상황과 처지를 덜 중요시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7 <보기>에서 할머니는 세운에게 음식을 내며 자신에 대한 칭찬은 줄이고 세운을 배려하는 말을 하고 있다. 세운도 예의를 지켜 상대를 높이는 표현을 하고 있다.

08 **예시 답안**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말만 가려 신중하게 한다.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과묵한 것을 바람직하게 여긴다. 등

출제 의도 속담에 담긴 공동체의 담화 관습을 파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쓴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세 가지 속담에 담긴 공동된 담화 관습을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과 관련지어 쓴 경우	4점
세 가지 속담에 담긴 공동된 담화 관습을 신중하게 말하는 관습과 관련지어 쓰기는 했으나 문장의 완결성이 부족한 경우	2점
각 속담의 뜻만 쓴 경우	1점

09 ‘김 선생’은 ‘주인’의 입장을 배려해 다소 익살스럽게 자신의 의지를 돌려 말하고 있다. ‘김 선생’은 겸손한 척 말하고 있는 ‘주인’을 배려해 자신을 푸대접하고 있는 것을 돌려서 비꼬아 말하고 있다.

10 (나)에서 우리말 연구가는 성 차별적 인식이 담긴 ‘여자 셋이 모이면 새 접시를 뒤집어 놓는다’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이런 속담들을 비판적인 인식없이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11 ‘우리말 연구가’는 두 번째 발화에서 ‘공동체의 담화 관습은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되기도 합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담화 관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공동체 내에서 더욱 강화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우리말 연구가’의 첫 번째 발화 중 ‘우리가 사용하는 속담은 소중한 언어 유산이지요~이런 속담들을 비판적인 인식 없이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를 통해 옛말이 모두 옳은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우리말 연구가’의 첫 번째 발화 중 ‘꿀 먹은 벼어리’는 차별적 인식이 담긴 속담이라고 하였으므로 ‘눈 뜬 장님’도 차별적

인식이 담긴 속담이라 할 수 있다.

㉓ '우리말 연구가'의 두 번째 발화 중 '공동체의 담화 관습은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되기도 합니다.'를 통해 담화 관습도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맞게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12 ㉑과 ㉒은 둘 다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이다. ㉑ '학부형'은 학생의 아버지와 형을 뜻하고, ㉒ '학부모'는 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한다. 이는 남녀 차별의 인식이 담긴 표현을 시대 변화에 따라 고쳐 쓴 예이다. ㉓ '잡상인'은 특정 상인을 천대하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잡-'이라는 말에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상인'으로 고쳐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㉑ '외발자전거'는 두 개의 다리를 '정상'으로 보는 편견이 담긴 표현이므로 바퀴가 하나인 자전거를 의미하는 '외바퀴자전거'가 적절하다.

㉓ '뽕머리장갑'에서 '뽕머리'는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이르는 차별적 표현이므로 '엄지장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㉔ '저출산'은 여성이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을 의미해 그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아이가 적게 태어나는 현상을 뜻하는 '저출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㉕ '외국인 노동자'는 국적에 따른 차별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국내로 이주한 노동자를 뜻하는 '이주 노동자'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02 함께하는 국어생활

+ **확인문제** • 149~151쪽

01 ① 02 언어 공동체 03 ⑤ 04 ④

01 이 글의 글쓴이는 초급 한국어 강의를 할 때의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강의를 듣는 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㉒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므로 두 개 이상의 언어 공동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㉓ 한국 가요를 좋아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의 10대와 20대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궁금해한다고 하였다.

㉔ 결혼 이민자 학생들은 초급 한국어 강의인데도 어려운 친족어와 호칭어, 높임 표현에 관해 질문한다고 하였다.

㉕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대부분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잠시 공부하러 왔거나 결혼해서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라고 하였다.

02 언어 공동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사회 집단을 말한다.

03 이 글은 글쓴이의 체험과 깨달음을 개성 있게 표현한 수필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다른 언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의 바람직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언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04 글쓴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각기 다른 관습을 지닌 다양한 언어 공동체가 존재하므로,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나와 다른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것이 곧 상대의 말을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활동 응용 문제 • 152~158쪽

01 ⑤ 02 ② 03 ③ 04 ⑤ 05 ③ 06 ② 07 ① 08 ⑤
09 ⑤ 10 ① 11 같은 말이라도 남북한에서 쓰이는 뜻이 다른 경우가 있다. 12 ④ 13 ③

01 한국 가요를 좋아하는 젊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젊은 세대들과 대화할 상황이 많고, 가족 구성원이 한국인인 외국인들은 한국의 다양한 친족어와 높임 표현을 이해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서로 궁금해하는 내용이 다르다고 하였다.

02 글쓴이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공동체 모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대라고 하였다.

03 서로 다른 언어 공동체에 속해 소통이 어려웠던 경우를 성찰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는 문제이다. 할아버지께서 청소년 세대의 언어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표준어를 사용해서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 세대의

언어 표현을 알려 드려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04 예상 독자를 분석할 때는 독자의 연령, 관심사, 배경지식, 주제에 관한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성을 드러내는 문체와 표현 방법은 글을 쓰는 단계에서 글쓴이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05 학생은 글쓰기를 계획하면서 예상 독자, 매체, 주제, 내용 구성과 표현 방법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학생은 제주도에 서 겪었던 경험과 깨달음을 소재로 올바른 소통의 태도에 대한 수필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다. ③ 다양한 매체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찾아 활용한다는 계획은 주장하는 글을 쓰기에 적절한 계획이다.

오답 풀이 ① 자신의 경험에 가치를 담아 개성이 드러나는 글을 쓴다는 점에서 학생이 쓰게 될 글의 종류가 수필임을 알 수 있다.

② 제주도 여행 중 당황했던 경험, 즉 일화를 글을 쓰는 계기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④ 예상 독자는 학교 친구들이므로,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경험을 사례로 들고, 친근함을 주기 위해 말을 건네는 표현을 쓸 계획이라고 하였다.

⑤ 중간 부분에서 처음 부분과 사례가 연결될 수 있도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고, 명언이나 속담 등을 활용하여 주의를 환기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06 글쓴이는 일상의 경험에서 깨달은 가치를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끼게 된다’라는 인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세대의 차이에 따른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차이에 따른 소통의 문제가 드러난 글이다.

③ 글쓴이가 속한 언어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지역의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제주도 방언의 어원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⑤ 방언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나 지역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나타나 있지 않다.

07 글쓴이는 제주도 지역의 방언을 알아듣지 못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서로 다른 언어 공동체의 형성 기준은 ‘지역’이다.

08 (가)는 남한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음식 용어가 달라 소통의 어려움을 겪었던 글쓴이의 체험을 담은 글이다.

09 (나)에서 세대 간의 언어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10 남북은 분단 이후 일상생활의 용어부터 전문 용어까지 어휘와 표기 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문법의 차이 또한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남북의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문법 체계로 통일하자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11 남북한의 언어 측면을 고려할 때, <보기>는 같은 말이라도 남북한에서 쓰이는 뜻이 다른 경우의 예로, ‘살이 찼다’와 ‘일없다’를 예로 들고 있다.

12 ‘우리 사회의 모습 ❶’은 손님을 대접하는 식사 문화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오해의 상황이다. 이처럼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한 사회 내에서 여러 문화가 공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13 “너는 달라서 특별해.”나 “한국 사람 다 되었네요.” 등의 표현은 상대방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과는 다르다는 인식에서 나온 표현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단원 평가

• 160~163쪽

01 ③ 02 ④ 03 예시 답안 참고 04 ⑤ 05 ① 06 ⑤
07 ② 08 예시 답안 참고 09 ④ 10 ⑤ 11 가벼운 사양이나 ‘괜찮다’의 의미이다.

01 글쓴이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한국어 강의를 하면서 겪은 깨달음을 글로 쓰고 있다. 이 글에서 결혼 이민자들의 직업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02 이 글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심 분야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한국어 실력이 크게 달라진다고 유추할 만한 근거는 없다.

03 예시 답안 젊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젊은 세대들과 대화할 상황이 많고, 가족 구성원이 한국인인 외국인들은 한국의 다양한 친족어와 높임 표현을 이해할 상황이 많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 한 사회 내에서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가 공존하며 지역, 세대, 성, 문화에 따라 언어 실천 양상 또한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① ‘젊은 외국인들’의 대상을 밝힐 때, ‘10대와 20대, 한국에 공부하러 온 학생’ 등으로 쓴 경우도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다.

② ‘가족 구성원이 한국인인 외국인들’의 대상을 밝힐 때, ‘결혼 이민자’, ‘한국인과 결혼해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등으로 쓴 경우도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두 대상을 밝히고, 그 이유를 <조건>에 맞게 모두 쓴 경우	4점
두 대상을 밝히고, 그 이유를 썼으나 <조건>의 형식을 지키지 못한 경우	2점
한 대상에 따른 이유만 밝힌 경우	1점

04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고, 사람들은 각자 그 속에서 살아간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상대가 속한 공동체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소통 태도이다.

05 유명 음식점의 이름을 한국어로 바꾸어 표기한 것은 번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의 문화나 우리나라의 문화가 반영된 것이 아니다.

06 (가)는 언어와 삶이나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그러한 특성이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에 담겨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나)는 ‘부추’의 다양한 지역 방언의 예를 보여주는 자료이고, (다)는 손녀와 할아버지의 대화에 나타난 세대 간의 언어 차이로 인한 갈등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사회 방언은 세대, 성별, 계층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원인 때문에 사용하는 말이 달라진 것을 의미한다. 특정한 연령대가 쓰는 말은 사회 방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에서 민지는 자신의 연령대만이 이해할 수 있는 사회 방언(줄임말 등)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7 (나)는 ‘부추’의 다양한 지역 방언을 보여주는 자료로, 지역 방언의 차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②는 ‘부침개’를 ‘찌짐’이라고 말하는 부산 사투리를 몰라 오해했던 경험으로, 지역 방언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보여주는 예이다.

오답 풀이 ① 상황에 따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사례이다.
 ③ 특정 직업인들이 쓰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사례이다.
 ④, ⑤ 특정 세대·계층이 쓰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사례이다.

08 예시 답안 (1) ‘부추’의 의미가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지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 각 지역마다 문화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2) 각 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각 지역 언어 표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상대가 속한 공동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관심과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출제 의도 지역 언어 공동체의 특성과 올바른 소통의 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상대의 언어 공동체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일부 부분 점수를 준다.

채점 기준	배점
두 가지 <조건>을 지켜 (1)과 (2)의 답을 모두 쓴 경우	6점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지켜 (1)과 (2)의 답을 쓴 경우	3점
(1)과 (2)의 답을 썼으나 <조건>의 일부만을 지켜 쓴 경우	1점

09 (다)와 (보기)는 세대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단절을 보여 주고 있다. 세대에 따른 언어의 차이는 결국 의사소통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0 (가)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 ‘나’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결해 나가는 것이 ‘나’의 의사소통 문제를 개선하고 ‘나’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 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

11 출제 의도 남북한 언어 중에서 같은 말이지만 뜻이 다른 어휘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① ‘거절, 양보’ 등 ‘사양’이나 ‘괜찮다’라는 의미와 비슷하게 쓴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② 맞춤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1점으로 처리한다.

채점 기준	배점
<조건>을 지켜 ‘가벼운 사양’, ‘괜찮다’의 의미 두 가지를 모두 쓴 경우	4점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지켜 쓴 경우	2점

01 ③ 02 ⑤ 03 ④ 04 ④ 05 ④ 06 ④ 07 ② 08 ④
 09 예시 답안 참고 10 ③ 11 ⑤ 12 ① 13 ③ 14 ②
 15 ① 16 ②

- 01** 대화의 원리는 원활한 대화를 위해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말한다. 그러나 대화할 때 자신의 의견을 최소화하고 반론을 되도록 제기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체면 유지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② 협력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④, ⑤ 공손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 02** ‘진경’은 ‘지은’의 질문에 말끝을 흐리는 등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진경’이 협력의 원리 중 태도의 격률을 지키며 대화할 수 있도록 ⑤와 같이 조언하는 것이 적절하다.
- 03** 아빠는 덕선에게 “아빠 엄마가 미안하다. 잘 몰라서 그래. ~ 아빠도 아빠가 처음인데…….”라며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자신의 상황을 겸손하게 표현한 아빠의 말하기 방식은 공손성의 원리 중 겸양의 격률과 관련이 있다.
오답 풀이 ① 아빠는 덕선의 행동에 대해 칭찬하지도 꾸짖지도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찬동의 격률은 상대를 비방하는 표현은 줄이고 칭찬하는 표현을 늘리는 말하기이다.
 ② 아빠는 자신의 잘못을 나열하여 말하고 있으나 덕선에게 부담을 주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 권용의 격률은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을 주는 표현은 늘리는 말하기이다.
 ③ 아빠는 생일 파티의 자리를 떠났던 덕선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 양의 격률은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는 말하기이다.
 ⑤ 아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덕선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다. 동意的 원리는 자신과 상대의 의견에서 다른 점은 줄이고 공통점은 늘리는 말하기이다.
- 04** <보기>는 진로를 고민하는 친구와의 대화이다. 재훈은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준석에게 평소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준석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다. 이는 친구의 자존심을 손상시킨 것으로, 아무리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친구 사이일지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말했어야 한다. 체면 유지의 원리란 사람들이 대화할 때 자신의 체

면을 지키려는 욕구가 있으므로 대화 참여자들은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여 예의를 갖추어 대화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참고하여 재훈의 말을 고치면, “진로에 관한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읽어 볼까?”가 적절하다.

- 05** “꿀 먹은 벵어리”라는 속담은 속에 있는 생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로, 장애를 차별하는 부정적 인식이 담긴 표현이다.
- 06** 다문화 사회에서는 문화적 차이나 언어 표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해가 생기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보기>의 상황은 따뜻한 밥을 대접하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소통에 문제가 생긴 경우이다.
- 07** 가상 공간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실제 언어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젊은 층의 경우 가상 공간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일상 언어로 확산되기도 하며, 이러한 변화는 언어의 형태와 사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08** 가상 공간에서 사용하는 언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규범을 지켜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가상 공간이라는 언어적 환경을 고려할 때 그 공간의 특성과 문화에 맞는 새로운 표현이나 형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적절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다른 사람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한 언어생활 태도이다.
- 09** 예시 답안 공손성의 원리와 협력의 원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우산을 빌려 달라는 친구의 말에 “뭐라고? 우산 맡겨 놓으심?”과 같이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부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공손성의 원리 중 찬동의 격률을 지키지 않은 말을 하고, “비 맞고 걸으면 시강이겠다ㅋㅋ”과 같이 대화의 맥락에 맞지 않은 말을 함으로써 협력의 원리 중 관련성의 격률을 지키지 않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 대화 원리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대화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가상 공간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지켜지지 않은 대화의 원리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의미가 통하면 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학생들이 지키지 않은 대화의 원리 두 가지 그 이유를 <조건>에 맞게 바르게 쓴 경우	4점
학생들이 지키지 않은 대화의 원리 두 가지와 그 이유를 썼으나 <조건>에 맞게 쓰지 않은 경우	2점
학생들이 지키지 않은 대화의 원리만 두 가지 쓴 경우	1점

10 이 글은 글쓴이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강의에서 얻은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개성 있는 표현으로 쓴 수필이다.

- 오답 풀이** ① 수필은 정해진 형식이 없는 무형식의 문학이다.
 ② 수필은 개인의 체험과 깨달음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글이다.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논리를 강조하는 글은 논설문이다.
 ④ 특정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주제로 하는 글은 설명문이나 보고서 등의 글이다.
 ⑤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구체적 근거를 들어 명료하게 드러내는 글은 비평문이다.

11 독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쓰는 글은 주장하는 글(논설문)의 특징이다.

- 오답 풀이** ① ‘처음으로 강단에 선 날~하나 되어 빛났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글의 형식이 글과 함께 그림을 제시하여 개성 있게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와 다른 상대의 모습을~시작할 수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12 글쓴이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느끼게 된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각 지역 언어에 관해 관심을 갖고 상대를 이해하며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함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예상 독자 분석에서 전문 용어를 어려워하며, 지역 방언에 대해 잘 모르는 우리 학교 학생이라고 했다. 따라서 제주도 지역 방언의 특수성과 같은 내용은 다루지 않는 것이 좋으며, (나)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②, ④ 글쓴이는 제주도에 ‘요망지다’와 ‘꼭삭 속 앓수다’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제주도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느낀다. 그러나 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성찰하고 있다.
 ③ 아버지와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체험한 인상적인 사건을 쓴 글이다.
 ⑤ 글쓴이는 ‘멘도롱 또똔’, ‘놀멍 놀멍 뽕서’와 같은 제주도 사투리를 예로 들며, 다양한 지역의 언어 표현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한다. 이는 글쓴이가 단순히 경험을 넘어, 언어와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13 글쓴이는 제주도에 있었던 경험과 깨달음을 쓴 수필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려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 한다. ③은 주장하는 글을 쓰고 점검할 사항이다.

14 글쓴이는 ㉠ ‘요망지다’를, 제주도 방언이 아닌 ‘언행이 방정맞고 경솔하다.’의 의미를 지닌 표준어의 의미로 이해하여 제주도 아주머니에게 서운해하고 있다. 제주도에 서 ‘요망지다’는 똑똑하고 야무지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15 (가)에서 정혁은 ‘일없습니다’라고 하며 이웃 주민 영애가 건네는 알밤주를 겸손하게 사양하며 받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에 들어갈 말은, ‘괜찮다’가 적절하다.

16 ‘형준’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로 ‘창완’의 제안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것은 ‘창완’의 역할에 가깝고, ‘형준’은 주로 창완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그것을 보강하는 발언을 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형준이 창완의 제안을 지적하고 있다는 발화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창완’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동 어휘 사전 제작, 문화 콘텐츠 활용’을 제시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③ ‘형준’은 “맞아요”, “정말, 좋은 생각이예요.”라며 ‘창완’의 제안에 공감하며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 가고 있다.
 ④ ‘창완’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언어적 차이를 해소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⑤ ‘형준’은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사람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라며 창완의 제안이 이루어진다면 남북한 언어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추가하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다.

3 올바른 언어생활

01 음운의 변동



확인 문제

• 181~187쪽

01 ㉓ 02 ㉑ 03 ㉓ 04 ㉓

01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자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의 영향으로 비음인 ‘ㅇ, ㄴ, ㄹ’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두 단어를 한 마디로 발음할 때도 적용된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는 ㉑ ‘국물[궁물]’과 ㉓ ‘학년[향년]’, ㉔ ‘흙 말리다[흥말리다]’이다.

오답 풀이 ㉒, ㉔ ‘천리[철리]’, ‘칼날[칼랄]’ 모두 유음화에 해당한다.

02 ‘똑같이[똑까지]’는 두 번째 음절의 초성 ‘ㄱ’이 ‘ㄱ’으로 바뀌어 발음되므로 된소리되기 현상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음절의 받침 ‘ㅌ’이 형식 형태소 ‘ㅣ’를 만나 ‘ㅌ’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㉒, ㉓, ㉕ 각각 ‘쇠붙이[쇠부치]’, ‘반닫이[반다지]’, ‘덩굴같이[덩굴거지]’로 발음되므로 모두 구개음화 현상만 확인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④ ‘발갈이’는 [받加里]로 발음되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받침 ‘ㅌ’이 ‘ㄷ’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하고, 받침 ‘ㄷ(ㄱ, ㅅ, ㅆ, ㅈ, ㅊ, ㅌ)’ 뒤에 연결되는 ‘ㄱ’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되기에 해당한다.

03 한자음 ‘라, 래, 로, 뢰, 루, 르’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두 음 법칙에 의해 [나, 내, 노, 뇌, 누, 느]로 바뀌어 소리 난다. 따라서 한자음 ‘로’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노]로 소리 나야 한다.

04 거센소리되기는 예사소리 ‘ㄱ, ㄷ, ㅂ, ㅅ’이 ‘ㅎ’과 합쳐져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소리 나는 현상이다. ㉒에서는 ‘낱고[나코]’와 ‘못하셨다[모타셧따]’에서 거센소리되기를, ㉔에서는 ‘달히는[다치는]’과 ‘똑똑히[똑또키]’에서 거센소리되기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㉑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는 ‘아니었다[아니언따]’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를 확인할 수 있다.

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 중에서 ‘집밥[집빡]’, ‘먹고[먹

꼬]’에서 된소리되기를 확인할 수 있고, ‘자랐다[자랄따]’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를 확인할 수 있다.

활동 응용 문제

• 188~193쪽

01 ㉓ 02 ㉔ 03 ㉒ 04 ㉒ 05 ㉒ 06 ㉓ 07 ㉓ 08 ㉕
09 ㉑ 10 ㉔ 11 ㉓ 12 ㉔

01 ㉑은 ‘다락[다락]’, ㉒은 ‘바깥[바깥]’, ㉔은 ‘대빛[대빔]’, ㉕은 ‘코앞[코압]’, ㉓은 ‘마음[마음]’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끝소리가 같은 것은 ㉒과 ㉔이다.

02 <보기>에서 설명하는 현상은 ‘된소리되기’이다. ‘깨끗이[깨끄시]’는 연음만 나타나는데, 연음은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㉑ ‘각별히[각뻗히]’는 예사소리 ‘ㅂ’이 앞 음절의 끝소리 ‘ㄱ’의 영향을 받아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경우이다.

㉒ ‘갑갑한[갑까판]’은 예사소리 ‘ㄱ’이 앞 음절의 끝소리 ‘ㅂ’의 영향을 받아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경우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사소리 ‘ㅂ’이 이어지는 ‘ㅎ’과 합쳐지는 거센소리되기도 나타나고 있다.

㉓ ‘결단력[결뎡녁]’은 한자어 받침 ‘ㄹ’ 뒤에 오는 ‘ㄷ’이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경우이다.

㉕ ‘꺼안다[꺼안따]’는 ‘ㄴ’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오는 ‘ㄷ’이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경우이다.

03 ‘단단히’는 [단단히]로 발음되므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㉑ ‘국화꽃’은 [국화꼐]으로 발음되므로 거센소리되기와 된소리되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난다.

㉓ ‘뚫단배’는 [뚫뎡배]로 발음되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④, ⑤ ‘간데없이’는 [간데업씨]로, ‘결정하다’는 [결뎡하다]로 발음되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04 ㉑에서 ‘법학’은 [버팍]으로 발음되므로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난다. ㉒에서 ‘따뜻한’은 [따뜨탄]으로 발음되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나고, ‘갈 것이다’는 [갈끼시다]로 발음되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㉔에서 ‘굳이’는 [구지]로 발음되므로 구개음화가 나타나고, ‘듣지’는 [듣찌]로 발음되므로 된소리되기가 나타나고, ‘않겠다’는 [안켄따고]로 발음되므로 음절의 끝소리

리 규칙,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가 나타난다. 따라서 ㉠~㉣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음운 변동 현상은 거센소리되기이다.

05 ‘책장’은 [책짱]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된소리되기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다’는 [가다]로 발음되며, 어간 ‘가-’에 어미 ‘-다’가 합쳐진 경우이므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③ ‘겉옷’은 [거돋]으로 발음되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밭은기침’은 [바튼기침]으로 발음되므로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연음은 음운 변동 현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닭고기’는 [닥꼬기]로 발음되므로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06 ㉠은 ‘ㄴ’이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유음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경우이다. 한편 ㉡은 앞의 비음 ‘ㄴ’의 영향을 받아 뒤의 유음 ‘ㄹ’이 비음 ‘ㄴ’으로 소리 나는 경우이다. 따라서 ㉠과 ㉡ 모두 음운 변동을 겪는 음운이 인접한 음운과 동일한 음운으로 바뀌는 경우이므로,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2음절 한자어 뒤에 ‘ㄹ’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하는 경우는 ㉢이다. ㉢은 받침 ‘ㄴ’으로 끝나는 2음절 한자어 뒤에 ‘ㄹ’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하여 ‘ㄹ’이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경우이다.

② ㉢은 한자로만 이루어진 단어이다.

④ 유음화는 ㉠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⑤ ㉠과 ㉡은 모두 파열음이 비음화되는 현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07 <보기>는 ‘ㄴ’과 ‘ㄹ’이 인접해 있지만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음운 현상으로, ‘구근류[구근뉴]’와 ‘추진력[추진녁]’은 모두 이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신라[신라]’와 ‘광한루[광할루]’ 모두 ‘ㄴ’이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② ‘권력[꺄력]’은 유음화가 일어나는 경우이고, ‘공권력[공녁]’은 ‘ㄴ’과 인접한 ‘ㄹ’이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경우이다.

④ ‘눈망울[눈망울]’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며, ‘웃מש[온מש씨]’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는 경우이다.

⑤ ‘한라산[할라산]’은 유음화가 일어나는 경우이며, ‘계곡물[계공물]’은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이다.

08 굳이[구지], 같이[가치], 붙임[부침]은 모두 구개음화가 발생하는 사례이다.

오답 풀이 ①, ② 구개음화는 음운의 교체 현상만 일어난다.

③ ‘ㄷ, ㅌ’이 모음 ‘ㅣ’ 혹은 반모음 ‘ㅣ’의 영향을 받아 ‘ㅈ, ㅊ’으로 바뀌어 소리 나므로, 모음의 영향을 받아 소리 나는 위치가 바뀌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④ 거센소리되기는 일어나지 않는다.

09 ‘논밭’ 다음에 오는 ‘일’은 실질 형태소이므로 <보기>에서 서술된 모음 ‘ㅣ’로 시작하는 ‘조사’나 ‘접미사’의 예라고 볼 수 없다. ‘논밭일’의 올바른 발음은 [논반닐]이므로 ‘논밭일부터’는 [논반닐부터]라고 발음해야 한다.

10 ‘성공울’에서 ‘울’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냥 ‘룰’로 표기해야 한다. ‘성공울’은 ‘성공룰’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11 <보기>는 [그러케 우리의 목썬 남기고 이썬다]로 발음된다. 순서대로 보면 ‘거센소리되기, 된소리되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뫼을’이 [목썬]로 발음되며 ‘ㅅ’이 아니었던 음운이 ‘ㅅ’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구개음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② 비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④ <보기>의 문장은 예사소리와 ‘ㅎ’이 합쳐져 거센소리가 되면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 경우이다.

⑤ 모음 탈락은 일어나지 않는다.

12 ‘밭이랑’은 ‘밭’과 ‘이랑’의 합성어인 경우와 ‘밭’에 조사 ‘이랑’이 붙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밭이랑’이 합성어일 때에 ‘이랑’은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구개음화를 적용할 수 없다. 한편 C와 같이 ‘이랑’을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로 인식하였다면, ‘이랑’이 형식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를 적용하여 [바치랑]으로 읽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밭이랑’을 실질 형태소 ‘밭’과 형식 형태소 ‘이랑’의 결합으로 인식했다면 구개음화를 적용하여 [바치랑]으로 발음하였을 것이다.

② ‘밭이랑’에 구개음화를 적용하면 [바치랑]으로 소리 나야 한다.

③ B의 ‘밭이랑[반니랑]’은 단어를 합성어로 인식하고 ‘ㄴ 첨가’와 ‘비음화’를 적용한 결과이다.

⑤ C의 ‘밭이랑[바치랑]’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 없이 바로 ‘구개음화’가 적용된 경우이다.

01 ㉓ 02 ㉔ 03 ㉕ 04 ㉖ 05 예시답안 ㉗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㉘은 거센소리되기와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㉖과 ㉘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구개음화이다. 06 ㉕ 07 ㉔ 08 ㉕ 09 ㉔ 10 ㉓ 11 예시답안 비음화는 자음이 인접한 자음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구개음화는 자음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현상이다. 또한 비음화는 조음 방법만 바뀌지만 구개음화는 조음 위치까지 바뀐다. 12 ㉕ 13 ㉕ 14 ㉔ 15 ㉔ 16 ㉔ 17 ㉕ 18 ㉔ 19 ㉖ 20 ㉔ 21 ㉕ 22 ㉔ 23 예시답안 '깨끗하다'는 [깨끄타다]로 발음되며 음운의 변동 중 교체와 축약을 확인할 수 있다.

01 '먹는다[멍는다]'는 'ㄱ'이 'ㅇ'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비음화가 일어나고, '닭는다[당는다]'는 'ㄱ'이 'ㅇ'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오답 풀이 ㉑ '강물'은 [강물]로 발음되므로 비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국물'은 'ㄱ'이 'ㅇ'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비음화가 일어나 [궁물]로 발음된다.

㉒ '굽는다'는 [굽는다]로, '굳는다'는 [굳는다]로 발음되는 비음화가 발생한다. '굽는다'는 'ㄴ'이 'ㅇ'으로, '굳는다'는 'ㄷ'이 'ㅇ'으로 바뀌어 소리 나므로 동일한 음운으로 발음되는 비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㉓ '칼날'은 'ㄴ'이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유음화가 일어나 [칼랄]로 발음된다. '걸림돌'은 [걸림똥]로 발음되므로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유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㉔ '실락'은 'ㄴ'이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유음화가 일어나고, '듣는다'는 'ㄷ'이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02 '똑같이'는 예사소리 'ㄱ'이 앞 음절 끝소리 'ㄱ'의 영향을 받아 'ㄱ'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ㄷ'이 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ㅌ'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또한 '결단력'은 한자어 받침 'ㄹ' 뒤에 오는 'ㄷ'이 된소리로 바뀌어 소리 나는 된소리되기와 'ㄴ'과 'ㄹ'이 인접해 있지만 2음절 한 자어에 'ㄹ'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된 유음화의 예외 규칙을 적용하여 [결판력]으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㉑, ㉒ 'ㄷ' 뒤에 형식 형태소 'ㅣ'가 만난 경우이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연음을 적용하지 않고 구개음화를 적용해야 한다.

㉓, ㉔ '결단력'은 유음화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례에 해당하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할 만한 자음이 사용되지 않았다.

03 '좋아요[조아요]'에서는 자음 'ㅎ'이 사라지는 음운 탈락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㉑ '알끈[알끈]'은 표기와 실제 발음이 다르지 않으므로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㉒ '국화[구과]'에서는 'ㄱ'과 'ㅎ'이 합쳐져 새로운 음운 'ㅋ'으로 소리 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음운 축약이 일어나는 예이다.

㉓ '겉모습[건모습]'은 'ㄷ'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ㄷ'으로 변하고 이후 'ㄹ'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음운 교체가 일어나는 예이다.

㉔ '숨이불[숨:니불]'은 '숨'과 '이불'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앞말 '숨'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로 시작할 때 'ㄴ'이 덧붙여 소리 나는 ㄴ 첨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예이다.

04 '격노(激怒)'는 'ㄱ'이 'ㅇ'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비음화가 일어나 [경노]로 발음되며, '경로(經路)'는 'ㄹ'이 'ㄴ'으로 바뀌어 소리나는 비음화가 일어나 [경노]로 발음된다. 따라서 <보기>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오답 풀이 ㉑ '꽃이[꼬치]'와 '꼬치[꼬치]'는 실제 발음이 같아 ㉑을 만족하지만 모두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단어이다.

㉓ '마치[마치]'와 '만이[마지]'는 실제 발음이 다르며, '만이'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㉔ '갓는다[간는다]'와 '값는다[감는다]'는 모두 비음화가 일어나 ㉑, ㉒을 만족하지만 두 단어의 발음이 다르다.

㉕ '분리하다[불리하다]'와 '불리하다[불리하다]'는 실제 발음이 같아 ㉑을 만족하지만 '분리하다'에만 유음화가 적용된다.

05 '날날이'는 [난나치]로 발음된다. 우선 '날'의 'ㄷ'이 'ㄷ'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후 이어지는 자음 'ㄴ'의 영향을 받아 'ㄷ'이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또한 두 번째, 세 번째 음절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 [난나치]로 발음된다. '굳히다'의 경우 'ㄷ'과 'ㅎ'이 결합하여 'ㅌ'으로 축약되고 이것이 모음 'ㅣ'를 만나 'ㅌ'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

출제 의도 음운 변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단어에 적용되는 음운 변동 규칙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㉑과 ㉒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의 종류를 모두 나열해야 하며, 조건 2에 따라 '구개음화'가 공통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임을 도출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과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모두 바르게 서술하고, ㉢, ㉣에서 공통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 구개음화임을 서술한 경우	6점
㉠이나 ㉡에서 음운 변동 5가지 중 4개 이상 바르게 서술하고, ㉢, ㉣에서 공통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이 구개음화임을 서술한 경우	3점
㉢, ㉣에서 모두 구개음화가 일어난다는 것만 밝혀 서술한 경우	2점

06 ‘수원역[수원녁]’의 경우 앞말 ‘수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 ‘역’이 ‘ㅣ’나 반모음 ‘ㅚ’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앞뒤의 말 사이에 ‘ㄴ’이 첨가되는 ㄴ 첨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실수[실쑤]’는 ‘ㅅ’이 ‘ㅆ’으로 교체된 경우이다.

② ‘좋은[조은]’은 ‘ㅎ’이 탈락된 경우이다.

③ ‘먹는[멍는]’은 ‘ㄱ’이 비음 ‘ㅇ’으로 교체된 경우이다.

④ ‘쌓지[싸지]’는 ‘ㅎ’과 ‘ㅈ’이 합쳐져 ‘ㅊ’으로 축약된 경우이다.

07 ‘신라[실라]’와 ‘물놀이[물로리]’는 모두 유음화가 일어나지만, 유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에서 ‘물놀이’는 ‘ㄴ’의 앞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모음 탈락과 같이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음운 변동이 표기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굳는[굳는]’은 ‘ㄷ’이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나고 있으며 ‘구지[구지]’ ‘ㄷ’이 ‘ㄷ’으로 바뀌어 소리 나고 있다.

③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는 모두 음운 변동의 종류로, 이 글에서 음운 변동은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일어난다고 하고 있다.

⑤ ‘국물은 [궁물]로 발음되고, ‘섬리는 [섬니]로 발음되므로 각각 ‘ㄱ’과 ‘ㅂ’이 ‘ㅇ’과 ‘ㄹ’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비음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08 ‘웃만’은 먼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ㅅ’이 ‘ㄷ’으로 바뀌어 [온만]이 된 후, ‘ㄷ’이 ‘ㄴ’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비음화가 일어나 [온만]으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국민’은 한자어이므로 한자어에도 비음화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② ‘ㅅ’이 ‘ㄷ’으로 바뀐 후 비음화가 일어나는 것이므로, 비음화가 일어나는 음운에 ‘ㅅ’이 속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보기>에서 두 단어인 ‘떡 만들다’를 이어서 발음할 경우 ‘ㄱ’이 ‘ㅇ’으로 바뀌어 소리나는 비음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비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를 발음해 보면, 조음 위치는 그대로이고 조음 방법만 바뀔 수 있다.

09 ‘겉잎’의 ‘잎’은 모음 ‘ㅣ’나 반모음 ‘ㅚ’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아닌 실질 형태소이다. 따라서 구개음화가 아닌, ㄴ 첨가 현상에 이은 비음화가 발생하여 [건닙]으로 발음된다.

10 (라)에서 설명하는 음운 변동 현상은 구개음화이다. 구개음화는 뒤에 이어지는 모음 ‘ㅣ’나 반모음 ‘ㅚ’가 형식 형태소여야만 일어난다. ‘해돋이’의 ‘ㅣ’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구개음화를 적용하여 [해도지]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밭일’과 ‘홀이불’은 합성어로, 뒤의 ‘일’과 ‘이불’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④ 구개음화는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⑤ ‘ㄹ’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는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출제 의도 비음화와 유음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과 특징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비음화’는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의 영향을 받아 비음인 ‘ㅇ, ㄴ, ㄹ’으로 바뀌므로 조음 방법만 바뀐다. 그러나 ‘구개음화’는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ㅚ’인 형식 형태소를 만나 ‘ㅆ, ㅊ’으로 바뀌므로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 둘 다 바뀐다.

채점 기준	배점
<조건>의 문장 형식을 따라 차이점 두 가지를 각각 한 문장으로 적절히 서술한 경우	6점
<조건>의 문장 형식을 따라 차이점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정확히 서술하였으나 나머지 하나의 서술은 적절하지 않은 경우	3점
<조건>의 문장 형식을 따라 차이점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으나 서술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2점

12 두음 법칙은 한자어에 적용되는 규칙이므로 외래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디오(radio)는 영어, 라면(râmen)은 일본어에서 비롯한 외래어이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첫머리에 ‘ㄹ’을 그대로 표기한다.

오답 풀이 ① 된소리되기는 앞의 소리에 영향을 받아 뒤에 오는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수세미[쑤세미]’는 단어 첫머리의 음절을 된소리로 잘못 발음한 것으로, [수세미]로 발음해야 하며, 된소리되기의 예가 될 수 없다.

④ 두음 법칙은 한자어의 첫머리의 ‘ㄴ’ 또는 ‘ㄹ’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란’은 첫머리에 오지 않으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의견란’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며, 2음절 한자어 뒤에 ‘ㄹ’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한 단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견난]으로 발음해야 한다.

13 ‘옴조리다’는 [읍조리다] → [읍쪼리다]로 발음해야 하며, 앞 음절 끝에 오는 파열음인 ‘ㅂ’의 영향을 받아 ‘ㅈ’이 ‘ㅉ’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오답 풀이 ① ‘닭’은 [닥]으로 발음되어 음절의 끝소리가 ‘ㄱ’인 경우에 해당한다.

③ 용언 어간의 끝 ‘ㄴ’ 뒤의 된소리되기는 <보기 1>에서 제시된 된소리되기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된소리되기가 다른 조건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추론은 적절하다.

14 ‘굳힘약[구침낙]’에서는 거센소리되기와 구개음화, ㄴ 첨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앉은일[안즌닐]’에서는 ㄴ 첨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물받이[물바지]’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굳힘약’을 발음할 때 발음되는 ‘ㅈ’과 ‘ㄴ’, ‘앉은일’을 발음할 때 발음되는 ‘ㄴ’, ‘물받이’를 발음할 때 발음되는 ‘ㅈ’ 등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15 ‘엷는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업는다]가 되고, 다시 비음화가 일어나 [엄는다]로 발음되므로, 음운 변동이 두 번 이루어진 경우이다.

16 ㉠은 ‘흙일’은 [흑일(흑은 흙닐)] → [흑닐] → [흥닐]의 순서로 음운 변동이 발생한다. ㉡은 ‘닭는’은 [달는] → [달른]의 순서로 음운 변동이 발생하고, ㉢은 ‘물약’은 [물낙] → [물락]의 순서로 음운 변동이 발생한다. 따라서 음운이 첨가되었다는 분석은 ㉠, ㉡에만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 ㉡, ㉢ 모두 2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은 음운 변동 전후의 음운의 개수가 모두 6개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은 ‘7개 → 6개’, ㉢은 ‘5개 → 6개’로 변화가 있다.

④ ㉠은 자음군 단순화와 유음화, ㉡은 ㄴ 첨가와 유음화가 발생하였으므로 모두 2회씩의 음운 변동이 발생했다.

⑤ ㉠과 ㉢ 모두에서 ㄴ 첨가 현상이 발생하였다.

17 ‘달치다’는 [달치다]로 발음된다. ‘달치다’의 ‘ㅎ’은 음절의 끝소리로 쓰인 경우이고 <보기>의 (2)에 의하면 뒤 음

절의 자음과 부딪힐 때 ‘ㄷ’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달치다’는 [달치다]로 발음되므로 ‘ㅎ’은 제 음가가 아닌 ‘ㄷ’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달치다’는 [달치다]로 발음되고 ‘달히다’는 축약과 구개음화로 인해 [다치다]로 발음된다.

③ ‘달치다[달치다]’의 ‘ㅈ’은 표기대로 발음되는 것이지 음운 변동에 의한 것이 아니다.

④ ‘달치다’는 [달치다]로 발음되므로 ‘ㅎ’은 ‘ㄷ’으로 바뀌어 소리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 ㉠의 ‘굳이[구지]’는 구개음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예이다. ‘팔이[파치]’, ‘붙여[부쳐]’ 모두 끝소리 ‘ㅌ’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ㅍ’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 ‘ㅈ’으로 바뀌어 소리 나는 경우이므로 구개음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의 ‘사려니숲[사려니숲]’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급하다[그파다]’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③ ㉡의 ‘식물[싱물]’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고, ‘권리[궤리]’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④ ㉢의 ‘더듬지[더듬찌]’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꿈같이[꿈가치]’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⑤ ㉣의 ‘듬직한[듬지칸]’에서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고, ‘한여름[한너름]’에서는 ‘ㄴ’ 첨가가 일어난다.

19 <보기>에서는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동시에 [붙임 1]에서는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의 ‘년’은 의존 명사로서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경우이지만 ‘연’으로 표기하지 않고 ‘년’으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보기>에 제시된 한글 맞춤법 규정이 온전히 적용된 예로는 볼 수 없다. ‘냥, 냥중, 년’과 같은 의존 명사는 한글 맞춤법 제42항에 따라 앞말과 띄어 쓰지만 의존하는 대상과 하나의 단위로 쓰여서 독립된 단어로 잘 인식되지 않고, 두음 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붙임 1]을 적용하면 올바른 표기이다.

③ [붙임 2]에 언급되어 있듯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 ‘신’이 붙어서 된 말이므로 실제 발음은 [신녀성]이지만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④ 제10항에 따라, ‘녀’가 단어 첫머리에 오는 경우이므로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⑤ [붙임 2]에 언급되어 있듯이,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지만([남존녀비]) 두음 법칙에 따라 적어야 하는 경우이다.

20 ㉠은 단모음 ‘ㅣ’가 반모음 ‘ㅣ̣’로 교체된 후 ‘ㄱ’와 결합하여 ‘ㄱ’로 된 경우이다.(단모음 ‘ㅣ’가 단모음 ‘ㄱ’와 결합하여 이중 모음 ‘ㄱ’로 축약하였다는 견해도 있다.) ㉡은 모음 ‘ㅣ’가 연속될 때 ‘ㄱ’ 하나가 탈락한 경우이다. 따라서 이를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이다.

오답 풀이 ①, ③ ㉠은 교체(혹은 축약) 현상이 나타난다. ②, ④ ㉡은 음운의 탈락이 나타난다.

21 ‘아프다’의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가 탈락하여 ‘아파’가 되었다. ‘누르다’의 어간에 어미 ‘-어’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가 탈락하고 동시에 ‘ㄹ’이 덧붙여 ‘눌러’가 되었다. ‘크다’의 어간에 어미 ‘-어’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가 탈락하여 ‘커’가 되었다. 따라서 어간 ‘아프-’, ‘누르-’, ‘크-’가 어미 ‘-아/-어’와 결합할 때 ‘-’가 탈락한 경우라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자음이 첨가되지 않았다. ② 음운 변동 중 ‘축약’이 아닌 ‘탈락’에 해당하는 현상이다. ③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 탈락하는 경우이다. ④ ‘-’ 뒤에 ‘ㅏ’ 혹은 ‘ㅑ’가 이어지는 경우이므로 동일한 모음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22 ‘여덟과’에서 ‘과’는 조사이므로 표준 발음법 제25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덟’은 자음군 단순화를 거쳐 [여덜]로 발음되고 ‘ㅏ’이 조사 ‘과’의 첫소리 ‘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여덜과]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② ‘신기다’는 ‘신게 하다’로 표현할 수도 있는 ‘신다’의 사동사이다. 따라서 ‘-기-’가 사동사이므로 표준 발음법 제24항을 적용하여 [신기다]로 발음해야 한다. ③ ‘앉을수록’은 어간 ‘앉-’에 어미 ‘-을수록’이 결합한 경우이므로 표준 발음법 제27항을 적용하여 [안줄수록]으로 발음해야 한다.

23 출제 의도 연음에 의한 발음과 음운 변동에 의한 발음의 변화를 구분하고, 단어에 적용된 음운 변동 규칙을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깨끗하다’는 [깨끄타다]로 발음되며, 이 과정에서 ‘ㅏ’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대표음 ‘ㄷ’으로

변하고, 이어 ‘ㄷ’과 ‘ㅎ’이 ‘ㅌ’으로 축약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깨끗이’는 [깨끄시]로 발음되므로 음운의 변동 없이 연음만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채점 기준	배점
‘깨끗하다’를 발음할 때 음운의 변동이 발생하며, 교체와 축약이 발생했음을 모두 서술한 경우	6점
‘깨끗하다’를 발음할 때 음운의 변동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서술했으나 교체와 축약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4점
‘깨끗하다’를 발음할 때 음운의 변동이 발생한다는 사실만 서술한 경우	2점

02 상황에 맞게 표현하기



확인문제

• 207~219쪽

01 ㉣ 02 ㉠ 03 ㉡ 04 ㉢ 05 ㉠ 06 -ㄴ, -ㄴ- 07 ㉡
08 ㉣ 09 ㉣ 10 ㉡ 11 ㉡ 12 사고 도구어, 전문어

01 ㉠은 문장의 객체만 높이고 있는 문장이다. ㉡은 문장의 객체와 청자를 높이고 있으며, ㉢은 문장의 주체와 객체를 높이고 있지만, 청자는 높이고 있지 않는 문장이다. 따라서 ㉠, ㉡, ㉢의 말하는 이는 모두 문장의 목적어에 나타나는 객체를 높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 문장의 객체는, 말하는 이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02 ㉠에 사용된 ‘가시지(가시다)’는 ‘어떤 상태가 없어지거나 달라지다.’라는 뜻이다. 형태소를 분석하면 ‘가시-’가 어근이자 어간이므로, ‘-시-’를 선어말 어미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문장에서처럼 어간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가 결합한 형태로 볼 수 없다.

03 ‘찾으셔’의 선어말 어미 ‘-(으)시-’는 이 문장의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지수’는 청자의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지수를 ‘지수야’라고 부르고, 대화의 종결 표현은 ‘-어’로 끝나는 ‘해체’를 사용하였으므로 상대를 높이지 않고 있다. ② ‘어머니’는 이 문장의 주체로 높임의 주격 조사 ‘께서’를 통해 높임이 실현되고 있다.

- ③ ‘널(너)’은 ‘지수’를 지칭하는 말이므로 이 문장의 객체와 대화의 상대는 동일 인물이다.
- ④ ‘급히’는 단순 부사에 불과하므로 높임의 의미를 확인할 수 없다.

04 ‘축사’를 높이기 위해 ‘계시다’와 같은 특수 어휘는 사용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주격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통해 주체 높임법이 적절히 실현되었다.
- ② 주격 조사 ‘께서’, 부사격 조사 ‘께’, 특수 어휘 ‘드리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통해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이 실현되었다.
- ④ ‘데려다주다’의 높임말인 ‘모셔다드리다’를 통해 객체 높임법이 적절히 실현되었다.
- ⑤ ‘커피’는 높여야 할 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간접 높임을 적용하지 않았고, 대신 ‘주문하신’에서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며 주체 높임법을 실현하였다.

배경지식 더하기

간접 높임 실현 시 유의 사항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성품, 심리, 소유물과 같이 주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에게만 간접 높임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간접 높임에서는 높임의 뜻을 가진 특수 어휘는 사용할 수 없다.

05 ①은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를 통해 문장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객체인 ‘너’에 대한 높임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사격 조사나 특수 어휘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객체인 ‘너’는 대화의 상대이기도 하며, 종결 어미 ‘-ㄴ대(-ㄴ다고 해)’를 통해 상대를 높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② 문장의 객체인 ‘저분’을 높이고 있으며, ‘저분’은 대화의 상대와 다른 인물이다.
- ③ 말하는 이는 대화의 상대를 높이지 않고 있다. 또한 문장의 객체는 ‘동생’이지만,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
- ④ 서술어 ‘드렸겠지’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생략된 주어(주체)를 높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장의 객체인 ‘할아버지’는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해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장의 객체인 ‘할아버지’와 대화의 상대는 동일 인물로 볼 수 없다.
- ⑤ 종결 어미로 미루어봤을 때 대화의 상대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화의 상대가 문장의 객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06 ‘제찬’은 형용사 ‘제차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활용된 경우이고, ‘내린다’는 동사 ‘내리다’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이 결합한 경우이다. 이 두 가지 어미에서 현재 시제를 확인할 수 있다.

07 ㉠은 현재 시제만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이다. ㉡은 ‘막은’에 사용된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통해 과거 시제를, 서술어에 사용된 형용사 ‘많다’를 통해 현재 시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이다. ㉢은 ‘떡던’에 사용된 관형사형 어미 ‘-던’을 통해 과거 시제를, 서술어 ‘내려놓았다’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았-’을 통해 과거 시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이다. ㉣은 ‘본’에 사용된 관형사형 어미 ‘-ㄴ’을 통해 과거 시제를, ‘기다리느’에 사용된 관형사형 어미 ‘-느’를 통해 현재 시제를, ‘돌려주겠다’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겠-’을 통해 미래 시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이다.

08 <보기>의 문장에서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마시다’의 행위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는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동작상을 활용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선어말 어미 ‘-었-’을 통해 과거 시제(사건시보다 발화시가 나중인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② ‘차가운’에 사용된 관형사형 어미 ‘-ㄴ’은 형용사에 활용된 어미이므로 현재 시제(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③ ‘매고 있던’에 사용된 관형사형 어미 ‘-던’을 통해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 ⑤ ‘매고 있던’에 사용된 ‘-고 있은’ ‘매다’의 행위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고, ‘매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다.

09 ④의 ‘지었다’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었-’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이는 어미이다.

10 ‘믿어지지’의 경우 다른 피동 접미사의 결합 없이 ‘믿다’에 ‘-어지다’만 붙어서 이루어진 통사적 피동어이므로 잘못된 피동 표현으로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눅었다(눅어있다)’에 사용된 접미사 ‘-이-’는 사동 접미사이다.

② ‘밝혀졌다(밝히어지었다)’는 ‘밝다’에 사동 접미사 ‘-히’가 붙고 이어 ‘-어지다’가 결합된 경우이므로 사동과 피동이 동시에 사용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피동만 살필 경우 통사적 피동이 사용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③ ‘물린’에 피동 접미사 ‘-리’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묶인’에 피동 접미사 ‘-이’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끓어저’는 ‘끓다’에 ‘-어지다’가 결합된 피동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다.

11 ‘당신’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어머니’를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이다. 또한 ‘하시겠다’에서 무언가를 행하는 주체는 ‘어머니’이다. 따라서 간접 인용문을 직접 인용문으로 수정한다면 ‘어머니께서는 “내가 직접 하겠어.”라고 말씀하셨다.’가 되어야 한다.

12 사고 도구는 학문의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쓰이는 기본 어휘를 말하고, 전문어는 특정 분야의 지식을 담은 용어를 말한다.

활동 응용 문제

• 220~225쪽

01 ① 02 ④ 03 ② 04 ① 05 ④ 06 ⑤ 07 ③ 08 ④
09 ③ 10 ③ 11 ②

01 ①은 해오체를 사용한 높임 표현이다. 해오체는 비격식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격식체인 하오체를 사용한 높임 표현이다.

③, ④, ⑤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한 높임 표현이다.

02 ④의 주체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나가셨어’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통해 주체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장의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 할머니를 ‘모시러’라는 특수 어휘를 통해 높이고 있으므로 ④는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03 ‘시력도 좋으신’에서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시력’을 높이는 간접 높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격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으)시-’를 통해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에 대한 직접 높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04 ‘망한다’는 맥락을 살펴보면 ‘망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은 경고라고 할 수 있다. 즉 선어말 어미 ‘-ㄴ-’은 담화 맥락에 따라(구어적으로) 이미 확정된 계획이나 의지, 확실한 미래, 알림, 경고, 명령, 빈정거림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05 ㉠은 과거 시제를 의미하고, ㉡은 진행상을 의미한다. ㉢은 동사라면 ‘-는’을, 형용사라면 ‘-(으)ㄴ’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는 ‘지난’에서 ㉠의 과거 시제를 확인할 수 있고, ‘걸고 있는’에서 ㉡과 ㉢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바랜’은 동사 ‘바래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경우이므로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또한 ‘입고 있다’는 진행상으로 볼 수도 있고 완료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의 현재 시제는 나타나지 않는 문장이다.

② ‘먹어 버린’에서는 완료상과 함께 과거 시제가 나타난다.

③ ‘피어 있는’에서 완료상과 현재 시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잠긴’은 ‘잠기다’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경우이므로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⑤ ‘비어 있는’에서 진행상과 함께 현재 시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채워질’에서는 관형사형 어미 ‘-ㄴ’을 통해 미래 시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대한다’에서는 현재 시제를 확인할 수 있다.

06 ‘만져지다’는 ‘만지다’에 ‘-어지다’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열려지다(열려진)’는 피동 표현인 ‘-리-’와 ‘-어지다’가 중복으로 사용되었다.

② ‘쓰여지다(쓰여진다)’는 피동 표현인 ‘-이-’와 ‘-어지다’가 중복으로 사용되었다.

③ ‘생각되어지다(생각되어진다)’는 피동 표현인 ‘-되다’와 ‘-어지다’가 중복으로 사용되었다.

④ ‘잊혀지다(잊혀질)’는 피동 표현인 ‘-히-’와 ‘-어지다’가 중복으로 사용되었다.

07 ③의 ‘눅이다’는 ‘눅다’의 사동형으로, 주어인 소녀가 동작을 당하게 되는 피동을 표현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안다’에 피동 접미사 ‘-기’가 붙어 피동사 ‘안기다’가 되었다.

② ‘쓰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어 피동사 ‘쓰이다’가 되었다.

④ ‘끓다’에 ‘-어지다’가 붙어 피동사 ‘끓어지다’가 되었다.

⑤ ‘전하다’에 ‘-어지다’가 붙어 피동사 ‘전해지다’가 되었다.

08 직접 인용 부호인 큰따옴표와 직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 '라고'가 바르게 사용된 문장은 ④이다.

오답 풀이 ① 직접 인용문에서는 큰따옴표 뒤에 조사 '라고'가 와야 하는데 간접 인용의 부사격 조사 '고'가 결합하였다.

②, ③ 간접 인용문이다.

⑤ 인용 부호와 부사격 조사인 '라고'가 모두 쓰이지 않았다.

09 <보기 2>는 말레비치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종결 표현에 따른 문장 부호(마침표)를 적절히 사용하고 조사 '라고' 역시 적절히 사용한 경우이다.

10 ㉠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누군가가) 며칠 동안 나라를 들썩이게 만든 범인을 잡았다."이고 ㉡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누군가가) '개인 친환경성의 내재화'에 대한 고민과 방안 강구를 절실히 요구한다."이다. 두 문장 모두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능동문에서 목적어의 자리에 위치했던 '대상'을 피동문의 주어로 바꿔 쓴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은 피동문으로 '며칠 동안 나라를 들썩이게 만든 범인'이라는 대상이 부각된다.

② ㉠에만 피동 접미사 '-히-'가 사용되었다.

④ ㉠과 ㉡ 모두 능동문의 주체가 불분명하다.

⑤ ㉡의 능동문은 주체가 불분명하며, "개인 친환경성의 내재화"에 대한 고민과 방안 강구"를 목적으로 하는 문장이다.

11 사고 도구어는 학문의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학술 담화에도 널리 쓰인다. 뿐만 아니라 학술 담화에서 다루는 내용은 특정 분야의 깊이 있는 내용이기때문에, 특정 분야의 지식을 담은 전문어 역시 빈번하게 사용된다.

오답 풀이 ① 전문어의 경우 한자어와 외래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어휘의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는 중의성을 제거해야 하므로 다의어 사용은 지양한다.

④ 특정 분야의 지식을 담은 용어는 전문어이며, 학술 담화에서는 전문어를 빈번히 사용한다.

⑤ 고유어를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당 고유어가 분화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정확한 의미 전달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형태의 고유어는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소단원 평가

• 228~231 쪽

01 ③ 02 ④ 03 ③ 04 ② 05 ② 06 ② 07 ④

08 ③ 09 ② 10 ② 11 ③ 12 ③ 13 보여줍니다 → 보입니다 / 피동 접미사와 '-어지다'가 동시에 결합하는 것은 잘못된 피동 표현(이중 피동 표현)이기 때문이다. 14 ⑤ 15 ② 16 ② 17 현아는 "그럴 거면 네가 해 봐."라고 은혁이에게 말했다. / 직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을 원래의 형식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조사는 '라고'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18 ①

01 ③은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임을 나타내었다. 즉 형식 형태소(㉠)를 통해서만 높임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형식 형태소 조사 '께'와 실질 형태소인 특수한 어휘 '여쭙다'를 통해 높임을 나타내었다.

② 형식 형태소 조사 '께서'와 실질 형태소인 특수한 어휘 '진지', '계시다'를 통해 높임을 나타내었다.

④ 형식 형태소 조사 '께'와 실질 형태소인 특수한 어휘 '드리다'를 통해 높임을 나타내었다.

⑤ 형식 형태소인 조사 '께서', 어미 '-시-'와, 실질 형태소인 특수한 어휘의 '댁', '뵙다'를 통해 높임을 나타내었다.

02 ④는 '께서'와 '-시-'를 통해 행위의 주체인 고모를 높이고 있으며, '모시고'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문장의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객체인 할머니에 대한 높임('께', '드린')만 나타난다.

② 객체인 선생님에 대한 높임('께', '여쭙어')만 나타난다.

③ 주체인 어머니에 대한 높임('께서', '-시-')만 나타난다.

⑤ 주체인 환자분에 대한 높임('께서', '-시-')만 나타난다.

03 ③은 특수 어휘 '뵙다'를 통해 주체인 삼촌이 아니라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고 있다.

04 ②의 '도착했는가?'는 격식체인 하계체의 의문문 형태이다.

오답 풀이 ① '뭐예요?'는 비격식체인 해요체의 의문문 형태이다.

③ '가'는 비격식체인 해체의 명령문 형태이다.

④ '오세요'는 비격식체인 해요체의 명령문 형태이다.

⑤ '치렀지?'는 비격식체인 해체의 의문문 형태이다.

05 높여야 할 대상을 높이지 않았거나, 높이지 말아야 할 대상을 높인 표현이 있는지 확인해서 고쳐야 한다. 간접 높임에서는 높임의 뜻을 가진 특수 어휘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삼촌, 잠깐 시간 있으세요?'가 적절한 표현이다.

06 ㉠은 선어말 어미 '-었-'과 관형사형 어미 '-(으)ㄴ'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낸 문장이다. 과거 시제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나중인 시제, 즉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이다.

- 오답 풀이** ①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것은 현재 시제이다.
 ③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것은 미래 시제이다.
 ④ '-어 가다'를 사용하여 밥을 먹는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낸 문장으로 진행상에 해당한다.
 ⑤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어 가다'라는 보조 용언을 사용하였다.

07 '읽은'은 동사 '읽다'의 어간 '읽-'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된 것으로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 오답 풀이** ① '뜨는'은 동사 '뜨다'의 어간 '뜨-'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된 것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② '작은'은 형용사 '작다'의 어간 '작-'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된 것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③ '시인인'은 서술격 조사 '이다'의 어간 '이-'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된 것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⑤ '맑은'은 형용사 '맑다'의 어간 '맑-'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된 것으로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08 ㉡의 '푸른'은 형용사 '푸르다'의 어간 '푸르-'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09 ②의 밑줄 친 부분은 동작의 완결을 나타내고(완료상), 나머지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동작의 진행을 나타낸다(진행상).

10 '만들고 있다'는 진행상으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 오답 풀이** ① '그가 이미 걸옷을 다 입을 상태로 존재한다(완료상)'와 '그가 지금 걸옷을 입는 행위를 하는 중이다(진행상)'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③ '친구가 이미 넥타이를 맨 상태로 존재한다(완료상)'와 '친구가 지금 넥타이를 매는 행위를 하는 중이다(진행상)'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④ '어린 동생이 이미 차에 탄 상태로 존재한다(완료상)'와 '어린 동생이 지금 차에 타는 행위를 하는 중이다(진행상)'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⑤ '그 선수가 이미 권투 장갑을 낀 상태로 존재한다(완료상)'와 '그 선수가 지금 권투 장갑을 끼는 행위를 하는 중이다(진행상)'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1 ㉠은 '보다'가 사용된, 피동문도 사동문도 아닌 능동문이다. ㉡은 '보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사용된 피동문이고, ㉢은 '보다'에 사동 접미사 '-이-'가 사용된 사동문이다. 따라서 ㉡은 ㉠에 피동 접미사를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 오답 풀이** ① ㉢은 피동 표현이 아니다.
 ② ㉠은 피동 표현이 아니기에 피동 접미사도 사용되지 않았다. ㉢은 사동 접미사 '-이-'가 활용된 문장이다.
 ④ ㉡은 피동문이지만 목적어가 드러나지 않는 문장이며, ㉢은 사동문이다.
 ⑤ ㉢은 선어말 어미 '-었-'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며, 사용된 접미사 '-이-'는 사동 접미사이다.

12 '날씨가 풀리다.'는 행위의 주체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능동문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 오답 풀이** ① 능동문 '벌이 동생을 쓰았다.'로 바꿀 수 있다.
 ② 능동문 '사냥꾼이 노루를 쫓았다.'로 바꿀 수 있다.
 ④ 능동문 '태풍이 아랫마을을 휩쓸었다.'로 바꿀 수 있다.
 ⑤ 능동문 '사나운 개가 그의 팔을 물었다.'로 바꿀 수 있다.

13 피동 표현을 나타낼 때는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이거나 '-아/-어지다', '-게 되다' 등을 활용해야 하며, 피동 접미사와 '-어지다'가 동시에 결합하는 것은 잘못된 피동 표현(이중 피동 표현)임을 알아야 한다.

출제 의도 피동 표현의 실현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잘못된 피동 표현을 찾아 정확하게 고쳐 썼는지, 고친 이유로 '이중 피동'을 서술하였는지 확인한다.

채점 기준	배점
잘못된 피동 표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고, 고친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한 경우	6점
잘못된 피동 표현은 찾아서 고쳐 썼으나 고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경우	4점
잘못된 피동 표현만 찾아서 고쳐 쓴 경우	2점

14 직접 인용문에서 언급된 어제가 만약 10일이라면, 큰따옴표 안에 표현된 어제는 9일이다. 따라서 이를 간접 인용문으로 바꾼다면 '동생은 어젯밤에야 전날(그제)에는 자기가 미안했다고 말했다.'가 되어야 한다.

15 '수전해'는 한자어로 구성된, 특정 분야의 지식을 담은 전문어이다.

16 ㉠을 능동문으로 표현하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주체'가 강조되어 '사회적 휴리스틱을 환경 정책에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글쓴이의 주관적인 견해인 것처럼 읽힌다. 그런데 피동문을 사용하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강조되어 '사회적 휴리스틱을 환경 정책에 도입하는 방안'이 시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읽힌다. 따라서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글쓴이의 주관적 생각을 완화하고 상황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17 직접 인용 표현은 다른 사람의 말을 원래의 형식 그대로 유지해야 하므로 "네가 해 보라."는 "네가 해 봐."라고 고쳐야 함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직접 인용 표현은 인용 부호 다음에 조사 '라고'를 사용해야 함을 설명해야 한다. **출제의도** 직접 인용의 실현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① 잘못된 직접 인용 표현을 찾아 정확하게 고쳐 썼으면 정답으로 인정한다.

② 고친 이유에 대해 '원래 형식 그대로'와 '라고'를 포함하면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잘못된 직접 인용 표현을 찾아 고쳐 쓰고, 고친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잘못된 직접 인용 표현은 찾아서 고쳐 썼으나 고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경우	4점
잘못된 직접 인용 표현만 찾아서 고쳐 쓴 경우	2점

18 <보기 2>에서 수정된 부분은 '놓여져 → 놓여', '비록~있을수록 → 비록~있더라도'이다. '놓여져'의 경우 '놓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고 동시에, 용언의 어간에 보조 용언 '-어지다'가 쓰여 이중 피동이 실현된 경우이다. 따라서 '놓여져'가 '놓여'로 수정된 것은 ㉠과 같은 피동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부사 '비록'은 '-(으)르더라도', '-지마는', '-더라도'와 같은 어미가 붙는 용언과 호응하여 쓰인다. 어미 '-(으)르수록'과는 호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 같이 부사어와 연결 어미를 호응시키고 있다.

대단원 평가

236~241 쪽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예시 답안 ㉠은 '알다'의 불규칙한 활용형이므로 '안다'에서의 'ㄴ'을 어간 받침이라고 볼 수 없기에 <보기>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안다]로 발음이 실현된다. ㉡은 <보기>에서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단어이므로 [안따]로 발음이 실현된다. 09 ㉠ 10 예시 답안 ㉠은 어간과 형식 형태소의 결합이기에 연음이 발생한다. ㉡은 합성어이고, 자음으로 끝나는 앞말 뒤의 실질 형태소가 단모음 'ㅣ'로 시작하기 때문에 'ㄴ 첨가' 현상이 발생한 후 유음화가 이어진 경우이다.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예시 답안 (1) 직접 인용문: 어제 선생님께서 나에게 "함께 떡을 먹자."라고 하셨습니다. (2) 간접 인용문: 어제 선생님께서 나에게 함께 떡을 먹자고 하셨습니다. 25 ㉣

01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앞 음절의 끝소리가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가는 현상은 연음이다. 연음은 음운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은 음운 교체, ㉡는 음운 축약, ㉢은 음운 첨가, ㉣은 음운 탈락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음운 변동에 해당한다.

02 '생신[생신]', '하늘[하늘]'은 모두 글자(표기) 그대로 발음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밤물[밤물]'과 '훈련[훈련]'은 모두 원래 모습 그대로 소리 나지 않고, 환경에 따라 다르게 소리 나는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 ㉣ '꽃[꽃]', '물놀이[물로리]'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단어이다. ㉡, ㉤ '금요일[그요일]', '연필깎이[연필까끼]'는 연음으로, 음운이 다르게 소리 나는 음운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03 비음화와 유음화는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고 조음 방법만 바뀐다. '듣는다'는 뒤 음절 'ㄴ'의 영향을 받아 'ㄷ'이 'ㄴ'으로 바뀌어 [든는다]로 소리 나기 때문에 ㉠의 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생산량'은 2음절 한자어 뒤에 'ㄹ'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로, [생산냥]으로 소리 나기 때문에 ㉡의 예가 될 수 없다.

04 끝소리 'ㅌ'이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났으므로 '붙여[부쳐]'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 앞 음절 끝소리 'ㅌ' 뒤에 이어지는 형식 형태소가 모음 'ㅣ'로 시작하므로 구개음화를 적용하여 '날날이[난나치]'로 발음해야 한다.

②, ③ 앞 음절 끝소리 ‘ㅉ’ 뒤에 이어지는 형식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ㅀ’로 시작하지 않으므로 ‘끝을[끄틀]’, ‘햇볕에[헛 뼈테/해뼈테]’로 발음해야 한다.

⑤ 앞 음절 끝소리 ‘ㄷ’ 뒤에 이어지는 형식 형태소가 모음 ‘ㅣ’로 시작하므로 구개음화를 적용하여 ‘등받이[등바지]’라고 발음해야 한다.

05 ‘폭등’의 발음은 [폭똥]이 맞지만 받침 ‘ㄱ’ 뒤에 연결되는 ‘ㄷ’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므로 제23항으로 설명해야 한다.

06 ‘깎다’는 [깍따]로, ‘있다’는 [읷따]로 바뀌어 소리 나므로 탈락 없이 교체만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읷조리다’는 ‘읷조리다 → [읷조리다(읷조리다)] → [읷조리다] → [읷쪼리다]’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과 ㉡이 모두 적용된 경우이다. ‘읷다’는 ‘읷다 → [읷다] → [읷따]’의 과정을 거친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적용된 경우이다.

③ ‘새벽녘’은 ‘새벽녘 → [새벽녘] → [새병녘]’의 과정을 거치고, ‘읷사귀’는 ‘읷사귀 → [읷사귀] → [읷싸귀]’의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④ ‘겉모습’은 ‘겉모습 → [겉모습] → [건모습]’의 과정을 거치고 ‘물난리’는 ‘물난리 → [물란리] → [물랄리]’의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⑤ ‘땀다’는 ‘땀다 → [땀다] → [땀따]’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과 ㉡이 모두 적용된 경우이다. ‘땀다’는 ‘땀다 → [땀다] → [땀따]’의 과정을 거치므로, ㉠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07 ‘생산’과 ‘양’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양’이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곳에 위치하고 나머지 ㉠~㉢에 부합하는 요소가 없으므로 ‘생산량’으로 표기해야 한다.

08 표준 발음법 제24항에는 어간 받침 ‘ㄴ’과 ‘ㄹ’ 뒤에 결합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ㅆ’이 된소리가 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어간’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즉, ‘어간’이 아니라면 된소리되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출제 의도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① ㉠이 <보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유로 ‘안’의 받침 ‘ㄴ’이 어간 받침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면

정답으로 인정한다.

② ㉡이 <보기>의 적용을 받는 이유를 밝혔다면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은 받침 ‘ㄴ’이 어간 받침이 아니어서 <보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은 <보기>의 조건에 부합하여 [안따]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모두 서술한 경우	6점
㉠은 <보기>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안다]로 실현된다는 사실이나 ㉡은 <보기>의 조건에 부합하여 [안따]로 실현된다는 사실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3점

09 ㉠은 ‘크다’의 어간 ‘크-’가 어미 ‘-어서’와 결합하면서 ‘-’가 탈락한 경우이다.

오답 풀이 ② ‘사서’는 어간의 종성 모음 ‘ㅏ’가 양성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 앞에서 탈락한 것이다.

③ ‘써서’는 ‘ㅅ-+ -어서’이고 어간의 종성 모음 ‘-’가 음성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 것이다.

④ ‘따라서’는 어간의 종성 모음 ‘-’가 양성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 것이다.

⑤ ‘모아서’는 ‘모-+ -아서’이고 어간의 종성 모음 ‘-’가 양성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 앞에서 탈락한 것이다.

10 ㉠은 ‘들다’의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와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ㄹ’이 붙은 경우이다. 즉 어간과 형식 형태소의 결합이기에 연음이 발생한다. ㉡은 앞의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의 실질 형태소가 단모음 ‘ㅣ’로 시작하는 합성 어이기 때문에 ‘ㄴ 첨가’ 현상이 발생한 후 유음화가 일어난 경우이다. (<들일 → [들닐] → [들릴])

출제 의도 ‘ㄴ 첨가’ 후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이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유음화는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ㄹ’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다는 점을 밝히고, ㉡은 ‘ㄴ 첨가’ 후 유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라는 점을 구분하여 설명했는지 확인한다.

채점 기준	배점
㉠을 유음화가 일어나는 조건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이 ‘ㄴ 첨가’로 인해 유음화가 일어난 경우라는 점을 서술한 경우	6점
㉡에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와 ㉡에 유음화가 일어나는 이유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11 ‘먹어서’는 ‘먹- + -어서’이고 어간 ‘먹-’에 어미 ‘-어서’가 단순히 결합한 것이다. 또한 ‘가자’ 역시 어간 ‘가-’에 청유형 어미 ‘-자’가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모음 탈락’이 일어난 예시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원리’→[월리], ‘관람’→[팔람]

② ‘홀이불’→[홀이불]→[홀니불]→[훈니불], ‘속잎’→[속입]→[속닙]→[송닙]

③ ‘달힌’→[다틴]→[다친], ‘날날이’→[난나치]→[난나치]

④ ‘닭장’→[닥장]→[닥짱], ‘쌈숫다’→[쌈순다]→[쌈순따]

12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게 동작이나 행위를 당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주어가 제힘으로 특정 동작이나 행위를 행함을 표현하는 것은 능동 표현이다.

13 ②는 주격 조사 ‘께서’뿐만 아니라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 높임법이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대화의 상대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대화의 상대는 ‘서희’이며, 서술어 ‘가야 한대’에 사용된 종결 어미를 통해 상대를 높이고 있지 않았다. 또한 문장의 주체인 ‘동생’을 높이는 주체 높임법도 사용하지 않았다.

③ 대화의 상대가 특별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서술어 ‘만나 뵈겠습니다’에 사용된 종결 어미를 통해 상대를 높이고 있다. 문장의 주체인 ‘나(제)’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④ 대화의 상대는 특별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서술어 ‘건네셨대’에 사용된 종결 어미를 통해 상대를 높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장의 주체는 ‘어머니’이며 조사 ‘께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⑤ 대화의 상대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종결 어미를 통해 상대를 높이고 있다. 이 문장의 주체는 ‘친구’이며 ‘친구’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14 ①은 서술의 주체인 ‘어머니’를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높이고, 문장의 부사어가 지시하는 객체인 ‘할머니’를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드리다’의 용언인 ‘드리-’를 활용하여 높이고 있다. 따라서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이는 용언이 모두 나타나는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② 서술의 주체인 ‘선생님들’을 ‘계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통해 높이고 있지만 객체 높이는 용언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서술의 주체인 ‘아버지’를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높이고 있지만 문장의 객체인 ‘동생’은 높이고 있지 않다.

④ 문장의 객체인 ‘어른들’을 조사 ‘께서’와 특수 어휘 ‘어쭙다’를 활

용하여 높이고 있지만 서술의 주체인 ‘나’는 높이고 있지 않다.

⑤ 문장의 객체인 ‘할아버지’를 특수 어휘 ‘모시고’를 활용하여 높이고 있지만 서술의 주체인 ‘누나’는 높이고 있지 않다.

15 아버지의 발화에서 ㉠에서 생략된 표현은 ‘할머니를’임을 유추할 수 있는데 ‘뵈다’라는 특수 어휘를 활용하여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의 주체는 ‘나(아버지)’이며 주체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확인할 수 없다.

② ㉠은 ‘시간’을 높이면서 문장의 주체인 ‘아버지’에 대한 간접 높임을 실현하였다.

③ ㉠의 청자는 ‘아버지’로 높임의 대상이다. 하지만 서술의 객체는 ‘저(미주)’이다.

④ ㉠의 선어말 어미 ‘-시-’는 문장의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청자(미주)에 대한 높임은 실현되고 있지 않다.

16 ㉠은 문장의 주체인 ‘여학생들’이, ㉡은 문장의 주체인 ‘선생님’이 드러날 뿐 객체는 확인할 수 없는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의 청자는 ‘여학생들’이고, ‘여학생들’은 문장의 주체이다.

③ ㉡은 문장의 객체 ‘교감 선생님’을 특수 어휘 ‘모시다’를 활용하여 높이고 있다. 이 문장에서 생략된 것은 문장의 주체이다.

④ ㉠ 문장의 주체는 ‘저희’이며 ㉡ 문장의 객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과 ㉡이 ㉠ 문장의 주체와 ㉡ 문장의 객체 간의 대화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⑤ ㉡은 문장의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 ‘교감 선생님’을 높이고 있지만, ㉡은 문장의 목적어와 부사어를 확인할 수 없는 문장이다.

17 ㉠은 서술어 ‘도착하셨대’에 사용된 종결 어미를 통해, 비격식체의 상대 높임법 ‘해체’를 사용하고는 있다. 하지만 해체는 상대 낮춤 표현이므로 청자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8 ‘난 이제 죽었다.’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았-’은 ‘이야기 하는 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양 말할 때 쓰이는 선어말 어미’이다. 즉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는 상황에 사용된 표현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언급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 ‘막은’은 동사 ‘막다’의 어간 ‘막-’에 어미 ‘-(으)ㄴ’이 결합한 형태이다. ‘-(으)ㄴ’은 <보기>에 따르면 과거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고 현재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동사의 활용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형용사의 활용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①과 같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따라서 ‘막은’은 과거 시제이다.

20 ‘-아/-어 버리다’를 활용하여 공을 터뜨린 행위가 완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하는 중’은 숙제를 하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② ‘싸 가다’는 짐을 싸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④ ‘가면서’는 학교로 가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⑤ ‘앉고 있다’는 자리에 앉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21 ㉠은 바람이 모래 언덕을 만드는 행위를 제힘으로 하는 것을 표현한 능동문이다. 이를 피동문으로 바꾸어 쓰면 ‘모래 언덕이 바람에 의해 만들어졌다.’로 바꾸어 쓸 수 있는데, 이때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바람에 의해’)로 바뀌게 된다. 부사어는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문장 성분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① 강아지가 민수에게 안김을 당함을 표현한 문장이다.

② 안김을 당하는 주체인 ‘강아지’를 주어로 배치하여 강조할 수 있는 문장이다.

④ 피동 접미사 ‘-이-’와 또 다른 피동 표현인 ‘-어지다’가 중복으로 사용된 문장이다.

⑤ ‘계속 걷다 보니 어느 순간 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나누어졌다).’가 적절한 표현이다.

22 ④는 ‘-게 되다’를 사용하여 피동 표현을 완성했지만 피동 접미사를 사용한 사례라고 볼 수 없다. ‘보이게’에 사용된 ‘-이-’는 사동 접미사이다.

오답 풀이 ① ‘맺히지(맺히다)’는 ‘맺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은 피동 표현이다.

② ‘감기는(감기다)’은 ‘감다’에 피동 접미사 ‘-기-’가 붙은 피동 표현이다.

③ ‘걸린다(걸리다)’는 ‘걸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은 피동 표현이다.

⑤ ‘날리는(날리다)’은 ‘날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붙은 피동 표현이다.

23 간접 인용은 조사 ‘고’를 적절히 활용하여 인용된 말이나 글을 자신의 관점에서 다시 서술한다.

오답 풀이 ① 조사와 따옴표 사용이 잘못된 경우이다.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야 한다.

→ 그는 전부터 “난 뭐든지 혼자서 하는 게 편해.”라고 말했다. / 그는 전부터 자기는 뭐든지 혼자서 하는 게 편하다고 말했다.

③ 조사의 사용이 잘못된 경우이다.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야 한다.

→ 성훈이는 슬픈 눈으로 “이번에도 그녀가 웃지 않았다.”라고 푸념했다.

④ 조사의 사용이 잘못된 경우이다.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야 한다.

→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⑤ 직접 인용을 나타내기 위한 인용 부호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이다.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야 한다.

→ 경찰들은 “저희가 표시해 둔 금지선 안으로 넘어오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24 직접 인용문의 경우 원래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큰따옴표나 작은 따옴표에 넣어 인용하며 직접 인용된 절에는 조사 ‘라고’가 쓰인다. 간접 인용문의 경우 인용된 말이나 글을 자신의 관점에서 다시 서술하여 표현하며 간접 인용된 절에는 조사 ‘고’가 쓰인다.

출제 의도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표현의 차이를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평가 기준 직접 인용문과 간접 인용문을 조사나 따옴표의 조건을 갖추어 서술했는지 확인한다.

채점 기준	배점
직접 인용문과 간접 인용문을 모두 바르게 쓴 경우	6점
직접 인용문과 간접 인용문 중 조사의 사용이나 따옴표의 사용이 일부 잘못된 경우	각 2점

25 학술적인 글을 쓸 때는 정확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다의적 문장으로 쓰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또한 만연체의 문장을 쓰지 말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써야 한다.

4 민주 시민의 대화

01 논증 파악하며 읽기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장대익

확인 문제

249~253쪽

01 ⑤ 02 ① 03 ⑤ 04 ④ 05 **예시 답안** 높은 성취를 얻었지만 외적 보상보다는 내재 동기를 추구하며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06 ② 07 ⑤ 08 ② 09 ①

01 설의적 질문은 묻는 사람이 이미 정답을 정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인 질문 형식이다. 본문에 제시된 ‘그렇다면 우리는~어떤 것에 따라서 살아야 할까?’는 설의적 질문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어떤 동기가 필요할지 생각해 보도록 만들기 위해 던진 질문이다.

오답 풀이 ① 행동에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의 기준에 따라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② 중심 화제인 ‘동기’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③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를 쉽게 이해하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가 선물을 주는 것, 과학이 단지 재미있어서 공부하는 것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④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실험을 소개하였다. 주장하는 글에서 실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 자료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구성하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02 글쓴이는 행동에 작용하는 요인이 행동 자체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를 구분하고 있다. 학교에서 주는 상은 외적 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줌은 행동은 외재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아이를 도와주려는 마음, ③ 기록이 단축되는 즐거움, ④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서 얻는 재미, ⑤ 예쁜 케이크를 직접 만들고 느끼는 보람은 모두 행동 자체에서 얻는 본질적 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②~⑤의 행동에는 내재 동기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03 이 글의 3문단에서 외적 보상이 있다고 알려 준 뒤 원래 문제를 그대로 풀게 했을 때, 오히려 외적 보상이 없을 때보다 3분이 더 걸렸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상을 준다는 말을 하지 않고 풀라고 하니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평균 15분이 걸렸다.’라고 하였다.

② 외적 보상이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쉽게 조정되자 처음에 15분이 걸린 문제를 대개 15분 이내로 풀 수 있게 되었다. 즉 외적 보상이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쉽게 조정되자 문제 풀이 시간은 단축되었다.

③ ①은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동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④ 창의력을 요구하는 원래 난도의 문제는 외적 보상이 없을 때가 더 효율적이었다. 따라서 외적 보상이 언제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04 외적 보상을 좇아 더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외재 동기의 장점에 해당한다.

05 높은 성취를 보여 남들이 인정하는 큰 상과 같은 외적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재 동기를 추구하며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06 글쓴이는 기존에 잘 알려진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책 제목을 활용하면서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내재 동기’라는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책의 중심 생각과는 다른 내용으로 활용하였으므로 기존의 책이 글쓴이의 주장에 신뢰성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평범한 사람들과는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반론을 제시한 뒤 이를 반박하면서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③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독자에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 질문은 서론 부분에서 제시했던 ‘우리는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 중 어떤 것에 따라서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과 짝을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독자들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도록 하여 내재 동기를 추구하는 삶에 관한 독자의 생각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④ 이 글의 제목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이다. 이 제목은 잘 알려진 책의 제목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와 연결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 글의 제목을 들으면 ‘칭찬’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글쓴이는 조련사의 칭찬이 아니라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자유’로 상징되는 내재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에서 ‘고래’는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인간을, ‘조련사의 칭찬’은 외적 보상을,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자유’는 내재 동기에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의미하는 비유적 표현이다.

⑤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하는 직원', '끊임없이 경쟁에 시달리는 고등학생'은 내재 동기를 찾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사례이다. 글쓴이는 이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하면서 '내재 동기를 등한시한다면~불행해진다.'와 같이 내재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07 ㉠ '수많은 찬사', ㉡ '상', ㉢ '남과의 경쟁에서 승리', ㉣ '조선사의 칭찬'은 모두 외재 동기와 관련이 있다. ㉤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자유'는 내재 동기와 관련이 있다.

08 행동 자체로부터 제공되는 본질적 보상에 의해 내재 동기가 작용하는 것이므로, '외부의 요구'는 내재 동기와 관련이 없다. 글쓴이는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할 때에 내재 동기가 나온다고 서술하고 있다.

09 글쓴이는 '진정한 기쁨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인터뷰를 인용하고, '내재 동기를 등한시한다면~불행해진다.'와 같은 서술을 통해 내재 동기에 따른 삶을 살아야 행복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글쓴이는 삶에서 외재 동기를 추구하는 태도의 부정적인 측면과 내재 동기를 추구하는 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주로 서술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외재 동기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④ 글쓴이는 외재 동기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재 동기를 추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내재 동기를 외재 동기로 확장해야 한다고는 서술하지 않았다.

⑤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내재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라는 질문이다.

(2) 과학 연구 자체에서 느끼는 재미는 행동 자체에서 발생하는 '내재 동기'이다.

02 이 글에서는 외재 동기를 내재 동기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서론에서 동기의 뜻에 대해 알 수 있다.

② 서론에서 동기의 종류에 대해 알 수 있다.

③ 본문 ㉠에서 외적 보상의 단점에 대해 알 수 있다.

④ 본문 ㉡, 결론에서 내재 동기를 따를 때의 장점에 대해 알 수 있다.

03 이 글의 제목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제목에서 가져온 것이다. 글쓴이는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칭찬'이라는 외재 동기가 아니라,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하여 행동하게 하는 내재 동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잘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은 '칭찬'이 중요하다는 통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은 외적 보상인 '칭찬'이라는 단어를 제목에서 제외하고 내재 동기를 강조한다. 따라서 '칭찬'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자유'는 자신이 직접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내재 동기를 발생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중요한 것이지, '칭찬'이라는 외적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③ 이 글의 글쓴이는 제목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칭찬(외적 보상)'이 아닌 '자유(내재 동기)'를 제시하며 내재 동기를 따르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통념(=칭찬의 중요함)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기회를 준 것이지, '통념' 자체를 깬으로써 진정한 기쁨을 느끼게 하고 있지는 않다.

04 본문 ㉠의 사례(보상이 있을 때 어려운 문제를 푸는 시간이 오히려 길어졌음을 보여 준 실험)는 '외재 동기는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문제를 푸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작은 결론(이유)과 '내재 동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자.'라는 주장을 도출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오답 풀이 ① 실험의 내용은 글쓴이의 주장과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는 논증 요소이지만, 주관적 진술은 아니다.

② 실험은 '이유'의 근거가 되고 있다.

③ 최종 결론인 '주장'은 '내재 동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자.'이다.

⑤ 글쓴이의 의견에 제기할 수 있는 의문, 반대 의견을 '반론'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반론에 대해 글쓴이가 다시금 내세

활동 응용 문제

• 254~259 쪽

- 01 (1) 외 (2) 내 (3) 외 02 ⑤ 03 ④ 04 ④ 05 ⑤ 06 ③
 07 (1) ○ (2) × (3) × 08 ⑤ 09 **예시 답안** 참고 10 ③ 11 ⑤
 12 백성을 쫓먹는 무리들을 내버려두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01 (1), (3) 큰 상, 부모님의 선물을 얻고 싶어서 행동하는 것은 행동의 동기가 행동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외재 동기'이다.

우는 주장은 '반박'이라고 한다. 본문 ㉠의 실험은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역할이지 반대하는 역할은 아니다.

05 <보기>는 본문에서 사례로 든 세 사람은 큰 상을 받고 높은 성취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재 동기의 만족감을 더 크게 강조하는 것은 아 니나는 반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보다 외재 동기의 유혹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즉 이들은 상을 자주 받고 경쟁에서 종종 이겼으므로 외적 보상에 더 쉽게 이끌릴 수 있는 환경에 놓일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 외재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진정한 기쁨은 내면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재 동기가 중요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반론에 대한 글쓴이의 반박으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평범한 사람도 내재 동기를 따라 살아야 행복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도 내재 동기를 따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② 글쓴이는 외적 보상을 추구하면 항상 더 큰 보상을 주어야 하는데, 나중에는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③ 글쓴이는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은 외재 동기보다 내재 동기가 컸다고 말하고 있다. 즉 더 큰 외재 동기를 추구하여 이룬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④ 글쓴이가 사례로 든 사람들은 외적 보상으로 받은 큰 상보다 행동 자체에서 느끼는 성취감에서 더 행복을 느꼈다.

06 이 글의 본문 ㉡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근거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귀납 논증이 사용되었다. 이 논증 방법은 사례가 충분하다면 결론이 타당할 수 있지만, 사례가 너무 특수하거나 부족한 경우 결론의 타당성이 떨어진다. <보기>는 근거로 들고 있는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거리가 먼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의 사례도 3가지뿐이므로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오답 풀이 ①, ④ <보기>는 출처,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다.

② <보기>는 귀납 논증을 쓴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은 아니다.

⑤ 이 글은 세 사례를 근거로 본문 ㉠, 본문 ㉡의 소결론을 비롯해 결론에서 내재 동기를 따르는 삶을 살자는 글쓴이의 주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07 (1) 본문 ㉡에서는 예상되는 반론으로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다.'를 제시하고, 이를 반박하면서 주장을 강화한다.

(2) 일반적 법칙에서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 내는 방법은 연역 논증이다. 본문 ㉡에서는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의 구체적 사례로부터 내재 동기를 따르는 삶을 살자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귀납 논증을 사용하였다.

(3) 하나의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대립시키면서 새로운 진리를 이끌어 내는 논증 방식은 변증법으로, 이 글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08 빈칸의 내용은 본문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추론해야 한다. 외적 보상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과 내재 동기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는 삶에서 외적 보상만을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삶은 쉬운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가 많으므로 외적 보상만을 추구하면 삶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외적 보상이 내재 동기를 끌어낸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외적 보상은 내재 동기를 따르는 삶에 효과적인 것이 되어 이유와 어긋나게 된다.

② 내재 동기는 쉬운 문제에 비효율적이라는 근거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외적 보상을 외면하면 삶의 어려움에 봉착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외적 보상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주장과는 어긋나게 된다.

09 **예시 답안** • 삶에는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타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외재 동기보다 내재 동기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 내재 동기를 따르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례를 추가하여 설득력을 높인다.

• '칭찬'과 '고래'의 비유가 기대고 있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에 대해 언급하여 서론과 결론에서 사람들의 통념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며 비유의 의미를 더 명확히 표현한다.

평가 기준 독자의 반론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여 논증을 보완해야 한다. 단, 논증의 재구성이나 보

완 과정에서 '내재 동기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행복하다.'라는 주장을 약화시키거나 이에 벗어나는 내용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글쓴이는 낡아 버린 행랑채를 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글을 전개하고 있다. 글에서 행랑채를 수리하려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두 칸의 재목들은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 있었다고 하였다. 아직 상태가 온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비를 한 번밖에 맞지 않은 한 칸의 재목이다.

11 「이옥설」은 두 가지 이상의 대상(=집, 사람, 정치)이 비슷한 속성(=일종의 구조물이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인간이 노력하여 변화시킬 수 있다.)을 지닌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오래된 문제를 고치기는 어렵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고친다면 쉽게 고칠 수 있다.)이라는 결론을 끌어 내는 유비 논증을 따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조건을 바꾸지 않았다.

- ② 연역 논증에 대한 설명이다.
- ③ 귀납 논증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서로 다른 주장이 제시되거나 이를 반박하지 않았다.

12 표에 제시된 '집'과 '사람'의 공통점은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정치'의 내용은 '백성을 쯤먹는 무리들을 내버려두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이다.

소단원 평가

• 262~266 쪽

- 01 ① 02 ③ 03 ④ 04 ④ 05 ② 06 ① 07 (1) 예시 답안
참고 (2) 예시 답안 참고 08 ③ 09 ⑤ 10 ⑤ 11 ②
12 예시 답안 참고 13 ⑤ 14 ⑤ 15 ① 16 예시 답안 참고

01 이 글에서는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근거로 활용하여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험은 객관적·사실적 근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가)에서는 동기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동기의 종류를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를 합쳐서 동기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기의 구성 요소를 분석한 것은 아니다.

③ (나)의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 중 어떤 것에 따라서 살아야 할까?'는 답을 정하고 묻는 설의적 질문이 아니다. 독자가 이 질문을 통해 어떤 동기를 따라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고 이 글을 통해 그 답을 찾기를 바라는 글쓴이의 질문인 것이다.

④ (마)에 제시된 구체적인 사례는 외재 동기의 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의 장단점을 모두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에서 동기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동기의 원천, 즉 무엇으로부터 동기가 발생하는가에 관해서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

02 <보기>는 여행의 동기에 대해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학생 3은 '남들의 부러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조회 수', '찬사'와 같은 외적 보상을 위해 여행하고 있으므로 외재 동기에 의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학생 1은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이라는 내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며 여행을 다니고 있으므로, 내재 동기에 따라 행동한 사례이다.

② 학생 2는 새로운 경험과 같이 여행 과정에서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내재 동기에 따라 행동한 사례이다.

④ 학생 4는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원하는 옷'이라는 외적 보상에 따라 행동하였으므로 외재 동기에 따라 행동한 사례이다.

⑤ 이 글에서 외적 보상을 좇는 사람들은 원하는 외적 보상이 점점 커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외적 보상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학생 3, 4는 앞으로 더 큰 외적 보상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다.

03 <보기>는 부모가 제공하는 외적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이다. 그러나 이 글의 글쓴이는 외적 보상의 한계와 문제점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글쓴이는 (마)에서 외적 보상을 주는 부모의 마음에는 공감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보기>에서 말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반응은 자연스럽다. 글쓴이는 또한 외적 보상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지게 되어 한계에 봉착한다고 지적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한 ④가 가장 적절한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외재 동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외재 동기에 대

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어떤 동기든 사용해야 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③ 외재 동기를 내재 동기로 바꾸는 방법은 이 글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⑤ 동기의 종류가 아니라 문제의 종류를 중요시하는 것은 이 글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

04 (다)의 실험에서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은 경우는 문제를 푸는 데에 평균 15분이 걸렸는데,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보상을 준다고 하자 오히려 18분 정도 걸리면서 문제를 푸는 속도가 3분이나 느려졌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외적 보상의 선호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② 원래 문제를 쉽게 조정한 후 외적 보상 없이 풀도록 한 상황은 언급하지 않았다.

③ 창의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쉽게 조정하거나 그대로 낸 것이므로 단순 지식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⑤ 이 실험은 문제 풀이 과정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았다.

05 <보기 2>에서 숨겨진 논증의 요소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외재 동기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에서 ‘내재 동기에 따르는 삶을 살자.’라는 주장으로 연결될 때는 ‘삶에는 어려운 문제가 많다.’라는 전제가 숨겨져 있다. 이를 명시적으로 드러낸다면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의 실험은 아이들이 문제를 푼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③ <보기 2>에서 의미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할 때는 속담이나 격언의 뜻을 분명히 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속담이나 격언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모호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귀납 논증은 사례를 여러 개 모아서 결론을 끌어내는 논증 방법이다. 사례를 늘릴수록 논증이 참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명료성을 높인다고 비슷한 실험 사례를 여러 개 반복해서 제시할 필요는 없다.

⑤ 성과급 규정이 있는 회사의 사례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하므로, 명료성을 높이기 위해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6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과 관련지어 글쓴이의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 즉 예상되는 반론을 고른다. 빈칸 후 이어지는 문장에서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게끔’, ‘유능한 직원을 데

려오려고’라는 단서가 나오는데, 이것은 부모나 회사 대표가 원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위해 외재 동기를 동원한다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외적 보상은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므로 외재 동기가 내재 동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어렵다는 글쓴이의 입장과 일치한다. 따라서 예상되는 반론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외적 보상이 내재 동기를 끌어낸다는 내용을 글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예상되는 반론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글에서 외재 동기를 추구하는 것이 누구의 문제인지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예상되는 반론으로 적절하지 않다.

07 (1) **예시 답안** (라)에서 외적 보상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된다.’라고 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는 상황에서 ㉠과 같은 문제가 생긴 원인은 성과급을 받는 데 유리한 업무를 선호하고 오랫동안 노력을 들여야 결과를 얻는 어려운 업무를 사람들이 기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2) **예시 답안** (마)에서 외적 보상을 좇는 사람들의 경우, ‘남들과도 끝없이 비교하게 되어 마음이 황폐해’진다고 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와 같은 문제가 생긴 원인은 외적 보상을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고 갈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 외적 보상이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① (라), (마)의 내용을 바르게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의 원인을 서술해야 한다.

② (라)에서 ‘성과급이 있는 회사는 역설적으로 쉬운 업무만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만을 언급할 때는 <보기>와 동일한 상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마)에서 ‘조직 내에 시기와 질투, 갈등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을 언급할 때는 정답으로 인정한다.

(1) 채점 기준

채점 기준	배점
(라)에서 외적 보상은 어려운 문제에 방해가 된다는 내용과 오랜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하는 업무는 어렵기 때문에 외적 보상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내용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라)의 내용만을 서술하고 ㉡에 대한 원인은 서술하지 않은 경우	1점

(2) 채점 기준

채점 기준	배점
(마)의 다음 내용 중 한 가지를 서술하고 ㉔의 원인으로 외적 보상을 비교하며 마음이 황폐해졌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남들과 끝없이 비교하게 되기 때문이다. • 외재 동기만을 가진 직원이 많은 조직은 경쟁과 비교, 시기와 질투, 배신과 지배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 보상을 주는 사람과 끝없이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3점
(마)의 내용만을 서술하고 ㉔에 대한 원인은 서술하지 않은 경우	1점

08 (바)에서 ‘내재 동기를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주변의 시선이나 환경에 휩쓸리는 인생을 살게 되어 불행해진다.’라고 언급하였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이들(큰 상을 받은 사람들)은 평생 수많은 찬사를 받아 왔다. 우리보다 외재 동기의 유혹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② 상을 받을 만한 연구인지 평가하는 것은 왕립스웨덴과학아카데미이다. 파인먼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기쁨이고, 다른 사람이 그 발견을 활용하는 모습이 자신에게는 큰 상이라고 하였다.

④ 글쓴이가 허○○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학자의 내재 동기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감탄하였다.

⑤ 임○○ 씨는 자신의 음악이 얼마나 성숙하였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대회에 참여한 것이지 타인에 비해 우위에 있음을 보여 주려고 출전한 것은 아니다.

09 글쓴이는 외재 동기는 점점 외적 보상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외적 보상이 충족되면 내재 동기로 전환된다는 등의 주장은 펼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③ 제시된 사례가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특수한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를 보충하여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

10 <보기>는 연역 논증이다. ㉔는 일반적인 법칙, ㉕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이고, ㉖를 ㉔에 적용하여 ㉗라는 새로운 구체적 사실을 결론으로 끌어낸다. 제시된 지문에서는 허○○ 교수, 물리학자 파인먼, 피아니스트 임○○씨의 사례를 종합하여 결론을 끌어내는 귀납 논증이 사용

되었다. 귀납 논증은 근거가 되는 사례들이 모두 진실이라고 해도, 결론의 타당성·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무조건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 가운데 결론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사례가 있다면 결론이 곧바로 부정되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귀납 논증, <보기>는 연역 논증이 사용되었다.

② 이 글에서 허○○ 교수, 파인먼, 임○○ 씨는 구체적 사례에 해당하고, <보기>의 ㉔는 일반적 법칙에 해당하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③ 이 글의 ‘진정한 기쁨은 내면으로부터 나온다.’는 결론에 해당하고, <보기>의 ㉕는 사례에 해당하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④ 이 글의 논증 방법인 귀납 논증은 사례를 더 많이 제시할수록 결론의 타당성이 높아지지만, <보기>는 ㉔의 개수와 상관없이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도 참이 된다.

11 일을 잘하는 직원이 ㉠과 같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할 뿐,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일할 기회가 없어 내재 동기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적절한 외적 보상으로 볼 수 있다.

③ 일을 잘하는 직원이라고 하였으므로 상사가 만족할 만한 업무 능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④ 외적 보상의 선호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외재 동기가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재 동기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자신이 원하는 업무를 선택할 수 없고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하기 때문이지, 원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한 불만으로 볼 수 없다.

12 **예시 답안** ㉠은 외재 동기, ㉡은 내재 동기에 해당한다. (가)에서 ㉠과 성격이 유사한 구절은 ‘언론에 주목받는 것’이다. ㉡과 성격이 유사한 구절은 허○○ 교수가 스스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재미있어서, 인간이 얼마나 깊게 생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이다.

출제 의도 비유적인 표현을 주제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① (가)에서 마라톤과 근력 운동은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꾸준히 수학을 공부하는 일에 관한 것이지 외재 동기, 내재 동기의 문제가 아니므로 이를 서술한 경

우는 오답 처리한다.

- ② 구절을 그대로 적지 않더라도 중심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면 정답으로 인정한다.
- ③ ‘재미’와 ‘인간이 얼마나 깊게……’ 중 한 가지만 써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은 외재 동기, ㉡은 내재 동기라는 점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과 유사한 구절로 ‘언론에 주목받는 것’과 ㉣과 유사한 것으로 재미있어서, 인간이 얼마나 깊게 생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4점
㉠은 외재 동기, ㉡은 내재 동기라는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성격이 유사한 구절은 ㉢과 ㉣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2점
㉠은 외재 동기, ㉡은 내재 동기라는 내용만 서술한 경우	1점

- 13** 통시적 관점은 시간의 흐름을 관통하여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은 시대적 흐름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이옥설」의 문학 갈래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끌어내는 ‘설(設)’이다. 이는 현대의 수필과 가깝고 교술 문학에 해당한다.

② ‘비가 샌 지 오래된 것’과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재목들’을 대조하며 잘못에 바로 대처하면 금방 고칠 수 있다는 깨달음을 효과적으로 제시한다.

③ ‘어찌 행동을 조심히 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은 ‘행동을 조심히 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전제하고 묻는 설의적 질문이다.

④ ‘비가 샌 지 오래된 것’,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는 것’,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과 같이 문제가 지속되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며 지금 당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4** 이 글은 둘 이상의 대상이 갖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유비 논증을 사용하였다. 집, 사람, 정치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가)에서 집을 수리하며 얻은 깨달음을 (나), (다)에도 적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귀납 논증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글에서는 (가)에서 끌어낸 결론을 (나), (다)에 적용하는 유비 논증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② (가)에서 ‘비가 샌 지 오래된 것’과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것’을 대조하고 있지만, (가)와 (나)를 대조하지는 않았다.

③ 이 글에서 (가)를 (나)의 보편적 법칙에 적용한 것은 아니다.

④ 이 글에서 (나)는 (가)에 대한 반론이 아니고 (가)를 확대 적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15** ㉠은 비가 샌 지 오래된 두 칸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문제를 가리키고, ㉡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으로, 방치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문제를 가리킨다.

오답 풀이 ② ㉠은 ㉡보다 수리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하였다. 즉 비용과 관련된 문제는 ㉠, ㉡ 모두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글쓴이는 삶의 가치, 깨달음을 얻고 있다.

③ ㉠은 행랑채의 수리를 망설여서 늦어진 것이지 처리할 수 없었던 문제가 아니다.

④ ㉡은 잘못된 상황에 바로 대처한 것으로, 잘못된 대책으로 볼 수 없다.

⑤ ㉠은 글쓴이가 비가 샌 것을 알고서도 수리를 망설이다 문제가 심화되어 수리한 경우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내부적인 원인으로 인한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과 ㉡ 모두 ‘비’라는 외부적 원인으로 인한 문제가 있으므로 ㉠과 ㉡을 각각 내부와 외부의 원인으로 인한 문제라고 나누어 설명할 수 없다.

- 16** **예시 답안** (나)의 사례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서도 그것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다. (다)의 사례는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그냥 내버려두었다가는 백성들이 오히려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출제 의도 유비 논증을 사용한 글에서 유사한 내용을 찾아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① (나)에서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려 하지 않으면……’ 부분을 서술하는 것은 오답이다. 이 부분은 잘못을 고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즉 잘못을 바로 고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② (다)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급하게 바로잡으려 한다’, ‘행동을 조심히 해야 한다’를 서술하는 것은 오답이다. ㉡은 ‘문제를 방치하여 생긴 부정적 상황’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이다.

③ (나)의 ‘나무가 썩어 쓰지 못하게 되는 것’과 (다)의 ‘이미 썩어 버린 재목’을 서술하는 것은 오답이다. 이 사례들은 (가)의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채점 기준	배점
(나)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고서도 그것을 바로 고치지 않아 자신이 나쁘게 된 상태’와 (다)에서 ‘백성을 좀먹는 무리를 내버려두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4점
(나)와 (다)의 사례 중 한 가지 내용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02 논증하고 토론하기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

+ 확인 문제

• 273~283쪽

01 쟁점 02 ④ 03 ⑤ 04 난민 수용 후 경제 성장을 이룬 독일의 사례와 서유럽 국가에 난민이 이주한 후 경제가 성장했다는 프랑스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 05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졌다. 06 ② 07 ⑤ 08 국가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09 ② 10 ① 11 반대 측의 발언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않고 끼어들어 발언하고 있다. 12 ② 13 ⑤ 14 (1) 난민 (2) 준비 없이 난민을 수용하는 행위

01 토론에서 찬반 양측이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서로 치열하게 맞대결하는 세부 주장을 ‘쟁점’이라고 한다.

02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인가는 사실 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 입장이 있을 수 없다.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은 주로 문제의 심각성,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나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 실행에 따른 효과와 이익 등이다.

03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입론의 첫 문단에서 ‘난민’과 ‘난민 인정률’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② 입론의 세 번째 문단에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에 못 미친다는 사실과, 이는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심각한 문제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③ 입론의 네 번째 문단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④ 입론의 다섯 번째 문단에서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난민 보호와 경제 성장이라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04 <보기>는 필수 쟁점 중 문제 해결 방안의 효과와 이익에 대한 것이다. 이 쟁점에 대해 찬성 1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세부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로, 난민 수용 후 경제가 성장한 독일의 사례와 서유럽 국가의 사례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05 반대 2는 반대 신문을 시작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와 같이 찬성 1의 입론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06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반대 2가 반대 신문에서 지적한 사항이다.

오답 풀이 ① 입론 첫 번째 문단에서 신문 기사를 근거로 삼아 우리나라는 난민이 많이 찾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③ 입론의 두 번째 문단에서 국민들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 리서치의 여론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④, ⑤ 입론의 세 번째 문단에서 난민 수용 시 범죄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외국인 대상의 범죄가 발생한 해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07 찬성 1은 반대 측이 제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난민의 범죄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파악한 것이지 실제 범죄 사실을 파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반대 1 역시 찬성 측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실제 범죄율이 아니라는 지적은 맞습니다.”와 같이 인정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반대 1이 논거로 삼은 여론 조사는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담은 것이므로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는 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② 반대 1은 여론 조사가 ‘유엔(UN)난민기구와 ○○ 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 조사’라고 출처와 조사 시기를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한 반대 신문이 될 수 없으며, 실제로 찬성 1이 문제 삼고 있지도 않다.

③ 찬성 1은 반대 1이 제시한 여론 조사에서 난민 수용을 찬성하는 비율이 늘었음을 지적하였으나, 여론 조사 수치를 잘못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 1이 제시한 통계 자료의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여 반대 신문을 하고 있으며, 통계 수치 중 어떤 부분을 강조하여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찬성 1은 반대 1이 제시한 여론 조사를 근거로 질문하고 있다. 다른 자료를 찾아 제시하지는 않았다.

+ 배경지식 더하기

논거

논제가 올바르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논리적인 근거이다. 통계적인 수치나 역사적 자료처럼 객관적인 사실이나 지식 등을 바탕으로 한 사실 논거가 많을수록 글이나 말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08 찬성 2는 입론에서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첫 번째 주장은 두 개의 전제를 통해 결론을 끌어내는 연역 논증을 사용하였는데, 그중 대전제는 ‘국가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이다.

09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특수한 경우를 근거로 들며 마치 전체가 그러한 것처럼 성급하게 일반화함으로써 빚어지는 논리적 오류이다. 찬성 2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와 예멘 난민의 사례를 들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반대 1은 이 두 가지 사례 중에서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에 있던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사례를 난민 전체에 적용하는 것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반대 1은 물질적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간접 지원이 세계적 추세라는 의견은 아니다.

③ 찬성 2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인격을 비난하지 않았으며, 반대 1이 이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④ 찬성 2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의무에 대해 언급하였을 뿐 감정적으로 호소한 것이 아니며 반대 1이 이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⑤ 난민을 수용한 사실과 경제가 성장한 것이 단순히 선후 관계인지 인과 관계인지에 대해 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해 볼 수는 있지만 찬성 2의 입론이 아니므로 현재 반대 신문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반대 1이 이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배경지식 더하기

논증의 오류

인신공격의 오류	논거의 부당성보다는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 외모 등 남의 신상에 관한 일을 들어 비난하여 그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오류
동정에 호소하는 오류	논리와는 관계없이 상대방의 동정심에 호소하여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논리적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특수한 경우나 몇몇의 사례를 근거로 마치 전체가 그러한 것처럼 성급하게 일반화함으로써 빚어지는 논리적 오류
부적절한 결론의 오류	단순한 선후 관계가 있는 논리를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잘못 추리하여 결론을 내리는 논리적 오류

10 반대 2의 입론은 반대 1의 입론을 보충하거나 반대 1이 미처 말하지 못한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게 된다. 이 토론

에서 반대 2는 찬성 1이 입론에서 주장한 ‘난민 인정률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에 대해 우리나라의 준비가 부족한 현실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11 ㉠은 반대 2의 입론 도중에 찬성 2가 끼어들어 반박한 것으로, 발언 순서를 지켜야 한다는 토론 규칙에 어긋난 행동이다.

12 반대 2는 난민 인정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만, 난민 심사를 진행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찬성 2는 심사 인력이 부족하다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은지 질문함으로써 반대 2의 발언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반대 2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를 들어 인력 부족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였다.

④ 반대 2의 발언은 난민 심사의 현실적 어려움, 난민 정착 제도의 미비라는 두 가지 측면을 다루었으며 논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⑤ 반대 2가 인력 부족을 반대의 이유로 든 것에 대해 찬성 2가 도덕성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13 찬성 2는 난민을 ‘문밖에서 생명의 위협에 쫓겨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 비유하고,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들을 ‘청소도 하고, 드릴 음식도 마련해야 해요.’라고 말하는 것에 비유하며 난민의 위급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반대 측의 입장을 지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찬성 2는 반대 2의 발언의 모순을 지적하며 반박하고 있지, 반대 2의 논지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

② 찬성 2의 질문은 ‘예/아니오’로 답변하게 되는 폐쇄형 질문이다. 토론의 반대 신문은 상대방의 허점을 지적하거나 논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폐쇄형 질문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만약 개방형 질문의 형태를 취한다면 ‘난민 심사에 필요한 인력은 어떻게 총원할 수 있을까요?’, ‘난민 심사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난민을 수용할 준비가 된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와 같은 형식이어야 한다.

③ ‘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할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와 같이 상대의 발언을 재진술하고 있지만 이는 자기 발언을 검토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반대 신문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④ 찬성 2는 반대 2에게 질문을 하면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반대 2의 질문을 찬성 2가 반복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14 반대 신문의 비유적 표현이 가리키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찬성 2	생명의 위협에 쫓겨 문을 두드리는 사람	난민
	준비가 덜 되었으니 기다리라는 사람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들
반대 2	선불리 문을 열어 주려는 사람	난민을 바로 수용해야 한다는 이들
	우리 가족의 안정	국민의 안정

활동 응용 문제

• 284~289쪽

01 ③ 02 ㄱ, ㄴ, ㄷ 03 ③ 04 ⑤ 05 ⑤ 06 ① 07 ④
08 ④ 09 ③ 10 ⑤ 11 ③

01 <보기>는 공장식 축산이라는 사육 방법에 대한 찬반을 다루는 정책 토론의 준비 과정이다. 정책 논제는 긍정의 평서문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현실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작성해야 한다. 정책 논제는 찬성 측의 주장과 같다.

오답 풀이 ① 사실 논제로 다루거나 <보기>의 정책 논제 가운데 필수 쟁점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다.

②, ⑤ 논제는 긍정문, 평서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④ 정책 논제는 현실을 바꾸는 쪽으로 작성한다.

02 사회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토론의 시작 및 마무리
- 토론 발언 순서 안내
- 토론의 규칙 및 유의 사항 안내
- 토론 논제 제시 및 토론의 배경 설명
- 논제에서 벗어나는 발언이나 규칙을 어기는 행위 등에 대한 주의를 비롯해 토론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발언

오답 풀이 ㄹ. 상대측에 대한 반대 신문은 토론자의 역할이다.

03 토론의 평가는 토론 후에 이루어진다. 토론의 준비 과정에서는 시의성,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토론 논제를 선정하고, 토론에서의 역할과 논제에 관한 입장을 결정하여 그에 맞게 자료를 조사한다. 토론을 위해 토론 개

요서를 작성하며 논제의 필수 쟁점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 논증을 구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측의 반론을 예상하고 적절한 반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논제와 관련한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토론 개요서를 바탕으로 입론을 작성한다.

04 정책 토론에서의 필수 쟁점은 문제의 심각성, 문제 해결 가능성이나 실행 가능성, 효과나 이익 등이다. 반대 측은 문제 해결로 얻는 효과보다 문제 해결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문제 해결의 효과를 부정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찬성 측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해결 방안의 실행 가능성을 입증한다.

③, ④ 반대 측은 문제의 심각성을 부인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한다.

05 <보기>는 공장식 축산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공장식 축산으로 생산된 육류와 그렇지 않은 육류의 가격을 비교한 자료를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논제는 '공장식 축산을 금지해야 한다'이며, 이는 찬성 측의 주장이 된다. <보기>의 주장은 '공장식 축산은 인간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으로 공장식 축산의 장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반대 측 입장이다.

② <보기>는 '문제의 심각성'이 아니라 '효과나 이익'에 대한 쟁점에 해당하며,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 저렴한 가격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이익을 제시하고 있다.

③ 근거로 자료를 활용할 때는 해당 자료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출처를 밝혀 자료의 신뢰성도 함께 검증해야 한다.

④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구체적 사례에서 결론을 끌어내는 것은 귀납 논증이다.

06 <보기>는 동물 사료 재배로 인해 숲이 파괴되고, 가축들의 메탄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례이다. 이는 공장식 축산이 지구 환경을 파괴하므로 인간에게 이롭지 않다는 주장을 끌어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보기>의 두 사례 모두 동물의 고통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장식 축산이 동물에게 고통을 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

③ <보기>의 두 번째 사례는 사료 생산과 무관하기 때문에 사료의 국내 생산을 주장할 수 없다.

④ <보기>의 사례는 소뿐만 아니라 육류로 소비되는 다른 가축에도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도출할 수 없다.

⑤ <보기>의 두 번째 사례는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부분을 설명하기 어렵다.

07 반대 신문에 대한 답변은 첫 번째 입론 이후에 진행되므로 첫 번째 입론에 포함할 수 없다. 찬성 측의 첫 번째 입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논제의 필요성과 논제가 제기된 배경
- 토론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 현실의 문제점과 이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
- 문제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 방안의 실행 가능성
- 문제의 해결 방안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와 이익

08 양측의 입론과 반대 신문이 모두 진행된 뒤에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반론이 진행된다.

오답 풀이 ①, ⑤ 정책 논제의 경우 논제가 찬성 측의 주장이며 찬성 측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고, 입증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찬성 측이 토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측면에서 먼저 발언하게 되며, 마지막 발언도 찬성 측이 하게 된다.

②, ③ 입론 이후에는 반대 신문이 있으므로 입론이 2회라면 반대 신문도 2회 진행할 수 있다.

09 반대 신문은 상대측의 입론 내용을 토대로 하며(㉠), 상대측 논증의 허점을 찾아서 질문해야 한다(㉡). 또한 반대 신문에서는 상대측 논거의 사실성, 타당성, 공정성 등을 검증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상대측의 주장이나 근거 가운데 적절한 것은 인정하고, 상대가 지적한 오류 사항 역시 수용할 부분이 있다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토론 자세이다.

10 상대측의 논증에 모순이 있다면 이를 반대 신문에서 질문해야 한다. 논증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

11 양측의 제2토론자는 제1토론자의 발언을 보충하거나 제1토론자가 말하지 못한 새로운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소단원 평가

• 292~296 쪽

- 01 ④ 02 ③ 03 ⑤ 04 ③ 05 예시 답안 참고 06 ③
07 ③ 08 ④ 09 ④ 10 예시 답안 참고 11 ③ 12 ③

01 반대 2는 발언을 시작하면서 찬성 측 입론의 내용을 재진술하여 어떤 부분에 대해 질문할 것인지 명확히 밝힌 후 상대에 대한 질문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발언에 대한 핵심 내용 요약 및 재진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② 사회자는 토론 논제를 소개하고 토론 규칙과 예의를 지키기를 당부하며, 토론 단계 및 발언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③ 찬성 1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난민 인정률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⑤ 반대 2는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진 것'에 대해 동의하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02 찬성 1의 입론에 현재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난민 보호 정책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토론의 주요 용어인 '난민', '난민 인정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② 독일과 서유럽 국가의 사례를 들어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경제 성장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 일본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를 근거 자료로 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졌음을 입증하고 있다.

⑤ 찬성 1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인 룩셈부르크의 난민 인정률과 회원국 전체의 평균을 직접 제시하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난민 인정률이 매우 낮음을 설명하고 있다.

03 찬성 1의 입론에서 통계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출처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반대 신문에서 출처를 요구하여 근거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찬성 1은 입론에서 룩셈부르크의 난민 인정률이 가장 높다고 밝혔으므로,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찬성 1은 입론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평가하는 근거로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 선진국으로 들어섰다고 본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 3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므로,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난민 문제가 심각해진 원인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는 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찬성 1이 난민 중 어린이도 많다고 발언한 것은 어린이 난민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난민이 증가하면서 어린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04 찬성 1은 독일과 서유럽 국가도 선진국이며,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므로 유사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독일, 서유럽의 사례처럼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하지만 반대 2는 우리나라와 독일, 서유럽 국가의 유사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찬성 측의 논증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반대 2는 찬성 1이 제시한 논증의 허점을 공격하고 있으나, 예외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② 이 토론의 주요 용어인 '난민 인정률'에 대한 정의는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가 인정한 객관적 내용이다.

④, ⑤ 찬성 측은 난민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한다고 말하고 있고, 반대 측은 난민이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을 우려하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다.

05 **예시 답안** 첫 번째 질문은 난민 수용 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묻는 것으로, 문제 해결 방안에 드는 비용이 이익보다 더 큰지 검증하기 위한 질문이다. 두 번째 질문은 난민을 수용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묻는 것으로,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역기능이 더 큰 것은 아닌지 검증하기 위한 질문이다.

출제 의도 필수 쟁점에 따라 반대 신문이 구성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두 질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적절히 요약하고 질문의 의도를 함께 제시하였는지 살핀다.

채점 기준	배점
두 질문을 모두 바르게 요약하고, 질문의 의도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두 질문을 모두 바르게 요약하였으나, 질문의 의도에 대한 서술이 미흡한 경우	4점
두 질문 중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두 질문을 요약하지 않고 각각 그대로 인용한 경우	2점

06 반대 1은 입론에서 우리나라는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과 거리가 멀어 난민 인정률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발

언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난민에 관해 발언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입론에서 난민이 많이 찾는 주변국에서는 난민 인정률의 문제가 시급하다고 발언하였다.

② 입론의 세 번째 문단에서 '국민들이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범죄가 늘어날 것에 관한 불안감'이라고 밝히면서 국민의 우려를 언급하였다.

④ 입론의 두 번째 문단에서 난민의 정착이 어려운 이유가 '난민 수용에 관한 국민들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⑤ 입론의 세 번째 문단에서 난민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일이 늘어나자 외국인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겼다고 밝히면서 해외의 부정적 사례에 대해 언급하였다.

07 반대 측은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하여 살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에 반대한다. 찬성 측은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한 사례를 제시하며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이 다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반대 측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반대 측의 주장으로 찬성 측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④ 반대 측은 국민들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을 높일 수 없다고 하고, 찬성 측은 우호적인 태도로 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즉 양측 모두 국민들의 태도와 난민 인정률은 관련이 깊다고 전제하고 있다.

⑤ 찬성 측의 주장으로 반대 측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08 ㉠은 2021년과 2018년의 여론 조사 자료이다. 2018년에는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의견이 24%였지만 3년 뒤에는 찬성이 33%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두 조사 모두 반대 의견이 50%가 넘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찬성 측은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의견이 증가한 부분에 주목하였다면, 반대 측은 여전히 반대 의견이 50%가 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동일한 자료라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반대 측은 2018년에 비해 2021년의 찬성 비율이 높아졌음을 인정하고 있다.

② 반대 측은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많다는 것을 충분히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여론 조사에서 국민들이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가……’라는 발언을 고려할 때 ㉠의 여론 조사가 찬반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도 함께 조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 찬성 측은 여론 조사 과정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
- ㉤ 찬성 측은 인용한 자료의 조사 시기를 문제 삼고 있지 않다.

09 <보기>의 자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난민 신청자의 국적과 신청 인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찬성 측은 이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에서도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이집트, 튀르키예와 같이 멀리 있다고 생각되는 중동에서도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반대 측의 입론에서 제시한 ‘난민 발생 주변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이다.

오답 풀이 ㉠ 신청자 수에 따라 효과적인 지원 방법이 서로 다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 난민 간의 문화적 갈등을 부각시키는 것은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는 찬성 측에 불리한 내용이다.

㉢ 1~3위에 해당하는 국가만 제시한 것이므로 특정 국가 사람들만 신청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난민 수용에 대한 여론 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높았던 것을 보면 난민 수용 자체에 대해 국민들의 우호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보기>는 우리나라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국적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난민이 발생하는지는 알 수 없다.

10 **예시 답안** [A]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결론을 끌어내는 귀납 논증을 사용하였다. 귀납 논증은 많은 사례가 모인 다 하더라도 반대 사례 하나만 있으면 결론은 참이 될 수 없다. [A]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든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은 처음부터 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들이므로 다른 난민의 경우에 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과 같이 질문하여 이 사례를 근거로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임을 지적하여 상대의 주장에 논리적 허점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출제 의도 귀납 논증의 방법과 유의할 점을 이해하고 이를 반대 신문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 [A]가 귀납 논증임을 밝히고, 결론의 개연성을 높이려면 논증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이 보편성을 지

니고 충분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이 결론을 끌어내는 사례로서 불충분한 이유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A]가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 논증임을 밝히고, 이와 관련지어 ㉠이 일반화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례라는 점을 활용하여 상대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려는 질문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A]가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 논증임을 밝히고,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음은 밝혔으나, 질문의 의도를 미흡하게 설명한 경우	4점
[A]가 귀납 논증이며,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지적한다는 점만 간단하게 서술한 경우	2점
[A]가 귀납 논증이라는 점과 ㉠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지적한다는 점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점

11 반대 2는 난민 문제에 대한 독일의 제도를 예로 들면서 현재 우리나라에 이러한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은 아니다.

오답 풀이 ㉠ 찬성 2는 반대 2의 발언 중 ‘합리적 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된다.’라는 내용과 ‘심사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발언이 모순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찬성 2는 반대 2가 준비가 안 되었다는 변명으로 위급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는다며 비유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사회자는 발언 도중에 끼어든 찬성 2에게 주의를 주고, 반대 2에게 다시 발언 기회를 안내하고 있다.

㉤ 반대 2는 난민 심사 담당 공무원의 한 해 평균 심사 건수, 심사 대기 시간 등 구체적인 수치를 근거로 들어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는 논제에 대한 반대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12 학생 3은 기사를 통해 얻은 배경지식과 토론에서 제시된 사실이 다르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현한다. 그러면서 ‘난민과 직접 마주하면서 제도를 갖추어 나간 것은 아닐까’ 하며 독일이 제도를 갖추게 된 과정에 대해 추론하고 있다.

오답 풀이 ㉠ 학생 1이 알아보려는 것은 난민 심사의 절차이지 난민 심사 인력이 부족하게 된 원인이 아니다.

㉡ 학생 2는 토론 규칙을 지키지 않은 토론자에게 주의를 준 사회자의 태도를 인상적으로 보고 있다.

㉣ 학생 1에는 해당하지 않는 진술이다.

㉤ 난민 수용에 대해 두 학생이 지닌 기존의 입장이 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입장의 변화 여부를 알 수 없다.

01 ⑤ 02 ① 03 ④ 04 ⑤ 05 예시 답안 참고 06 ②
 07 ① 08 예시 답안 참고 09 ③ 10 ② 11 ④ 12 예시 답안
 참고 13 ③ 14 ③ 15 ② 16 예시 답안 참고

01 이 글에서는 동기를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로 나누고, 외재 동기의 단점과 내재 동기의 장점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고래의 경우에 빗대어 인간 역시 자유롭게 내재 동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② 외재 동기에 관한 부정적인 실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외재 동기보다 내재 동기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③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와 같이 독자에 대한 질문으로 글을 마무리하면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④ 수학자 허○○ 교수, 물리학자 파인먼, 피아니스트 임○○의 사례를 통해 결론을 끌어내는 귀납 논증이 사용되었다.

02 이 글의 실험(㉑)에서는 외적 보상을 준 쪽이 쉬운 문제를 더 빨리 풀었다. <보기>에서는 창의력이 필요 없는 쉬운 족발 실험을 진행했을 때 보상을 약속한 쪽이 더 빨리 풀었다. 이 두 실험은 쉬운 문제를 풀이할 때 외적 보상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 오답 풀이** ② ㉑와 <보기>의 실험 모두 외재 동기를 쫓는 이들과 내재 동기를 쫓는 이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 대한 실험이 아니다.
 ③ ㉑와 <보기>의 실험은 모두 단순한 문제일 경우 보상을 준 쪽(외재 동기)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임을 보여 준 실험이다.
 ④ ㉑와 <보기>의 실험은 모두 외적 보상을 약속했지만, 외적 보상에 차등을 주었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㉑와 <보기>의 실험은 내재 동기의 발생 원인에 대한 실험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동기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실험이다.

03 [A]에서는 외적 보상이 실제로 많은 단점이 있음을 나열하며 외적 보상의 효과가 적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외적 보상을 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작은 장난감, 게임기, 자동차, 집’으로 외적 보상이 점층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다.
 ② ‘끝없이 갈등을 빚고 남들과도 끝없이 비교하게 되어 마음이 황폐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을 통해 외적 보상을 쫓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외재 동기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예상 반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외재 동기가 지니는 문제점을 나열함으로써 내재 동기를 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강화한다.
 ⑤ ‘자녀가 열심히~회사 대표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표현에서 사람들이 외적 보상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 주며, 이들의 마음에 공감하여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있다.

04 ㉑에서 ‘성과급 규정(외적 보상)이 있어서 잘 돌아가는’ 회사라는 것은 외적 보상을 통해 동기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앞서 실험에서 외적 보상은 쉬운 문제를 풀 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어렵고 창의적인 업무에는 방해가 된다고 하였다. 회사는 힘들고 어려운 업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외적 보상인 성과급을 마련한 것인데, 의도와 달리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쉬운 업무만 해결하려 하는 조직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 오답 풀이** ① ‘쉬운 업무만 해결하려고 한 것에서 ‘역설적으로’ 원래 업무가 쉽고 단순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②, ③, ④ ‘쉬운 업무만 해결하려는 조직’이라는 표현에서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쉬운 업무만 선택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05 예시 답안 ㉒에 대해 허○○ 교수는 ‘재미있어서, 인간이 얼마나 깊게 생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연구한다고 하였고, 파인먼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 기쁨’이라고 하였다. 글쓴이는 이를 통해 필즈상이나 노벨상과 같은 외적 보상보다는 내재 동기가 연구를 지속하게 하는 진정한 동기임을 보여 주고자 한 것이다.

출제 의도 내재 동기를 좇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례를 제시한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① 허○○ 교수의 발언 중 ‘수학 연구에 몰두하는 것’은 정확한 답이 아니다. ‘수학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내재 동기를 밝혀야 한다.

② 파인먼의 발언 중 ‘다른 사람이 그 발견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상이다.’라는 부분도 동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상을 받을 만한 연구인지를 판단하는 왕립스웨덴과학아카데미의 결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분을 인용한 것은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채점 기준	배점
허○○ 교수와 파인먼의 인터뷰에서 학자의 내재 동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바르게 찾아 쓰고, 글쓴이가 ㉠을 통해 학자들이 연구를 지속하는 힘은 내재 동기임을 강조하려 하였다는 내용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두 사람의 인터뷰에서 학자의 내재 동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바르게 찾아 썼지만, ㉠을 활용한 글쓴이의 의도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4점
학자의 내재 동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느 한 가지만 찾아 쓴 경우, 또는 ㉠을 활용한 의도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06 ‘마라톤’은 깊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연구해야 하는 문제를 의미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근력 운동’은 매일같이 수학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07 이 글에서는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의 사례를 근거로 내재 동기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평범한 사람들이 내재 동기를 좇아 기쁨을 얻은 사례도 중요하다는 비판적 반론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경험이 더 신뢰할 만하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이 글에서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은 외재 동기보다 내재 동기가 진정한 기쁨을 주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큰 상’이라는 큰 외적 보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족된 것은 아닌지 검토할 수 있다.

㉡ 이 글에서 진정한 기쁨은 내재 동기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기쁨’이라는 주관적 감정의 가치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할 수 있다.

㉢ 큰 상을 받은 피아니스트 임○○은 자신의 음악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알아보고자 대회에 출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자신의 성취를 확인하기 위해 외적 보상 역시 중요하다는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 글쓴이는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가 상호 보완적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외재 동기가 내재 동기를 끌어낼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08 **예시 답안** <보기>의 책은 칭찬과 격려라는 외적 보상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글쓴이는 ㉠에서 고래가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며 춤추게 하기 위해서는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제목 대신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이라는 제목을 지어 ‘칭찬’과 같은 외적 보상이 아닌 내재 동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출제 의도 글의 제목을 통해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① <보기>와 ㉠의 어떤 부분을 참고하여 서술하였는지 드러나야 한다.

② ‘칭찬’이라는 외적 보상이 아닌 내재 동기를 강조하기 위해 제목을 지었다는 글쓴이의 의도가 드러나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보기>의 책은 외적 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에서 글쓴이는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자유라는 내재 동기가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제목을 지었다는 것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보기>와 ㉠에서 강조한 내용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3점
내재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은 제목이라는 점만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09 반대 1은 입론에서 우리나라는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과 거리가 멀어 난민 인정률이 낮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논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찬성 1은 입론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선진국에 들어섰음을 바탕으로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이 실행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② 찬성 1은 입론에서 난민 인정률을 높였을 때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익을 제시하고 있다.

④ 찬성 2는 입론에서, 난민 인정률을 높여도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적응하여 살기 어렵다는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해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의 사례와 예멘 난민 신청자의 사례를 새로운 근거로 들어 반대 측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⑤ 반대 2는 입론에서 난민 심사 인력의 부족과 난민 지원 제도의 부족을 근거로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이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10 [A]는 찬성 측의 입론으로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의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내용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와 [B]는 필수 쟁점 중 하나인 문제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③ 2013년에 <난민법>을 시행했다고 언급하였다.

④ [B]에서는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지 않았다.
 ⑤ [A]는 국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들어 선진국과 같이 난민 인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B]는 심사 인력 부족과 같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제시하며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11 찬성 1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므로 독일, 서유럽과 우리나라가 유사하다고 생각하며 <보기>와 같이 논증하였다. 이에 대해 반대 2는 서유럽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전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반대 2는 반대 신문에서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서유럽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보기>의 결론은 찬성 1의 주장과 일치한다.

② 반대 2는 반대 신문에서 독일, 서유럽 국가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사례가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③ 전제가 참이 아니라면 결론이 참이 될 수 없는 것은 연역 논증의 특징인데, <보기>는 귀납 논증이다. 또한, 반대 2가 서유럽 국가에 난민이 이주한 후 경제가 발전했다는 사실이 참인지에 대해 검증하지 않았다.

⑤ 반대 2는 사례의 부족을 문제 삼고 있지 않다.

12 **예시 답안** 1. 반대 신문 질문으로 ‘제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 난민 수용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와 같이 질문할 수 있다. 왜냐하면 2018년에는 24%였던 찬성 비율이, 2021년에는 33%로 증가하였음을 보여 주는 자료에 대해, 반대 측은 두 여론 조사 모두 반대 의견이 많음을 강조했지만, 찬성 측에서는 난민 수용에 대한 찬성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그래서 정착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와 같이 반대 신문할 수 있다. 이어지는 찬성 2의 입론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는 사람들은 충분히 잘 정착하여 사는 사례이다. 따라서 반대 신문에서 난민 정착 가능성 문제에 대해 질문한다면 이어지는 입론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적절한 반대 신문을 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다.

평가 기준 입론의 내용을 토대로 적절한 반대 신문 질문을 구성한다. 단, 입론에서 상대측 토론자가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거나, 다른 부분의 입론에 나타난 내용을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채점 기준	배점
반대 1의 입론에서 논리적 허점을 찾아 적절한 반대 신문 질문을 서술하고 질문의 의도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반대 신문 질문 예시] • 난민은 전쟁, 기아와 같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이 언제나 우리나라와 멀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 우리나라를 선택하는 난민이 얼마나 많은가는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과 별개의 문제 아닌가? 적은 숫자가 오는데도 이들을 인정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 여론 조사 결과는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국민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착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4점
반대 신문 질문만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2점
반대 신문 질문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반대 신문 질문의 요건을 서술한 경우	1점

13 반대 2는 반대 신문에서 난민 수용 시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점과 우리나라를 서유럽 국가와 같은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찬성 1이 충분히 답변하였으며, 찬성 2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찬성 1은 난민 인정률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는 것, 난민을 수용하면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론하였다. 찬성 2는 이에 더하여 난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입론하고 있다.

② 반대 2는 입론에서 국민들이 난민 수용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난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다는 찬성 2의 입론은 반대 2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있다.

④ 찬성 2의 첫 번째 주장은 다음과 같은 연역 논증을 활용하고 있다.

[전제 1] 국가는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제 2]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의무이다.

[숨겨진 전제] (우리나라는 국제 사회의 일원인 국가이다.)
 [결론] 우리나라는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⑤ 찬성 2의 두 번째 주장은 다음과 같은 귀납 논증을 활용하고 있다.

[사례 1]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은 우리나라에 잘 정착하였다.

[사례 2] 예멘 난민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잘 정착하였다.

[결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다.

14 찬성 2는 입론에서 예멘 난민의 성공적 정착에 대한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반대 1의 입론에서 예멘 난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대가 56%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예멘 난민은 국민들의 높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이므로 찬성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㉓)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반대 2는 '우리나라는~난민 인정률을 높일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로 발언을 시작하였다. 이는 정책 논제에서의 필수 쟁점 중 하나인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㉑)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② 찬성 2는 입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주장]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것이다.

[이유] 난민으로 인정받아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근거] 1)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사례

2) 예멘 난민의 사례

'난민의 안정된 정착 가능'이라는 주장에 대해 글쓴이의 주관적 의견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적인 근거가 긴밀하게 연결된 것(㉒)으로 볼 수 있다.

④ 찬성 1은 문제 해결의 효과만 제시했을 뿐 이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해 문제 해결의 효과보다 해결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큰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 질문한 것(㉔)으로 볼 수 있다.

15 ㉠은 근거 자료를 토대로 찬성 1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 것이며 전문가의 소견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④ 2018년의 여론 조사와 2021년 여론 조사를 비교할 때 찬성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반대 측은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는 데 불리한 조사 결과 역시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음을 강조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16 예시 답안 (1) 찬성 측: <보기>의 자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난민 인정률을 비교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위 3개국과 같이 선진국의 위상을 지닌 우리나라가 난민 보호에 앞서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수치만큼 올려야 합니다.

(2) 반대 측: <보기>의 자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난민 인정률을 비교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매우 낮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난민이 주로 발생한 지역과 우리나라·일본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난민 인정률이 평균 수치보다 낮은 것이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출제 의도 토론에서 근거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① <보기>의 자료에 나타난 통계 수치를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

② 주장과 근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③ 동일한 쟁점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구성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찬성 측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주장으로 구성한 뒤, 반대 측은 문제 해결의 효과와 관련된 주장을 펼친다면 잘못된 것이다.

채점 기준	배점
주장과 근거를 긴밀하게 연결하여 <조건>에 맞게 서술한 경우 [근거의 예] [찬성 측]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 하위 3개국에 속할 만큼 매우 낮은 편이다. [반대 측] 난민 인정률이 높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높다. /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난민 인정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8점
<보기>의 자료를 논제와 관련지어 같은 쟁점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각각 바르게 서술하였으나, 근거에 대한 서술이 다소 미흡한 경우	6점
<보기>의 자료를 논제와 관련지어 양측의 주장을 근거와 긴밀하게 서술하였으나 같은 쟁점에 대한 주장으로 구성하지 못한 경우	4점
같은 쟁점에 대한 양측의 주장만 서술한 경우	2점

5 세상과 나를 분석하라

01 사회적 쟁점에 관한 글 쓰기

활동 응용 문제

• 313~321쪽

01 ① 02 ④ 03 ④ 04 ③ 05 ① 06 ③ 07 ⑤ 08 ④
09 ② 10 ② 11 문제, 해결 12 ⑤ 13 ② 14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표현하였는가?

01 수민이네 모둠의 프로젝트 활동 일지 ①을 보면, ‘저출생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선정하고 있다.

02 ‘매체 자료 1’의 신문 기사에는 동영상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매체 자료 1’에서는 『한국경제』, 2022년 2월 24일 자라고 출처를 밝히고 있고, ‘매체 자료 2’에서는 ‘http://www.ooo.co.kr_happyou21’라고 출처를 밝히고 있다.

② ‘매체 자료 1’에서는 신문 기사를, ‘매체 자료 2’에서는 개인 방송이라는 서로 다른 매체를 참고했다.

③ ‘매체 자료 1’과 ‘매체 자료 2’를 자료의 종류, 자료를 요약한 내용, 자료 출처로 항목화해서 제시했다.

⑤ ‘매체 자료 1’에서는 보조 자료로 통계를 정리한 그래프를 제시하여 우리나라 연도별 출생률을 시각화하였고, ‘매체 자료 2’에서는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여 저출생 실태를 제시했다.

03 수민이네 모둠은 ‘저출생 문제’라는 사회적 의제에 대한 모둠의 관점을 세우기 위해 저출생 문제를 다룬 여러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매체 자료 1’과 ‘매체 자료 2’는 ‘저출생 문제’라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③ ‘매체 자료 1’은 신문 기사이고, ‘매체 자료 2’는 개인 방송용 동영상 자료로 글쓰기 방법을 찾기 위한 자료가 아니다.

⑤ ‘매체 자료 1’에서는 통계 자료를 그래프로 인용하고 있고, 개인 방송에서는 어떤 통계 자료의 수치를 인용하여 발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04 개인 방송은 방송국에 비해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며 1인이나 소수의 인원에게 의해 제작된다.

오답 풀이 ① 개인 방송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② 개인 방송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제작할 수 있다.

④ 개인 방송은 문자 언어보다는 영상과 음성 위주로 전달되는

특성을 지닌다.

③ 개인 방송은 개인적인 일상부터 사회적 의제에 대한 소개나 견해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05 개인 방송에 따르면 한국의 현재 합계 출산율은 0명대이다.

오답 풀이 ② ‘대도시인 서울에서도 학교가 폐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에서 저출생 문제가 대도시에서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하며 생산 가능 인구 구조가 바뀔 만큼 ‘막막한 현실’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5개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 0명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서 합계 출산율 최저임을 알 수 있다.

⑤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 1명을 생산 가능 인구 5.3명이 부양하던 구조가 2050년에는 고령자 1명을 생산 가능 인구 1.4명이 부양해야 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는 말에서,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점차 줄어들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06 ‘시의성 있는 사회적 의제를 다루고 있는가?’는 매체를 선택하기 전에 검토할 기준이므로, 선택한 매체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는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수민이네 모둠은 ‘타당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② 수민이네 모둠은 ‘왜곡하거나 과장한 표현은 없는가?’라고 묻고,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 등의 표현이 과장되었다고 분석했다.

④ 수민이네 모둠은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표현은 없는가?’라고 묻고, ‘충격! 대한민국 국민이 사라지고 있어요.’ 등의 표현이 자극적이라고 분석했다.

⑤ 수민이네 모둠은 ‘사회적 의제에 관한 관점은 공정한가?’라고 묻고, 어느 집단이나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다고 분석했다.

07 수민이네 모둠은 ‘저출생 문제’라는 사회적 의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 매체 자료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 사회적 쟁점을 추출하였다. 이 중 수민이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를 사회적 쟁점으로 선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밝히는 글을 쓰고자 한다.

08 수민이는 글쓰기 계획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학생들’을 예상 독자로 설정했다.

오답 풀이 ① 수민이는 글쓰기 계획에서 사회적 쟁점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로 정했다.

② 수민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로 정리했다.

③ 수민이는 글쓰기 계획에서 글을 쓴 목적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의 역할이 중요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④ 수민이는 ‘저출생 문제의 해결 방안을 다른 전문가의 보고서’와 ‘출산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한 최근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09 수민이가 추가로 수집한 매체 자료는 전문가의 보고서와 뉴스에 실린 통계 자료이다. 그 중 통계 자료로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을 비교한 도표를 제시했다.

오답 풀이 ①, ③ 도표를 통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월별 출산율 현황이나 연도별 출산율 변화 양상은 알 수 없다.

④ 저출생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보고서를 제시했을 뿐, 설문 조사는 제시되지 않았다.

⑤ 수민이가 제시한 합계 출산율에 관한 정보만으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한 우리 나라의 인구 감소 현황을 알기 어렵다.

10 수민이가 작성한 개요에 따르면 외국과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황 수치를 비교하고 있는 내용은 없다. 수민이는 저출생 관련 예산을 외국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답 풀이 ① 수민이가 작성한 개요를 살펴보면, 본문에서 프랑스와 일본,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의 저출생 관련 정책 사례를 분석하려 한다.

③ 본문에서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유사점을 제시하려 한다.

④ 본문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효과를 거둔 정책을 분석하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했음을 인과의 방법으로 밝히려 한다.

⑤ 서론에서 시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 추이를 제시하려 한다.

11 수민이가 작성한 개요에 따르면, 서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 추이와 외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저출생

관련 예산 차이를 제시하며 문제 상황을 제기하려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효과적인 정책 도입의 시급함을 강조하려고 한다.

12 개요에 따르면 결론에서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외국에서 성공한 저출생 대책의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13 사회적 의제를 먼저 선택한 후 참고할 매체 자료를 선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적 쟁점을 찾는 것이다. 사회적 쟁점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주제를 말한다. 그렇다고 과장된 논의 주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자기 평가표’에서 ‘의의성 있는 사회적 의제를 선택하였는가?’라고 평가하고 있다.

③ ‘자기 평가표’에서 ‘매체 자료에서 적절한 사회적 쟁점을 찾았는가?’라고 평가하고 있다.

④ ‘자기 평가표’에서는 ‘모둠 내에서 서로 협력적으로 활동하였는가?’라고 평가하고 있다.

⑤ ‘자기 평가표’에서 ‘매체 자료의 특성에 따라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는가?’라고 평가하고 있다.

14 ‘정책의 필요성을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주제에 대한 예상 독자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표현하였는지에 관해 평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스단원 평가문제

• 324~328쪽

01 ③ 02 ① 03 ② 04 ⑤ 05 ① 06 예시 답안 참고
07 ⑤ 08 ② 09 예시 답안 참고 10 ④ 11 ② 12 예시 답안
참고 13 ⑤ 14 ② 15 ⑤ 16 예시 답안 참고

01 수민이네 모둠에서는 사회적 의제를 ‘저출생 문제’로 선정 한 뒤 사회적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두 매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매체 자료 1>은 신문 기사이고, <매체 자료 2>는 인터넷 개인 방송이다.

② 수민이네 모둠에서는 두 매체 자료를 ‘자료의 종류’, ‘자료 내용’, ‘자료 출처’로 항목화하여 정리하고 있다.

④ 수민이네 모둠에서는 ‘저출생 문제’라는 공통된 사회적 의제를 가지고 있는 두 매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⑤ 수민이네 모둠에서는 매체 자료의 출처를 밝혀 근거 자료로서 신뢰를 높이고 있다.

02 개인 방송은 비전문적인 생산자도 매체 생산에 비교적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개인 방송에서는 댓글을 통해 수용자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③ 개인 방송은 문자나 시각 자료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신문 기사와 달리 영상과 음성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④ 개인 방송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의 개인적 취향이나 관심 있는 사회적 의제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다.

⑤ 개인 방송의 생산자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수용자에게 내용을 직접 전달한다.

03 신문 기사의 제목인 ㉠에서는 ‘가장 적게, 늦게’라는 부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저출생 문제가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에서는 ‘한국이 아이를 가장 적게, 늦게 낳는다.’는 기사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며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③ ㉡에서는 함께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꼴찌라며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④ ㉢에서는 저출생 문제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⑤ ㉣에서는 연도별 출생아 수를 조사한 통계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내어 출생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4 개인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출산율의 구체적인 수치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제목에서 ‘충격! 대한민국 국민이 사라지고 있어 요.’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시청자의 관심을 끌어내려하고 있다.

② 매체 생산자는 중간에 ‘정말 막막한 현실 아닌가요?’라고 물으며, 현재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③ 매체 생산자는 ‘이제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라고 시청자들에게 말을 건네며 시청자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④ 개인 방송의 첫 발언이 ‘대도시인 서울에서도 학교가 폐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이다. 이러한 발언을 통해 매체 생산자는 저출생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환기하고 있다.

05 매체 자료에는 생산자의 입장과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매체 생산자의 관점이나 의도를 파악하고, 올바르게 표현되었는지 살펴야 한다.

06 **예시 답안** 학교 폐교 사태, 함께 출산율 0명대인 통계, 부과도한 인구 부양 구조 전망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적절하게 드러내었지만, 왜 저출생 문제가 발생하는지와 미래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해야 할 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과 구체적 해결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출제 의도 평가의 근거와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긍정적 평가의 근거와 이유, 부정적 평가의 근거와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긍정적으로 판단한 근거와 부정적으로 평가한 근거를 개인 방송에서 모두 찾고 평가의 이유를 설명한 경우	6점
긍정적으로 판단한 근거를 개인 방송에서 찾았지만 평가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2점
부정적으로 판단한 근거를 개인 방송에서 찾았지만 평가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2점

07 선정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담은 글을 쓸 때에 다른 사회적 쟁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글의 통일성을 저해한다.

08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에는 공적으로 신뢰할 만한 출처라 해도 모두 명확히 밝혀야 한다.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09 **예시 답안** ㉠에 대해 수민이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출제 의도 글쓴이의 주장과 매체 자료의 연관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전문가의 보고서’나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함께 출산율을 비교한 그래프’의 자료가 지닌 특징을 활용하여 쓴 경우 답으로 인정한다.

채점 기준	배점
㉠에 대한 수민이의 주장을 명시하고, 수집한 매체 자료 중 하나를 골라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지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4점
㉠에 대한 수민이의 주장을 명시하였지만, 수집한 매체 자료가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서술하지 못한 경우	2점

10 일본이나 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와 비교하기 위한 것이지 외국의 사례를 서로 비교하여 효과적인 국가 정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 개요에 따르면, 서론에서 '우리나라 저출생 현황'을 '시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 추이'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 개요에 따르면, 서론에서 '국가 정책의 문제점'을 '외국과 우리나라의 저출생 관련 예산의 차이'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 개요에 따르면, 본론에서 보육과 교육에 관한 국가 지원으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한 프랑스의 영유아 보육 정책을 소개하며, 국가의 정책이 효과적이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 개요에 따르면, 결론에서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려 한다.

11 수민이가 작성한 개요에 따르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서론에서는 '외국과 우리나라의 저출생 관련 예산의 차이'를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생 관련 국가 정책이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본론에 제시된 프랑스, 일본, 영국의 사례 분석은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서론에 제시된 '우리나라 출산율 변화 추이'는 공적으로 신뢰할 만한 공공 기관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국가 정책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한 프랑스, 일본, 영국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12 **예시 답안** 서론에서는 우리나라 출산율의 추이를 시간 순서의 원리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전개 방식을 사용하여 저출생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그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출제 의도 내용 전개 방식과 그 효과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서론의 내용과 내용 전개 방식이 무엇인지, 그 효과가 무엇인지 적절하게 설명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우리나라 출산율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하였음을 밝히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문제 해결의 시급함을 강조하는 효과를 주고 있음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우리나라 출산율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하였음을 밝혔지만 내용 전개 방식의 효과를 밝히지 못한 경우	4점
우리나라 출산율의 추이라는 내용은 언급하였지만, 시간적 순서에 따른 원리이고 그에 따른 효과를 설명하지 못한 경우	2점

13 온라인 공간은 개방성을 바탕으로 하기에 많은 사람이 생산과 수용에 참여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초상권 등의 법률을 준수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등 쓰기 윤리를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4 인용 자료를 평가할 때에는 '인용한 정보의 출처가 신뢰할 만한가?', '인용한 정보의 내용은 정확한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능한 한 많은 인용을 포함하는 것은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15 아무리 문제 상황이 심각하더라도 이를 강조하기 위해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16 **예시 답안** 온라인 공간은 개방성이 뛰어나고 전달 속도가 빨라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매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에서 글을 공유할 때에는 내용이 정확하고 관점이 공정한지를 점검해야 하고, 저작권이나 초상권 그리고 개인 정보 보호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등 쓰기 윤리를 잘 지키는지 점검해야 한다. **출제 의도** 온라인에서 글을 공유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온라인 공간의 특성과 온라인에서 글을 공유할 때 지켜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적절하게 2개 이상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에게 글을 공유할 때 지켜야 할 태도를 적절하게 2개 이상 제시한 경우	6점
온라인 공간의 특성과 온라인에서 글을 공유할 때 지켜야 할 태도를 1개씩만 제시한 경우	3점
온라인 공간의 특성만 제시하거나 온라인에서 글을 공유할 때 지켜야 할 태도만 제시한 경우	1점

02 나의 진로 분야 공유하기

활동 응용 문제

• 333~345쪽

01 ② 02 ① 03 ⑤ 04 ④ 05 주제 통합적 읽기 06 ③
07 ④ 08 비유 09 ③ 10 ⑤ 11 ③ 12 ③ 13 출처
14 ⑤ 15 ③ 16 ⑤ 17 ④ 18 ⑤ 19 실천, 적용

- 01** 이미 관심 분야가 정해진 모둠 활동에 이를 벗어난 새로운 정보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④ 모둠원들이 협력하여 더욱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취합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다.
 ③ 관심이 비슷한 친구들과 정보를 교환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다.
 ⑤ 탐색 과정에서 몰랐던 사실이나 인접 학문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02** 매체 자료를 제작하는 것은 정보를 얻는 활동과 가장 거리가 멀다.
- 03** 우진이네 모둠의 프로젝트 활동 일지에 따르면 각자 자신이 선정한 책을 읽기로 했고, 이를 교환하여 읽는다는 내용은 없다.
- 04** 우진이는 사회 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며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지 궁금해서 책을 선택했다. 그 책에서 직업에 대한 상반된 관점이 제시되지 않았을 것이다.
오답 풀이 독서 일지에는 제목, 차례, 소제목 등을 훑어 보고 예측한 내용,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된 점, 글을 읽기 전과 비교하여 생각이 달라진 부분 등을 쓸 수 있다.
- 05** 하나의 화제에 관한 다양한 글을 읽고 자신만의 관점이나 주제로 재구성하는 독서는 주제 통합적 읽기이다.
- 06** 글쓴이는 동티모르에 처음 파견되었을 때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일상의 삶을 공유하며 조금씩 '외국인'에서 '티모르 사람'이 되었다고 했다. 즉, 글쓴이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 07** 2문단에서 사회 복지사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공생을 살리는 것이 목표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사회 복지사가 현지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필

요한 일일뿐 사회 복지사의 핵심 역할은 아니다.

②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원을 늘리는 활동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한정된 인력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작한 것은 교사 교육이며, 이 교사 교육의 최종 목표는 주민들 스스로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다.

- 08** 글쓴이는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 복지사의 역할을 마중물에 비유하고 있다.
- 09** 우진이네 모둠은 사회 복지를 진로나 관심 분야로 선택한 학생들이 모여 있다. 따라서 다른 진로나 분야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우진이네 모둠은 '우리는 각자 읽은 책 내용에 관해 대화하면서 정보를 공유했어.'라고 활동 내용을 밝히고 있다.
 ② 『사회 복지사가 말하는 사회 복지사』라는 책 내용을 사회 복지사가 하는 일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노인 복지론』은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사회 복지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소개하였다.
 ④ 우진이는 장기적인 진로 독서 계획을 세워 보겠다고 말하고 있다.
 ⑤ 우진이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로 관련 글이나 자료를 탐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10** 우진이가 주제 통합 독서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것에는 학과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다.
- 11** 우진이네 모둠은 카드 뉴스를 제작하기 위해 '주제 선정하기 → 정보 수집하기 → 기획안 작성하기 → 카드 뉴스 제작하기'의 과정을 밟고 있다.
- 12** 우진이네 모둠이 작성한 '카드 뉴스를 제작할 때 고려할 점'을 살펴보면 기획안 작성하기 단계에서는 '1. 수용자에게 내용을 쉽게 전달하려면 어떤 표현 방법(글, 그림)을 쓸 것인가? 2. 장면별로 주요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제작 매체는 카드 뉴스로 정해진 상태이다.
 ②, ④는 정보 수집하기 단계에서, ⑤는 카드 뉴스 제작하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다.
- 13** 카드 뉴스를 제작할 때 인용하는 글, 사진 등에는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 14** 카드 뉴스에서는 고령 인구 비중 추이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카드 뉴스 1에서 '공동체 삶을 위한 직업'이라는 사회 복지사의 특징을 제목으로 제시하였다.

② 카드 뉴스 3에서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 복지사의 역할을 이미지와 함께 제시하였다.

③ '사회 복지사', '사회적 가치', '의미'의 글자 크기와 색에 변화를 주어 강조하고 있다.

④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사회 복지사의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대상을 이미지로 구성하여 사회 복지사의 활동 영역이 다양함을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15 카드 뉴스는 음성이나 음향 등 청각적 정보가 아니라 글자나 이미지 중심의 시각적 정보를 간략화하여 전달하는 매체 자료이다.

16 매체 자료는 일반적으로 설득, 정보 전달, 정서 표현 등 사회적 상호 작용을 목적으로 한다.

17 주제 통합 독서는 다양한 주제가 아니라 하나의 주제에 관련한 여러 책이나 글, 자료 등을 읽는 활동이다.

18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는 내용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매체 한 가지를 선택해서 제작해야 한다.

19 프로젝트 활동 후기에는 배우고 느낀 점과 실천 및 적용 등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스단원 평가 • 348~352 쪽

01 ⑤ 02 ⑤ 03 ⑤ 04 ⑤ 05 ③ 06 ③ 07 ⑤ 08 ⑤
 09 예시 답안 참고 10 기획안 작성하기 11 ③ 12 ⑤ 13 ③
 14 ⑤ 15 ① 16 예시 답안 참고

01 우진이네 모둠의 대화에 따르면 진로와 관련하여 주변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탐색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둠원 2이다.

오답 풀이 ① 모둠원 1의 주된 관심 분야는 '다문화 사회'이다.

② 모둠원 1은 관심 분야인 다문화 사회와 연관된 직업으로 '청소년 지도, 다문화 코디네이터, 한국어 교육, 심리 상담' 등의 직업 진로를 탐색하고 있다.

③ 모둠원 1의 진로 탐색을 본 모둠원 2가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다.

④ 모둠원 1은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인접 학문 분야로 '사회학'을 탐색하고 있다.

02 모둠원 1은 자신의 관심 분야를 반영하여 책을 선정하고 있다.

03 (나)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은 사회 복지사의 실제 경험과 직업을 준비할 때 필요한 정보가 담긴 글이다. 글쓴이가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글이 아니다.

04 이 글은 국제 사회 복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 복지사의 경험이 담긴 자유로운 형식의 글로 글쓴이의 체험과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05 바우로는 5개 마을 2,800여 명이 사는 동티모르의 지역으로, 글쓴이가 과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활동했던 곳이다. 다음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06 <보기>에서는 글의 소제목을 보고 뒤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며 읽고 있으며, 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글의 내용이 자신의 예측과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내용을 예상하고 확인하며 읽었는가?'라는 기준에 해당한다.

07 ㉠과 달리 ㉡은 교육이 끝난 후 전시회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전시회 개최를 위해 교육을 실시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은 아동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이다.

② ㉠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모국어인 테툼어를 가르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③ ㉡은 교사를 교육하는 것으로, 교육을 받은 교사 1명이 30명의 아이를 가르치게 되므로, 50명의 아동을 직접 교육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④ ㉠은 지역의 교육에 보탬이 되고자 실시하게 된 것이고, ㉡은 ㉠과 같은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육이므로 ㉠과 효율성의 차이가 있을 뿐 ㉠과 ㉡ 모두 현지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다.

08 교사 교육에서 현지 교사가 종이접기로 포도를 만든 이유는 포도를 모르는 현지의 학생들이 포도라는 단어를 쉽게 익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09 예시 답안 마중물은 교사 교육을 가리키는 것으로 글쓴이는 사회 복지사로서 동티모르 지역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교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것이 마중물이 되어 동티모르 지역 아이들이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출제 의도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마중물’이 가리키는 것이 교사 교육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통해 기대하는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글쓰기가 지역 사회에 마중물로서 수행한 활동이 ‘교사 교육’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6점
글쓰기가 지역 사회에 마중물로서 수행한 활동이 ‘교사 교육’임을 명확하게 밝혔으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마중물과 같은 수단이 교사 교육이었다는 점이나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5점
글쓰기가 지역 사회에 마중물로서 수행한 활동이 교사 교육이라는 점만 명확하게 밝힌 경우	3점

10 카드 뉴스의 소재와 주제, 기획 의도, 예상 수용자의 특성을 정리하고 전체적인 글자와 이미지를 구성하는 과정은 기획안 작성 단계에서 해야 할 활동들이다.

11 우진이네 모듬은 카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진로 탐구를 위해 책을 읽고, 진로에 관한 추가 정보도 수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진로 탐색의 결과를 카드 뉴스라는 매체 자료의 특성을 활용해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12 카드 뉴스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에 맞게 사각형으로 제작되지만 그렇다고 카드 뉴스 안의 글자와 이미지까지 모두 사각형일 필요는 없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카드 뉴스는 내용을 줄여서 소개한다고 했으므로, 정보를 짧은 분량으로 정리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보기>에서 카드 뉴스는 읽기 쉽도록 이미지를 이용한다고 했으므로,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카드 뉴스는 주로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사용한다고 했으므로,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 전송하기 위해 페이지 수를 조정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④ <보기>에서 카드 뉴스는 가독성을 높인다고 했으므로, 글자의 양을 줄이고 크기를 키우는 것은 적절하다.

13 카드 뉴스를 읽는 수용자가 매체 생산자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는 없다.

14 카드 뉴스의 네 번째 페이지에는 의문형의 문장뿐 아니라 이미지와 평서형의 문장을 포함하고 있다.

15 인터넷에 게시하는 카드 뉴스는 매체 언어의 특성에 맞게 영상을 삽입할 수 있지만 이 카드 뉴스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이미지나 도표를 중앙에 크게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의 비중을 더 높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6 **예시 답안** ㉠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고령화된 사회에서 사회 복지사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가 확대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출제 의도 그래프의 의미와 주제와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보조 자료로 제시한 그래프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회 복지사의 사회적 가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이 고령 인구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임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사회 복지사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한 경우	6점
㉠이 고령 인구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임을 설명하였지만 이를 통해 사회 복지사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지 못한 경우	3점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늘고 있다는 사실만을 간략하게 설명한 경우	1점

대단원 평가

• 355~360 쪽

- 01 ① 02 ④ 03 ⑤ 04 ③ 05 ④ 06 **예시 답안** 참고
 07 ④ 08 ② 09 **예시 답안** 참고 10 ⑤ 11 **예시 답안** 참고
 12 ⑤ 13 ⑤ 14 ④ 15 ③ 16 ④ 17 ② 18 ④

01 (가)는 2021년 출생·사망 통계를 인용하면서 자료의 출처가 통계청임을 밝혔다. (나) 또한 인구 부양 구조와 관련된 통계를 인용하며 자료의 출처가 통계청임을 밝히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는 신문 기사로 정보 전달을, (나)는 개인 방송으로 설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③ (나)는 (가)와 달리 ‘정말 막막한 현실 아닌가?’ 등의 의문형 문장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있다.

④ 객관적 통계를 통해 현 상황을 보여 주는 (가)와 달리, '0명!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에서 저출생 문제의 심각한 현실에 대한 매체 생산자의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저출생 문제라는 사회적 의제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02 막대 그래프 위에 비율이 아니라 연도별 출생아 수를 표기하여 수치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03 ㉔는 의문문 문장으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충격! 대한민국 국민이 사라지고 있어요.'라는 제목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수용자의 관심과 흥미를 집중시키려 하고 있다.

② '0명!',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③ 수용자가 저출생의 문제점에 대해 환기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저출생의 문제는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④ 매체 생산자는 '정말 막막한 현실 아닌가요?'라고 반문하며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04 개요에 따르면 이 글은 오늘날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외국 정책의 사례를 소개하며 효과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글의 예상 독자는 이러한 문제와 대책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저출생 문제를 알지 못하는 이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위의 개요는 '서론-본론-결론'의 논설문의 삼단 구성을 통해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②, ④ 개요에 제시된 결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 확인과 외국에서 성공한 저출생 대책 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이 글의 주제이고 목적이다.

⑤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서 저출생 문제라는 사회적 의제를 대상으로 글쓰기 개요를 작성한 것이다.

05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과거에 비해 공공의 가족 지출 예산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저출생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의 도입이 시급함을 강조할 때 <보기>를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보기>에서 2018년 이후의 출산율은 '옛 동독 지역에서 통일 이후 일시적으로 나왔던 수치'라고 하였으므로 우리나라가 최초의 사례라고는 볼 수 없다.

06 **예시 답안** 개요의 [사례 1]에서는 프랑스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책과 교육을 지원하여 저출생을 극복하였음을

을, [사례 2]에서는 일본의 출산금 보조 제도와 영국의 아동 수당 제도의 유사점을 비교하여 저출생을 극복하였음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효과적인 정책이 도입되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출제 의도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근거와 주장의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사례 1]과 [사례 2]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사례를 글쓴이의 주장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서술한 경우	4점
글쓴이의 주장과 구체적인 외국의 사례를 서술하였으나 주장과 연결하여 설명하지 못한 경우	2점
[사례 1]과 [사례 2]의 내용이 무엇인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1점

07 글쓴이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태똥어를 비롯하여 미술, 영어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활동은 현지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동티모르 지역의 교육에 보탬이 되고자 활동해 왔다.

② 한정된 인력과 시간 때문에 1년에 두세 차례만 진행해야 하고, 형평성의 문제로 아이들도 오래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③ 동티모르는 독립 과정에서 지식인이 희생되어 교사 인력이 부족하고, 교육의 질이 낮은 편이라고 했다.

⑤ 글의 끝부분에서 동티모르 현지 교사들은 아이들의 상황과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교사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8 이 글에서 글쓴이가 사회 복지를 전공한 사실은 드러나지만 사회 복지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해외'라는 환경에서 차이 있다. 즉 문화와 배경의 차이가 있고 소통의 문제도 있다고 하였다.

③ 아이들이 낯설어 하는 과일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단어 학습을 돕고자 한 것이다.

④ 인력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1년에 두세 차례밖에 진행할 수 없고, 형평성의 문제로 늘 새로운 아이들에게 교육해야 해서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⑤ 글쓴이가 마을을 어슬렁거리면 마을 사람들이 불러 세워 안부를 묻거나 밥을 먹고 가라고 붙잡는 등 일상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갔다.

09 예시 답안 글쓴이는 현지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마을에 살면서 쉬는 날 마을을 어슬렁거리고 빗물을 받아 우물로 물을 옮기는 등 일상을 함께 하려고 노력했고, 현지 주민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글쓴이에게 안부를 묻거나 밥을 주는 등 환대를 하였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지역 주민들과 삶을 공유하면서 동화될 수 있었다.

출제 의도 글쓴이의 행동을 통해 사회 복지사의 역할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글쓴이의 노력과 이에 따른 현지 주민의 반응을 모두 서술해야 한다.

채점 기준	배점
(가)를 참고하여 현지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글쓴이의 노력을 서술하고, 이에 대한 현지 주민의 반응을 서술한 경우	4점
(가)를 참고하여 현지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글쓴이의 노력만 서술하였거나 현지 주민의 반응만 서술한 경우	2점

10 사회 복지사의 역할을 마중물에 비유하여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공생을 살리겠다는 목표를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11 예시 답안 동티모르에서는 인력과 시간이 한정되고 형평성 문제로 새로운 아이들을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 글쓴이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사 교육으로 더 많은 교사를 배출하여 더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출제 의도 글쓴이가 동티모르에서 사회 복지사로 교육 활동을 하면서 겪은 문제 상황과 그 해결 방안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동티모르의 상황을 제시한 경우 1점으로 처리한다.

채점 기준	배점
기존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을 서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사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4점
기존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과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사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2점

12 이 글은 해외 지역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사회 복지사로서의 경험과 깨달은 점 등을 표현한 수필이다. 그러나 해외 사회 복지의 다양한 사례를 병렬식으로 나열하여 사회 복지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 전개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13 『노인 복지론』을 읽은 ‘모듬원 2’는 독서를 통해 깨달은 점을 공유하였지만 현재 직업의 수요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모듬원 1은 『사회 복지사가 말하는 사회 복지사』를 읽고 알게 된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② 모듬원 1은 국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고 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유하고 있다.

③ 모듬원 2는 ‘점차 고령화가 심화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사회 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모듬원 2는 ‘노인 소외나 노인 빈곤 문제에 관해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고 있다.

14 우진이의 진로 탐색을 위한 독서 계획에 따르면 예상 시간은 제시되어 있지만 읽을 분량을 상세화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5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매체 자료를 정리하는 것은 독서 이력 관리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독서 이력을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독서 감상문이나 서평 쓰기, 독서 토론하기, 카드 뉴스나 광고, 신문 기사나 영상처럼 새로운 자료로 제작하여 공유하기 등이 있다.

16 카드 뉴스는 주로 디지털 기기를 통해 개별적으로 수용한다는 매체 특성이 있지만, 다수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존칭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17 카드 뉴스의 첫 번째 페이지 ㉠에는 사회 복지사의 다채로운 활동을 모은 이미지가 사용되지 않았다. 직업으로서 사회 복지사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

18 카드 뉴스 세 번째 페이지는 사회 복지사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 복지사는 노인과 같은 사회적 소외 계층을 돕는 직업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노인을 돕는 이미지는 사회 복지 대상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노인을 돕는 것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전면에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